

농업·농촌경제동향
2000 여름

농업관측센터 편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나누어 작성되고 해당 월의 15일에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전망/관측”)

작성자: 전망팀(김경덕 / 채성훈)

연락처: 3299-4240 / 팩스: 965-4395

목 차

〈요 약〉

I. 국제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1
2. 교역량, 환율 및 원유가격	4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6
1. 세계농업과 농정	6
2.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14
3.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9
III. 국내경제 동향	26
1. 거시지표	26
2. 물가	30
3. 소비	34
4. 고용	36
IV. 농촌경제 동향	38
1. 농촌물가	38
2. 농가교역조건	41
3. 주요품목의 농업소득	42
4. 농업인력	43
5. 농산물 수출입	44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50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50
2. 채소류	55
3. 과일류	63
4. 축산	71

VI. 특별주제	79
○ 통합 농협 중앙회의 향후 과제	81
○ 수입마늘 긴급관세부과 조치의 배경과 경과 분석	91
○ 마늘긴급관세 협상결과와 정책방안	106
○ 과일가격 하락의 원인과 대응방향	111
부 록	127
○ 2000년 2/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	129

<요 약>

I. 국제경제동향

- 주요 국제기구들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3.5%에서 4%내외로 수정전망하여 대부분의 경제권에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발표함. 미국은 소비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에도 1/4분기 5.5% 성장하였고 일본은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2.4% 성장하였음. 아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구조개혁 미진에 따른 외환불안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경제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 중국과 유럽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
- 세계 교역은 원자재와 연료·에너지, 공산품 모두 8%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 유가는 OPEC의 증산합의로 그간의 상승세가 멈추고 있으나 당분간 27~28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짐. 유가와 원자재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각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세계환율은 미국 FRB의 금리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6월말 FRB는 현재 6.5%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미국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경기둔화의 결정적인 지표는 나타나지 않음. 유러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 엔화는 105엔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음.

II. 세계농업 및 농정동향

- 중국은 농업생산위탁제도의 확대, 농산물유통의 자유화를 비롯한 식량증산대책에 의해 1995년 이후 식량매입가격의 대폭 인상, 경지면적의 유지·확대를 위한 토지관리의 강화 등을 시행하여 곡물, 채소, 축산물 등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그 결과 과잉재고가 발생하고,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지출이 과중해지는 문제가 대두되는 한편, 농산물가격이 하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떨어지고 있음. 재고과잉 문제와 더불어 WTO가입을 앞두고 1999년부터 농업구조조정에 착수, 수급동향에 따른 생산조정을 행하는 동시에, 가격지지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을 가속하고 있음.
- 대만의 농업위원회는 총액 32억 8,000만 달러(US\$, 이하 동일)의 기금을 증액하여, WTO에 가맹 후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쌀에 대해서는 지난 3월의 WTO 회의에서 쌀 수입관리를 요구한 바 있으며 한국 및 일본과 협력하여 수입제한방식을 실시, 쌀 농가의 보호를 희망하고 있음. 현재 대만은 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WTO에 가맹함에 따라 이 금수조치는 해제가 불가피할 것임.
- 베트남은 1998년 아시아 국가들의 자연재해로 인한 쌀수출이 크게 늘어 수출물량이 1999년까지 이월되었으나 금년은 아시아국가들의 생산회복으로 쌀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 이에 따라 농업농촌개발부는 단기대책 6개안을 제시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베트남산 쌀의 수출부진은 품질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임. 품질이 우수한 수출전용 쌀을 생산하기 위해 메콩강 델타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130만ha의 경지를 조성하는 작업이 1997년부터 진행중임.
- 미국은 농산물 가격하락에 의한 농가경제 수지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53억달러에 달하는 농업대책법안을 발효시켰음. 이 법안의 내용은 작물보험료의 정부보조율 인상과 농가에 대한 추가 소득보전이 중심. 특징적인 점은 이른바 세이프티네트 강화대책으로서 작물보험제도를 확충한 것에 있음. 정부 보조율을 현행 13~57%에서 38~67%로 대폭 인상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액 8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캐나다도 농가의 수입과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순소득안정계정(NISA)을 비롯하여 작물보험제도, 주정부 독자적인 부대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소위 「세이프티네트」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1999년 2월에는 「농업소득재해지원(AIDA)프로그램」을 추가하였음.
- 프랑스는 1999년 7월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제도」(CTE)를 실시하고 있음. 이 제도는 생산물의 품질향상이나 고용의 유지창출 등 「사회경제적 사항」, 지역관리 및 경관·환경보전 등의 「국토환경적 사항」에 대하여 국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5년간 적용되는 직접지불제도임.
- 제2회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열렸음. 미국은 협상일정에 대해서는 2001년에 보호감축방법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2년까지 전체 협상을 타결하는 것으로 희망함.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관세의 대폭 삭감 또는 폐지, 특별세이프가드 폐지, 관세할당량의 대폭확대, 수입국의 국영무역기업의 배타적 수입권리 폐지 등을 요구하였음. 국내지지에 대해서는 우선 국내지지를 2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
- 2000/01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18억 6,890만톤이 될 전망이다. 2000/01년도 총공급량은 기말재고량 3억 3,910만톤과 생산량을 합쳐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22억 790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2000년 7월 현재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계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립종 쌀가격은 하락하였음.
- 대두, 소맥,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6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그러나 대두의 국제가격은 최근 하락하였지만 전년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동월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음.

Ⅲ. 국내경제 동향

- 1/4분기 중 국내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2.8% 성장하였으나 생산과 출하 및 내수가 점차 둔화되어 경기과열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농림업의 경제성장은 1%에 그쳐 농산물가격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공공요금의 주도가였으며 농림수산품의 생산자물가는 하락하였음. 소비자물가는 1.4%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와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이끌고 있음에도 소비자물가가 안정적인 것은 농림수산품의 가격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수출물가는 하락하고 있으나 수입물가는 상승하고 있어 교역조건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물가는 하락한 반면 원자재의 수입물가는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여 비용압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음.
- 소비심리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보다 소비성향이 더 높게 나타남. 고용동향은 실업률이 크게 낮아진 3.7%이지만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Ⅳ. 농촌경제 동향

- 농가교역조건은 전년동월대비 4.4%하락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3.8%하락하였음.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은 농가판매가격이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4.2%감소하였고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따라 구입가격이 5.3%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농번기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농림업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5.9% 증가하였으나 경기활황에 따른 도시부문 취업기회 증가로 전년동월대비로는 3.3% 감소함.

- 농산물 수출은 구제역 여파로 축산물이 37.2%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3% 증가하는 데 그침. 농산물 수입은 축산물이 52.4%증가하였으며 특히 오렌지의 수입이 금액기준 82.7% 증가하여 과일·과채류가격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V.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 2/4분기 주요 농산물은 과일·과채류를 중심으로 하락한 품목이 많았음. 감자가 전년동월대비 42.7%하락한 외에 사과가 49.5%, 배가 61.8%, 수박이 24.3% 하락하였음. 전기대비로는 배추가 49.5% 하락하였고 무는 37.6%, 오이는 44.1% 하락하였음.

품목	단위	1999(2/4) (A)	2000(1/4) (B)	2000(2/4) (C)	증감율		비고
					C/A	C/B	
일반미	천원/80kg	161.6	160	162.7	0.7	1.7	호남미
보리	천원/70kg	67.3	73.3	71	5.5	△3.1	쌀보리
콩	천원/70kg	203	235.3	247	21.7	5.0	백태
감자	천원/20kg	26.7	9.3	15.3	△42.7	64.5	수미
고구마	천원/15kg	21	12.3	23.7	12.9	92.7	
배추	천원/5톤트럭	1,197	4,802	2,423.3	102.4	△49.5	
무	천원/5톤트럭	2,320.3	4,125.3	2,574.3	10.9	△37.6	
마늘	원/kg	1,987.7	1,461	1,650.7	△17.0	△13.0	난지형
양파	원/kg	479.3	519	557.3	16.3	7.4	
대파	원/kg	602	751	672.7	11.7	△10.4	
건고추	원/600	5,018	4,297	4,500.7	△10.3	4.7	화건
오이	원/kg	14,196	30,906.7	17,286	21.8	△44.1	취청
사과	원/15kg	38429	24,705.3	19,422	△49.5	△21.4	
배	원/15kg	60716	30,726.7	23,194	△61.8	△24.5	신고
수박	원/6kg	6710	9,732	5,082.7	△24.3	△47.8	
참외	원/15kg	38,607.7	53,093	32,453.3	△15.9	△38.9	
한우	천원/500kg	2,087.2	2,786.3	2488.5	19.2	-10.7	큰수소
성돈	천원/100kg	210.7	195.7	-	-	-	
돼지고기	백원/kg	31.7	26.7	27.3	△13.9	2.2	
닭고기	원/kg	1301	1,182	1,192	△8.4	0.8	
계란	원/10개	834.3	612	545	△34.7	△10.9	

I. 국제경제 동향¹⁾

1. 경제성장

- 주요 국제기구들은 금년 세계경제가 지난해 전망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수정발표하고 있음. IMF는 3.5%에서 4.2%로, OECD는 3.5%에서 4.3%로 수정전망하였음. 이러한 수정발표의 배경은 미국경제가 예상과 달리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아직 유럽과 일본의 회복이 미진한 상황에서 세계수요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자칫 미국의 침체는 세계적인 수요부족으로 이어질 요인을 안고 있음.
- 미국은 경기둔화 조짐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1/4분기 5.5%). 6월말 소집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현재 6.5%의 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미국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가 2,710억달러에 이르며 금년에는 매월 3백억달러 이상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실업률은 3.9~4% 수준.
- 일본은 1/4분기 GDP가 전분기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일본 경제기획청이 발표. 성장세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어 현재 제로금리의 인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음.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은 자칫 회복세에 있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외에 미-일-유럽간 금리차를 이용한 투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서방 금융기관을 제약하게 되고 각국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미국의 성장둔화로 야기될 세계수요 감소를 일본과 유럽이 뒷받침해주어야 하나 금리인상은 이들 국가의 수요를 냉각시킬 우려가 있음.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약 10%인 4천억달러에 이르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채성훈 연구원(alpha@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며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임. 무역수지는 99회계년도 기준 12조 1천 23억엔(1,200억달러)임.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으나 민간소비는 여전히 부진함.

- 중국은 본격적인 회복세로 들어서 지난해 7.1% 성장한 데 이어 금년 1/4분기 8.1% 성장하였음. 소비자물가도 디플레이션을 벗어나 소폭 반등하고 있으며 수출은 1~5월 중 전년동기간 대비 36.8% 증가함. 소비지출 역시 10.4% 증가하여 금년 7.3%의 성장을 달성할 전망. 한편 1997년말 금융위기 후 위안화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왔으며 중국경제의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위안화의 자유변동환율제 채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유럽은 수출과 역내 수요가 호조를 보여 금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수요증가와 유러화의 지속적인 약세로 인플레이션은 전년보다 높아질 것이나 유럽중앙은행(ECB:European Central Bank)의 목표범위내(2.0%)에서 유지되고 있음.
 - 독일의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5월 102.1로 1991년 3월이후 최고치이며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7%. 이탈리아는 1/4분기 중 개인소비가 전기대비 0.2% 증가하였고 수출도 2.0%증가하여 0.6%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음. 프랑스와 영국도 경기활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EU전체로는 전기대비 0.7%의 성장을 이루었음. OECD 경제전망 보고서는 EU의 2001년 경제성장률이 3.3%에 달하여 미국의 3%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러시아는 1999년 4/4분기 7.3% 성장한 데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실업률은 12.3%(전기대비 Δ 1.3%)인 것으로 발표되었음. 국제 고유가로 원유 수출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루블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감소-수출증가가 경제성장에 호재로 작용하였음. 수출 및 경기활황에 따라 재정상황도 개선되어 금년 4월까지 재정수지가 GDP 대비 1.4%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는 두자리수 이상의 산업생산 증가, 경상수지 흑자, 중앙은행의 신뢰도 향상에 따른 외국자금 유입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음. 1/4분기 중 홍콩은 전년대비 14.3%의 고성장을 이루었고 싱가포르 9.1%, 타이완 7.9% 성장함. 2/4분기는 싱가포르가 7.7%, 말레이시아가 7% 성장하였음. 태국은 부실여신에 대한 개혁이 미진하여 증권시장이 침체를 거듭하였고 연간 4~5%성장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1/4분기에 6%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나 개혁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정국이 불안하여 외환시장에서 루피아화가 폭락($\Delta 24\%$)하는 사태를 빚었음.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GDP 기준)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세 계	3.6	3.5	2.1	2.9	3.9	3.7
선 진 국	3.1	3.2	2.4	2.6	3.5	3.2
미 국	3.7	4.5	4.3	4.2	4.6	4.0
일 본	5.2	1.4	$\Delta 2.9$	0.3	1.6	2.6
E U	1.9	2.8	2.8	2.0	3.2	2.8
개 도 국	6.1	4.9	1.3	3.8	5.4	5.5
태평양연안국 ¹⁾	6.6	4.9	$\Delta 4.8$	5.7	6.0	5.6
한 국	6.7	5.0	$\Delta 5.8$	10.6	7.5	5.7
중 국	9.8	8.5	7.8	7.1	7.2	7.5
중 남 미	3.2	5.1	0.9	$\Delta 0.8$	3.7	4.2
동 유 럽	3.9	3.1	2.2	2.5	3.7	4.8
구소련연방	$\Delta 3.3$	0.8	$\Delta 3.1$	2.9	2.2	3.1

주: 태평양연안국에는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및 태국이 포함됨.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nd Quarter, 2000.

2. 교역량, 환율 및 원유가격

2.1. 교역량

- 세계교역은 예상을 넘는 경기활황으로 1999년 4.5%증가하였고 금년은 8.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WEFA는 원자재, 연료·에너지, 공산품이 모두 8%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음. 2001년은 미국경제와 아시아 경제가 연착륙함으로써 금년보다 낮은 6%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

세계 교역량 증가율 및 환율 동향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교역량	전체	9.6	3.4	4.5	8.4	6.6
	원자재	5.5	0.6	0.5	8.3	6.0
	연료·에너지	1.1	△2.7	3.2	8.8	5.7
	공산품	11.3	4.5	5.2	8.3	6.8
환율	엔/달러	121.0	130.9	113.9	110.1	108.8
	마르크/달러	1.73	1.76	1.84	1.80	1.66
	유러	0.887	0.900	0.939	1.011	0.945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nd quarter, 2000.

2.2. 환율

- 현재 세계환율의 주요변수는 미국 FRB의 금리인상여부와 일본의 금리변화임. 6월말 FRB는 현행 금리를 6.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서구 자본의 국제이동이 종전과 같이 유지되었음. 달러대비 엔화는 6월말 현재 105.17엔이며 유러대비 달러화는 0.95달러로 유러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원화의 달러대비 환율은 6월말 기준으로 1,114.8원임.
- ECB는 회복기에 있는 유럽의 경기가 금리인상 및 환율의 평가절상으로 방해받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FRB가 금리를 인상하더라

도 유러화의 현가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폭 인상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역시 미국의 금리인상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당분간 현행 제로금리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급속한 환율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2.3. 원유가격

- 국제유가는 지난 3월 증산합의 직후 30달러미만으로 하락하였으나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여름수요 증가로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기준으로 32~33달러수준의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음.
 - 금년 6월 OPEC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증산규모는 일일 70만배럴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미 공식생산량보다 50만배럴 초과생산하고 있으므로 실제 증산규모는 25만배럴 수준에 머물고 있음.
 - OPEC의 목표유가는 장기적으로 25~28달러선이며 이번 증산합의로 세계수급이 균형을 이루어 하반기에는 27달러선(WEFA, 25.75달러)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증산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증산규모가 여름수요 및 겨울철에 대비한 재고확보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시장의 판단때문임.
 - 높은 유가로 인해 세계경기회복이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각국에서 비용압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원유 가격 동향 및 전망

단위: 달러/배럴

	2000.3	2000.4	2000.5	2000.6	2000 ¹⁾	2001 ¹⁾
WTI 유가	29.88	25.83	28.78	32.07	25.75	25.59
브렌트 유가	27.54	23.24	27.52	30.18	-	
두바이 유가	25.08	22.17	25.92	27.35	-	

주: 1) WTI는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nd quarter, 2000.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²⁾

1. 세계농업과 농정

1.1. 중국, 농업생산정책 전환

- 중국의 최근 농업동향을 보면, 농업생산위탁제도의 확대, 농산물유통의 자유화를 비롯하여 중앙정부가 식량증산대책으로 1995년 이후 식량매입가격의 대폭 인상, 경지면적의 유지·확대를 위한 토지관리의 강화 등의 요인으로 곡물, 채소, 축산물 등의 생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1999년도 식량생산은 과거 최고였던 전년도의 5억 1,230만 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겨울 소맥과 쌀 풍작으로 5억 톤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풍작의 결과로 재고 과잉이 발생하고,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지출이 과중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또 농산물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때문에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앞두고 국제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체질강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1999년부터 농업구조조정예 착수, 수급동향에 따른 생산조정을 행하는 동시에, 가격지지를 축소하고 있음.
- 2000년 1월에 개최된 中國農村工作會議에서는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하기로 하고, 농산물 품질향상, 농산물가공 확대, 농촌노동력의

2) 이 자료는 국제농업연구실 김태곤 부연구위원(taegon@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취업구조 조정, 지역생산배치의 적정화, 목축업 진흥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

- 또 동 회의에서는 2000년도 식량생산의 예측적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보다 1,000만 톤이 감소한 4억 9,000만 톤을 설정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서는 1999년 11월 미국과, 2000년 5월에는 EU와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연내 가입이 예상되고 있음. 향후 나머지 양자간의 협상을 종결하고, 가맹 시에는 중국 경제와 무역제도에 관한 규율과 의무를 규정한 가맹의정서에 대하여 WTO 전체 가맹국과의 합의가 필요함.

1.2. 대만, WTO 가입에 따른 손실보상 강화

- 대만의 농업위원회는 총액 32억 8,000만 달러(US\$, 이하 동일)의 기금을 증액하여, WTO 가입 후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 기금은 대만이 WTO에 가입한 경우, 국내 농업종사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작년은 농업종사자에게 7억 600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금년은 8억 3,100만 달러를 확보할 예정임.
- 대만의 농업종사자는 WTO 가입에 의한 영향을 머지않아 받게 될 것이지만, 축산업계는 이미 타격을 입고있음. WTO 자유화방침을 따르는 것이 가입조건이기 때문에 대만은 일정량의 축산품 수입을 허가한 바 있기 때문임.

- 시장개방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농업위원회는 684가구의 양계 농가와 5,070가구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3억 1,520억 달러를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조정보상계획을 실시하였음. 또 농업위원회는 WTO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농업관련산업 중에서 업적이 부진한 기업을 배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직고용자에 대해서는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쌀에 대해서는 대만은 지난 3월의 WTO 회의에서 쌀 수입관리를 요구한 바 있음. 대만은 한국 및 일본과 협력하여 수입제한방식을 실시, 쌀 농가의 보호를 희망하고 있음. 현재 대만은 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WTO에 가입함에 따라 금수조치 해제가 불가피할 것임. 예를 들면 대만이 금년에 WTO에 가입한다면 14만 4,720톤의 쌀을 수입해야 하며, 쌀 생산 농가에게 약 1억 97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임.

1.3. 베트남, 쌀 수출부진에 대한 해결책 제안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2000년 1~2월간의 쌀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물량으로 65%, 금액으로 68% 감소한 것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음.
- 1998년에는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베트남에서 쌀을 수입하였고, 이 수요가 1999년에도 이월되었음. 그러나 금년은 세계 식량생산이 회복하여 수출량도 1998년 이전수준으로 증가하여 베트남 쌀의 주요 수입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이 곡물수입계획을 수정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는 쌀 시장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쌀 수출기업은 경험이 부족하여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 있음. 이에 정부는 쌀 수출량을 늘리기 위하여 각 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한 것을 받아서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다음과 같은 6개의 단기적인 대책을 제안하였음.

- ① 농업종사자, 기업, 국가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kg당 최저 판매가격을 1,550~1,600VND(베트남 화폐단위)으로 설정함.
 - ② 각 기업이 1만 톤을 한도로 하는 수출계약을 적극 체결하도록 장려함.
 - ③ 국영기업은 국가의 식량비축을 늘리기 위하여 저리 용자를 이용하여 3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메콩강 델타지역의 겨울 쌀과 봄 쌀을 대량 구입함.
 - ④ 일부 수출기업에게 사후 지불을 조건으로 쌀 수출을 인정, 시장이 활기를 찾았을 때 쌀을 수출하여 외국에 대한 채무변제를 충당함.
 - ⑤ 국가는 「쌀수출대부기금」을 설치, 수출기업에게 후불 조건에 의한 수출을 지원함.
 - ⑥ 정부는 재외 외교 및 통상관계 사무소를 통하여 구매자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에 의한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 실제로 베트남 쌀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품질 때문이며, 특히 메콩강 델타지역에서는 미작농가가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품질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수출전용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메콩강 델타지역에 100만ha를 비롯하여 전체 130만ha의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1997년부터 착수되고 있음.

1.4. 미국 클린턴 대통령, 농가소득지원을 위한 법안에 서명

-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 총액 153억 달러의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농업대책법안에 서명하였음. 이것은 곡물가격하락에 의한 농가경제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임.

- 곡물가격의 하락에 따른 농가경영안정대책의 확충을 위하여 미국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농가구제대책의 총액은 153억 달러로서 작물보험료의 정부보조율 인상과 농가에 대한 추가 소득보전이 중심.
- 구제대책은 3년 연속 계속되는 것이며, 예산규모는 금년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겨냥하여 대폭 확대된 것임.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전이 71억 달러이고 이 중 55억 달러는 직접지불 대상농가에게 금년말까지 일괄 지불되며, 나머지 16억 달러는 현재 심의되고 있는 2001년도 농업예산에 추가될 것임.
- 이번 구제대책의 결과, 농가의 실질소득은 시장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에 의해 사상 최고였던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번 대책의 특징은 농가의 세이프티네트 강화대책으로서 작물보험제도를 확충한 것에 있음. 정부 보조율을 현행 13~57%에서 38~67%로 대폭 인상,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액 8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작물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임.
- 한편 곡물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1998년 이후 융자부족불제도(LDP)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이 제도는 가격지지수준인 목표가격(loan rate)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임. 시장가격이 비교적 높았던 1997년까지는 거의 지급되지 않았지만 1998년도 지급액은 옥수수, 대두, 소맥을 중심으로 23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1999년도는 전년도 이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지불단가와 적용수량이 증가하였음.

1.5. 캐나다, 「세이프티네트」 정책 강화

- 캐나다는 농가의 수입과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순소득안정계정(NISA)을 비롯하여 작물보험제도, 주정부 독자적인 부대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소위 「세이프티네트」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1999년 2월에는 곡물과 돈육 등의 가격하락으로 농가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농가지원을 위하여 「농업소득재해지원(AIDA)프로그램」이 추가되고 있음.
- 또 2000년 3월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농업부 장관회의에서 2000년 이후 3년간에 걸친 새로운 세이프티네트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정책내용은 순소득안정계정(NISA), 작물보험제도, 주정부 독자적인 부대제도, 농업소득재해지원, 추계현금선불제도(수확 직후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지출규모는 11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연방정부에서 각 주정부로의 배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음. 또 순소득안정계정에 대해서는 농가의 인출이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하고 있음.

1.6. 프랑스,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제도」(CTE) 실시

- 프랑스는 1999년 7월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그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제도」(CTE)를 실시하고 있음.

- 이 제도는 농가가 입지하는 지역이나 생산품목에 상관없이 생산물의 품질향상이나 고용의 유지창출 등 「사회경제적 사항」이나, 지역관리나 경관·환경보전 등의 「국토환경적 사항」에 대하여 국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5년간 적용되는 직접지불제도임.
-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직접지불이라는 형태로 재정적인 지원이 행해지고 있으며, CTE 예산은 기존 농업부에서 전환된 예산, EU의 농업환경정책 등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1999년은 4억 5,000만 프랑, 2000년은 19억 프랑을 예상하고 있음.
- 그리고 2000년 3월 농업부 통달에 의하여 1건당 지원액(5년간)은 13만 7,500프랑 내지 16만 5,000프랑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것을 초과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7. 제2회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결과

- 제2회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열렸음.
- 이번 회의에서는 WTO 사무국의 농업협정 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차기협상 고려사항에 관한 배경문서를 비롯하여, 각국의 협상제안서로서 미국의 포괄제안, 케언즈 그룹의 수출경쟁에 관한 제안, 캐나다의 시장접근에 관한 제안, 개도국 그룹의 국내지지 및 개도국 특별 대우에 관한 제안, EU의 국내지지·식품품질·동물애호에 관한 제안 등이 주요 의제로서 채택되어 논의가 있었음.
- 특히 미국은 협상일정에 대해서는 2001년에 보호감축방법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2년까지 전체 협상을 타결하는 것으로 희망하였고,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관세의 대폭 삭감 또는 폐지, 특별세이프

가드 폐지, 관세할당량의 대폭확대, 수입국의 국영무역기업의 배타적 수입권리 폐지 등을 요구하였음.

- 또 국내지지에 대해서는 우선 국내지지를 2가지 유형으로 단순화, 즉 무역왜곡 또는 생산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거나 적은 허용대상 보조와 그 외의 국내보조는 감축대상보조로 하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음. 감축대상에 대해서는 고정된 기준기간의 농업총생산액의 일정비율(각국 공통)을 AMS의 최종 약속수준으로 한다는 주장임.
- 한편 개도국 그룹은 국내보조의 유형을 「그린 박스」(green box) 하나로 통일하여 농업생산의 일정비율까지만 각국 모두에게 인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금지, 개도국은 「개도국 박스」(development box)등을 설정하여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하였음.
- 그리고 「개도국 박스」는 개도국의 국내 생산능력의 보호 및 향상, 식료안전보장 및 특히 빈곤층에 대한 식료제공, 농촌빈곤층에 대한 고용기회 제공,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새롭게 설정하자는 주장임.
- 이상과 같은 각국의 제안과 의제에 대하여 참가국은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장이 있었으나 특별히 도출된 결론은 없었음. 단지 차기 회의는 9월 28일 개최되며, 농업협정 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려사항에 관한 WTO 사무국 배경문서 및 각국이 제출하는 협상제안서에 관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폐막되었음.

2.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³⁾

1.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1. 전체 곡물

- 2000/01년도 세계 쌀, 소맥 및 대두의 생산량은 1999/00년도보다 약간 줄어들 전망이지만 옥수수의 생산량이 늘어나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18억 6,890만톤이 될 전망이다. 2000/01년도 총공급량은 기말재고량 3억 3,910만톤과 생산량을 합쳐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22억 790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 2000/01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6% 늘어난 18억 8,940톤으로 전망됨. 소비량의 증가와 함께 세계 곡물 교역량도 전년대비 1.1% 증가한 2억 6,72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가 될 전망이다.

세계 전체 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톤

구분	1998/99	1999/00 (추정)	2000/01 (전망)		변동율(%)	
			2000. 5	2000. 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73.4	1,864.7	1,876.8	1,868.9	0.2	△0.4
공 급 량	2,204.6	2,218.1	2,216.9	2,207.9	△0.5	△0.4
소 비 량	1,851.3	1,879.0	1,890.7	1,889.4	0.6	△0.1
교 역 량	254.6	264.2	267.1	267.2	1.1	0.0
기말재고량	353.4	339.1	326.2	318.6	△6.0	△2.3
재고율(%)	19.1	18.0	17.3	16.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3, June 9, 2000.

-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2,000만톤 이상 초과할 전망이어서 2000/01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6% 감소한 3억 1,860만톤으로 줄어들고 전체 곡물 재고율도 16.9%로 크게 내려갈 전망이다.

3) 이 자료는 농산업경제연구부 성명환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 mhsung@krei.re.kr로 연락바람.

이는 1999/00년도 재고율보다 약 1%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임.

1.2. 쌀

- 2000/01년도 쌀 생산량은 1999/00년도보다 200만톤 이상 줄어들어 4억톤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미국의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4.5% 감소한 630만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중에서 장립종 쌀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지만 중·단립종 쌀 생산량은 1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 2000/01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8% 늘어난 4억 300만톤 수준으로 전년보다 300만톤 늘어날 전망이다.
- 2000/01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대비 9.1% 늘어난 2,52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전망됨.

국제 쌀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1998/99	1999/00 (추정)	2000/01 (전망)		변동율(%)	
			2000. 5	2000. 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94.0	402.7	400.3	400.3	△0.6	0.0
소 비 량	389.2	400.0	403.0	403.0	0.8	0.0
교 역 량	26.8	23.1	25.2	25.2	9.1	0.0
기말재고량	59.6	62.2	59.9	59.5	△4.3	△0.7
재고율(%)	15.3	15.6	14.9	14.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3, June 9, 2000.

- 2000/01년도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량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4.3%가 줄어든 5,95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재고율도 14.8%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1.3. 소맥

- 세계 밀 생산량은 1999/00년 5억 8,670만톤에서 2000/01년에도 전년대비 1.9% 감소한 5억 7,58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유럽과 러시아의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나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임.
- 2000/01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1999/00년 5억 9,540만톤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밀의 국제 교역량은 1998/99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1억 2,080만톤으로 감소하였다가 1999/00년 1억 2,680만톤으로 늘어나고, 2000/01년에는 전년보다 0.1% 늘어난 1억 2,690만톤,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22%가 될 전망임.
- 1999/00년도 기말재고량은 1억 2,590만톤으로 추정되나, 2000/01년에는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15.6% 감소한 1억 630만톤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며, 기말재고율도 18%대 이하로 떨어질 전망임.

국제 소맥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1998/99	1999/00 (추정)	2000/01 (전망)		변동율(%)	
			2000. 5	2000. 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9.2	586.7	580.4	575.8	△1.9	△0.8
소 비 량	591.0	597.4	596.9	595.4	△0.3	△0.3
교 역 량	120.8	126.8	129.0	126.9	0.1	△1.6
기말재고량	136.6	125.9	109.4	106.3	△15.6	△2.8
재고율(%)	23.1	21.1	18.3	17.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3, June 9, 2000.

1.4. 옥수수

- 2000/01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1,470만톤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아르헨티나 등 주요 옥수수 생산국의 생산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임.
- 최근 세계 경제가 점차 되살아남으로써 2000/01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1.3% 늘어난 6억 1,130만톤으로 전망됨. 그러나 옥수수의 교역량은 전년보다 1% 줄어든 7,970만톤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로 낮아질 전망이다.
- 생산량이 소비량을 300만톤 이상 초과할 전망이어서 2000/01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1억 1,580만톤으로 전망됨. 중국의 기말재고량은 줄어들지만 미국, 유럽, 아르헨티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약간 높은 18.9%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1999/00 (추정)	2000/01 (전망)		변동율(%)	
			2000. 5	2000. 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05.9	604.4	614.9	614.7	1.7	0.0
소 비 량	583.5	603.2	608.9	611.3	1.3	0.4
교 역 량	75.5	80.5	78.2	79.7	△1.0	1.9
기말재고량	111.1	112.3	119.0	115.8	3.1	△2.7
재고율(%)	19.0	18.6	19.5	18.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3, June 9, 2000.

1.5. 대두

- 세계 대두 생산량은 1998/99년에 사상최대인 1억 5,940만톤으로 추정되며, 1999/00년 생산량은 주요 생산국인 미국, 브라질, 중국의 생산감소로 전년보다 2.6% 줄어든 1억 5,520만톤으로 전망됨. 반면, 1999/00년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0.9% 늘어난 1억 5,960만톤으로 전망되어 소비량이 생산량을 400만톤 이상 초과할 전망이다.
- 1999/00년 세계 대두 교역량은 중국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전년보다 16.1% 증가한 4,47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29%에 이를 전망이며, 전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58.2%, 브라질이 20.6%, 아르헨티나가 11.4%로 전망되어 이들 세 국가의 수출비중이 90%에 이를 전망이다.
- 1999/00년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2,000만톤으로 추정되어 1998/99년 2,440만톤과 비교하여 400만톤 이상이 줄어들고 기말재고율도 12.5%로 내려갈 전망이다. 주요 대두 생산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기말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제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7/98	1998/99 (추정)	1999/00 (전망)		변동율(%)	
			2000. 5	2000. 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8.0	159.4	155.1	155.2	△2.6	0.1
소 비 량	148.6	158.1	159.2	159.6	0.9	0.3
교 역 량	40.5	38.5	43.3	44.7	16.1	3.2
기말재고량	21.6	24.4	20.3	20.0	△18.0	△1.5
재고율(%)	14.5	15.4	12.8	12.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3, June 9, 2000.

3.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2.1. 개황

- 2000년 7월 현재 전월대비 세계 곡물가격은 쌀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음.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계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립종 쌀가격은 하락하였음.
- 대두, 소맥,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6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그러나 대두의 국제가격은 최근 하락하였지만 전년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동월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음.

국제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1998 평균	1999 평균	1999. 7	2000. 6	2000. 7	증감률(%)		
						전년대비	전년동월	전월대비
쌀(중립종)	430.71	500.56	556.66	457.45	457.45	△8.6	△17.5	0.0
쌀(장립종)	309.56	255.60	264.50	210.00	202.50	△20.8	△23.4	△3.6
소 맥	119.90	122.06	119.68	110.14	108.39	△11.2	△9.4	△1.6
옥수수	102.66	92.10	85.42	91.70	82.18	△10.8	△3.8	△10.4
대 두	234.33	185.90	168.98	197.97	185.01	△0.5	9.5	△6.5

주: 쌀 중립종은 U.S. California, Medium 1등급, 장립종은 태국 1등급 가격임.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급 가격이며,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급 가격임.

자료: 한국경제신문, UNICOM.

2.2. 쌀

- 중립종(자포니카 계) 쌀의 국제가격은 1998년 9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톤당 556.66달러

를 기록함. 이후 하락하여 2000년 7월 국제가격(7월 7일 기준)은 전년대비 8.6%, 전년동월대비 17.5% 하락한 톤당 457.45달러 수준임. 최근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후반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1999년 10월 톤당 221.80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0년 2월 253.25달러까지 상승하였음. 이후 계속 하락하여 7월(7월 7일 기준) 현재 톤당 202 달러 수준임. 이는 전년대비 20.8%, 전년동월대비로는 23.4% 낮은 수준임. 현재 장립종 쌀 가격은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2000/01년도 장립종 쌀의 생산감소와 재고량 감소가 전망되어 2000/01년도에는 상승할 가능성 큼.

2.3. 소맥

- 밀의 국제가격은 1996년 5월 톤당 218.11 달러까지 폭등한 이후 1997/98년의 대풍작에 따라 1997년 153 달러로 하락하였음. 가격 하락에 따라 1998/99년의 식부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1998/99년의 국제 밀 가격은 120 달러로 더욱 하락하였음.
- 국제 밀 가격은 1999년 12월에 톤당 112.44 달러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 상반기에는 110~118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2000년 7월(7월 7일 기준)에는 108.39 달러로 하락함으로써 2000년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2000/01년의 국제가격은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약간 많고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약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1970년대 곡물 파동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제 밀 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전망이다.

2.4. 옥수수

- 1996년 5월 톤당 209 달러까지 폭등했던 옥수수 국제가격은 연속된 풍작으로 1999년 7월에는 85.42 달러까지 폭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회복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102.67 달러로 상승하였음.
- 2000년 6월(6월 16일 기준)에는 다시 크게 하락한 톤당 82.18 달러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2000년 7월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3.8% 낮은 수준임.
- 2000/01년 옥수수 생산증가와 재고량 증대로 국제가격은 100달러 내외에 있을 것으로 전망됨. 중장기적으로 옥수수 국제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5. 대두

- 대두 국제가격은 1997년 5월에 톤당 331달러(미국 Gulf, 2등급, f.o.b.)까지 상승하였으나, 1997/98, 1998/99년의 연이은 풍작에 따라 1998년에 234.33 달러, 1999년 7월에는 168.98 달러까지 하락하였음.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211.72 달러까지 상승하였음.
- 2000년 7월(7월 7일 기준)에는 다시 하락하여 톤당 185.01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전년동월 대비로는 9.5% 높은 수준임.
- 2000년 가격은 1999년 가뭄으로 인한 생산감소와 1999/00년도 대두 소비량 증가 및 재고량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상승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대두의 재고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국제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구 분	1998/99 실적치	1999/00 추정치	2000/01 전망치		변동률 (%)	
			2000. 5	2000. 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54.9	59.6	62.6	62.2	4.4	△0.6
생산량	394.0	402.7	400.3	400.3	△0.6	0.0
중국	139.1	141.0	-	-	-	-
일본	8.2	8.4	-	-	-	-
인도네시아	32.1	32.1	-	-	-	-
태국	15.2	15.9	-	-	-	-
베트남	20.1	20.5	-	-	-	-
미국	5.9	6.6	6.3	6.3	△4.5	0.0
수입량	25.9	20.8	23.3	23.3	12.0	0.0
인도네시아	3.9	2.0	-	-	-	-
일본	0.7	0.7	-	-	-	-
중국	0.2	0.2	-	-	-	-
이용량						
소비량	389.3	399.5	403.0	403.0	0.8	0.0
중국	136.8	138.0	-	-	-	-
일본	9.1	9.5	-	-	-	-
인도네시아	35.5	35.7	-	-	-	-
태국	8.9	9.0	-	-	-	-
베트남	15.6	16.7	-	-	-	-
미국	3.8	3.7	3.8	3.8	2.7	0.0
수출량	26.8	22.8	25.2	25.2	9.1	0.0
태국	6.7	5.8	-	-	-	-
베트남	4.6	3.6	-	-	-	-
미국	2.7	2.7	2.7	2.8	0.0	3.7
기말재고량	59.5	62.6	59.9	59.5	△4.3	△0.7
중국	26.5	27.1	-	-	-	-
일본	2.6	1.8	-	-	-	-
인도네시아	4.0	2.4	-	-	-	-
태국	0.7	1.7	-	-	-	-
미국	0.7	1.3	1.4	1.3	8.3	△7.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3, June 9, 2000.

세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구 분	1998/99	1999/00	2000/01 전망치		변동률 (%)	
	실적치	추정치	2000. 5	2000. 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138.4	136.6	125.9	125.9	△7.8	0.0
생산량	589.2	586.7	580.4	575.8	△1.9	△0.8
중국	109.7	115.0	107.0	104.0	△9.6	△2.8
미국	69.3	62.7	60.9	60.2	△4.0	△1.1
EU-15	103.1	96.8	106.2	106.0	9.5	△0.2
호주	22.1	24.1	23.0	23.0	△4.6	0.0
캐나다	24.1	26.9	24.5	24.5	△8.9	0.0
러시아	27.0	31.0	33.0	33.0	6.5	0.0
수입량	120.2	124.1	128.2	127.1	2.4	△0.9
EU-15	25.2	25.1	25.6	25.6	2.0	0.0
북아프리카	16.9	15.2	17.5	17.5	15.1	0.0
브라질	7.1	7.0	7.2	7.2	2.9	0.0
러시아	2.5	4.8	3.0	3.0	△37.5	0.0
인도	2.0	1.7	0.1	0.1	△94.1	0.0
파키스탄	3.1	2.5	2.5	0.5	△80.0	△80.0
이용량						
소비량	591.0	597.4	596.9	595.4	△0.3	△0.3
중국	115.7	117.0	115.0	115.0	△1.7	0.0
EU-15	87.8	89.0	92.0	91.9	3.3	△0.1
미국	37.7	36.3	35.7	35.3	△2.8	△1.1
러시아	35.3	35.5	35.3	35.3	△0.6	0.0
파키스탄	21.3	21.4	21.8	21.8	1.9	0.0
수출량	120.8	126.8	129.0	126.9	0.1	△1.6
EU-15	35.9	36.5	38.3	38.1	4.4	△0.5
미국	28.4	29.7	30.6	30.6	3.0	0.0
캐나다	14.7	18.5	18.0	18.0	△2.7	0.0
기말재고량	136.6	125.9	109.4	106.3	△15.6	△2.8
중국	27.9	26.4	20.2	18.4	△30.3	△8.9
EU-15	19.0	15.4	17.1	17.0	10.4	△0.6
미국	25.7	25.0	22.8	22.0	△12.0	△3.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3, June 9, 2000.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구 분	1998/99 실적치	1999/00 추정치	2000/01 전망치		변동률 (%)	
			2000. 5	2000. 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88.6	111.1	112.9	112.3	1.1	△0.5
생산량	605.9	604.4	614.9	614.7	1.7	0.0
미국	247.9	239.7	247.4	247.4	3.2	0.0
아르헨티나	13.5	16.0	16.5	16.5	3.1	0.0
EU-15	35.3	37.2	38.8	38.8	4.3	0.0
멕시코	17.8	19.0	19.0	19.0	0.0	0.0
동남아시아	15.7	14.6	14.9	14.7	0.7	△1.3
중국	133.0	128.0	125.0	125.0	△2.3	0.0
수입량	76.1	77.1	77.0	77.9	1.0	1.2
일본	16.3	16.3	16.1	16.1	△1.2	0.0
EU-15	11.8	11.5	11.1	11.1	△3.5	0.0
한국	7.5	9.0	8.5	8.5	△5.6	0.0
동남아시아	3.1	3.7	3.8	3.9	5.4	2.6
멕시코	5.6	4.6	5.0	5.0	8.7	0.0
이용량						
소비량	583.5	603.2	608.9	611.3	1.3	0.4
미국	185.9	193.2	194.3	195.0	0.9	0.4
EU-15	38.0	38.4	39.8	39.9	3.9	0.3
중국	117.3	120.0	121.0	121.0	0.8	0.0
일본	16.4	16.4	16.2	16.2	△1.2	0.0
한국	7.6	9.1	8.5	8.5	△6.6	0.0
동남아시아	18.0	18.6	18.8	18.8	1.1	0.0
멕시코	23.0	23.1	23.6	23.6	2.2	0.0
수출량	75.5	80.5	78.2	79.7	△1.0	1.9
미국	50.3	47.6	48.3	50.2	5.5	3.9
아르헨티나	7.9	9.0	9.5	9.5	5.6	0.0
중국	3.3	9.0	6.0	6.0	△33.3	0.0
기말재고량						
미국	45.4	44.7	50.4	47.2	5.6	△6.3
중국	38.6	37.9	36.2	36.2	△4.5	0.0
아르헨티나	0.7	0.9	0.9	1.0	11.1	11.1
EU-15	4.6	5.9	6.9	7.2	22.0	4.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3, June 9, 2000.

세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구 분	1997/98 실적치	1998/99 추정치	1999/00 전망치		변동률 (%)	
			2000. 5	2000. 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13.4	21.6	24.4	24.4	13.0	0.0
생산량	158.0	159.4	155.1	155.2	△2.6	0.1
미국	73.2	74.6	71.9	71.9	△3.6	0.0
브라질	32.5	31.3	31.0	31.0	△1.0	0.0
아르헨티나	19.5	19.9	21.0	21.0	5.5	0.0
중국	14.7	15.2	14.3	14.3	△5.9	0.0
수입량	39.4	40.0	43.4	44.6	11.5	2.8
EU-15	16.6	16.5	16.5	16.4	△0.6	△0.6
일본	4.9	4.8	4.8	4.8	0.0	0.0
중국	2.9	3.9	5.9	7.2	84.6	22.0
이용량						
소비량	148.6	158.1	159.2	159.6	0.9	0.3
미국	47.7	48.8	47.7	47.3	△3.1	△0.8
아르헨티나	13.7	18.3	18.6	17.8	△2.7	△4.3
브라질	22.2	23.2	23.9	24.1	3.9	0.8
EU-15	17.2	17.4	17.1	17.0	△2.3	△0.6
일본	5.0	5.0	5.0	5.0	0.0	0.0
중국	17.5	18.8	20.1	21.3	13.3	6.0
수출량	40.5	38.5	43.3	44.7	16.1	3.2
미국	23.8	21.8	25.6	26.0	19.3	1.6
브라질	8.8	8.9	9.3	9.2	3.4	△1.1
아르헨티나	3.2	3.2	4.1	5.1	59.4	24.4
기말재고량	21.6	24.4	20.3	20.0	△18.0	△1.5
미국	5.4	9.5	8.2	8.2	△13.7	0.0
아르헨티나	7.2	6.1	5.0	4.8	△21.3	△4.0
브라질	6.5	6.3	4.8	4.7	△25.4	△2.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3, June 9, 2000.

Ⅲ. 국내경제 동향4)

1. 거시지표

- 금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12.8%로 지난 분기에 이어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생산 및 출하지수가 둔화되고 재고가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이후 경기가 하향안정화 될 것으로 판단됨.
- 생산은 1/4분기 23.4% 증가하였으나 3월 17.6%, 4월 16.9%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음. 생산제품의 시장출하 역시 2월의 28.2% 증가를 정점으로 3월 18.0%, 4월 14.2%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
- 출하감소는 수출보다 내수부문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출하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가동율은 76~78%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년 중반이후 재고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산업생산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1999		2000			
	연간	4/4	1/4	2월	3월	4월
G D P	10.7	13.0	12.8	-	-	-
생 산	24.2	28.9	23.4	25.4	17.6	16.9
출 하	25.1	31.0	25.0	28.2	18.0	14.2
(수 출)	30.6	37.7	26.6	29.6	15.6	16.3
(내 수)	21.1	26.1	23.7	27.0	19.8	12.7
재 고	2.1	2.1	11.3	8.1	11.3	12.3
(전월비)	-	5.3	3.1	△0.6	1.3	△0.6
평균가동율	76.5	79.8	79.6	78.7	79.8	76.4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채성훈 연구원(alpha@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23% 성장하는 등 전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림어업은 1/4분기 중 1% 성장하는데 그쳤음. 이는 금년 상반기 과채류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고 마늘의 수확 및 출하가 부진한데 따른 것임.

경제활동별 경제성장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2000
	연간	3/4	4/4	연간	1/4
전 산업	△6.1	13.3	12.8	11.0	13.3
농림어업	△6.6	6.7	2.7	4.7	1.0
제조업	△7.4	27.3	27.2	21.8	23.0
서비스업	△7.2	13.0	14.4	11.7	11.7

자료: 재정경제부

- 본원통화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1%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투신사를 비롯한 제2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시중자금이 좀더 안전한 은행권에 집중됨으로써 민간대출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4월 통화량(M₁)이 증가한 것은 주식시장의 침체로 투신사에서 빠져나간 민간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유동자금화 되었기 때문이며 5월이후로는 이 자금이 은행권의 저축성예금으로 이동하여 총통화량(M₂)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통화지표 (평잔기준)

단위: 전년동월대비, %

	1999	2000				
	연간	1월	2월	3월	4월 ^p	5월 ^p
M ₁	12.9	23.4	15.8	16.2	21.2	17.9
M ₂	27.9	27.6	28.1	27.2	29.6	33.6
MCT	7.7	12.2	13.5	13.7	15.5	16.4
본원통화 ^주	12.1	28.6	21.2	19.9	21.4	21.8

MCT=M₂+CD+금전신탁

자료: 한국은행.

주: 증감율

-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은행간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 및 양도성 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실세 금리인 회사채유통수익률 역시 10%내외에서 안정되고 있음.

시중자금사정

단위: 월평균, %

	1999	2000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콜 금 리	4.9	4.7	4.9	5.0	5.0	5.0
CD유통수익률	6.8	7.3	7.1	7.0	7.6	7.1
회사채유통수익률	8.9	10.3	10.0	10.0	10.0	9.9

자료: 재정경제부

- 환율은 5월평균 1,120원이며 6월말 이후 1,115원 내외에서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음. 4월과 5월 현대문제를 우려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로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현대문제가 진정된 데 따른 자금환류로 평가절상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IMF 금융위기후 이루어진 자본자유화로 환율이 실물부문보다는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부문의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기업매각,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해외자금 유치 등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는 환율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도리어 생산성향상과 기술진보로 경상수지 개선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현재 원화의 평가절상 추세가 지속되는 데에는 직접투자보다는 주식 및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간접투자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분기별 달러 환율

단위: 원(평균환율), %(전년동월대비)

	1999	2000				
	연간	1	2	3	4	5
대미환율	1,189.5	1,131.1	1,128.8	1,117.2	1,109.8	1,120.0
증감율(%)	△15.0	△3.9	△4.9	△9.1	△8.2	△6.4

자료: 재정경제부

- 대다수 연구기관들은 금년 하반기 이후에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나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GDP 성장률은 1/4분기 중 12.8%에 달하였으나 생산, 소비, 투자 등이 하락하고 있고 경기선행지수 역시 둔화되어 하반기이후에는 6%, 연간으로 7.5~8.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연구기관별 경제 전망

구분	기관명	발표시기	경제성장(%)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흑자(억달러)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국내 기관	KDI	7	8.6	-	2.1	-	-	95	-
	한국은행	7	8.9	-	2.2	-	-	90	-
	재경부	7	8.0	-	2.5	-	4.0	100	-
	LG경제연구원	6	8.6	6.8	2.2	2.5	4.0	106	47
	현대경제연구원	6	7.8	5.5	2.3	3.5	4.1	90	△8
	삼성경제연구원	6	8.5	-	2.4	-	4.3	82	-
국외 기관	WEFA	7	7.5	5.7	2.7	4.9	-	195	99

- 소비자물가는 그간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던 내수용 소비지출 증가가 진정됨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임금 및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연간 2.2~2.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실업률은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4%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경상수지 흑자는 82~195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2. 물가

- 금년 2/4분기 및 1/4 분기중 생산자물가는 전력·수도·가스와 같은 공공요금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공산품과 서비스 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농림수산품의 생산자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음.
-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고유가에 따른 원재료의 물가지수 상승률이 1999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임을 보여줌.
- 2/4분기 과채류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결과 농림수산품이 3~5월에 걸쳐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6월 들어 다소 반등하고 있음.
- 6월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상승(전월대비 0.7%)하였으며 농림수산품은 1.8%(0.5%), 공산품 2.5%(0.8%), 전력·수도·가스 10%(0.0%), 서비스 1.5%(0.2%) 상승하였음.
 - 2/4분기로는 총지수가 1.9%(전기대비 $\Delta 0.1\%$) 상승하였으며 농림수산품이 3.9%($\Delta 3.8\%$)하락한 반면, 공산품이 2.2%($\Delta 0.1\%$), 서비스가 1.3%(0.3%), 전력·수도·가스가 9.3%(1.0%) 상승하여 공공요금이 생산자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1/4분기중으로는 총지수가 2.1%(전기대비 $\Delta 0.1\%$), 농림수산품 0.1%(3.4%), 공산품 2.6%($\Delta 0.4\%$), 전력·수도·가스 7.2%(3.3%) 상승하였고 가공단계별로는 원재료 32.4%(전기대비 3.4%), 중간재 4.0%($\Delta 0.5\%$), 최종재 $\Delta 0.7\%$ ($\Delta 0.7\%$) 상승함.

품목별 생산자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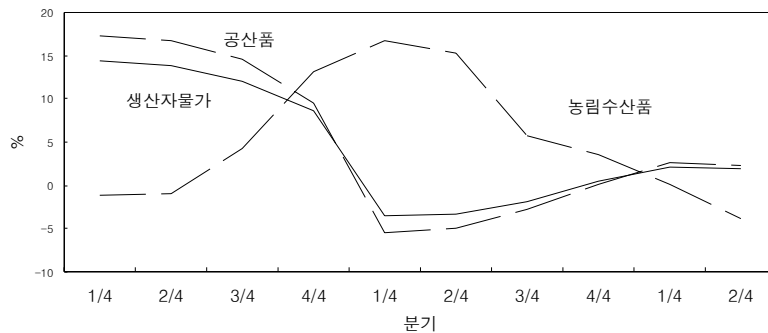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연간	1/4	2/4	3월	4월	5월	6월
농림수산물	10.1	0.1 (3.4)	△3.9 (△3.8)	△2.6 (△1.2)	△7.5 (△4.1)	△5.8 (1.7)	1.8 (0.5)
광 산 품	1.1	△0.6 (0.9)	1.8 (0.2)	△0.7 (△0.2)	△0.4 (0.0)	2.9 (0.6)	2.8 (△0.4)
공 산 품	△3.3	2.6 (△0.4)	2.2 (△0.1)	3.2 (0.3)	2.8 (△0.1)	1.5 (△0.7)	2.5 (0.8)
전력수도가스	0.5	7.2 (3.3)	9.3 (1.0)	7.2 (0.0)	8.4 (0.0)	9.7 (1.5)	10.0 (0.0)
서비스	△2.1	1.1 (△0.2)	1.3 (0.3)	1.1 (0.2)	1.3 (0.2)	1.2 (0.2)	1.5 (0.2)
원 재 료	△7.6	32.4 (3.4)	-	32.0 (2.1)	29.3 (-0.1)	17.4 (△4.7)	-
중 간 재	△9.2	4.0 (-0.5)	-	4.7 (0.4)	4.3 (△0.3)	3.8 (△0.3)	-
최 종 재	△0.8	△0.7 (△0.7)	-	△1.1 (△0.2)	△2.2 (△0.8)	△2.0 (0.0)	-
총지수	△2.1	2.1 (△0.1)	1.9 (△0.1)	2.4 (0.1)	1.9 (△0.3)	1.2 (△0.3)	2.6 (0.7)

자료: 한국은행

주: ()는 전기(월)대비

품목별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월) 대비 소비자물가는 1/4분기중 2.2% 상승하였으나 3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소비자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공산품이 소폭 상승하였다는 점과 함께 농림수산품의 물가하락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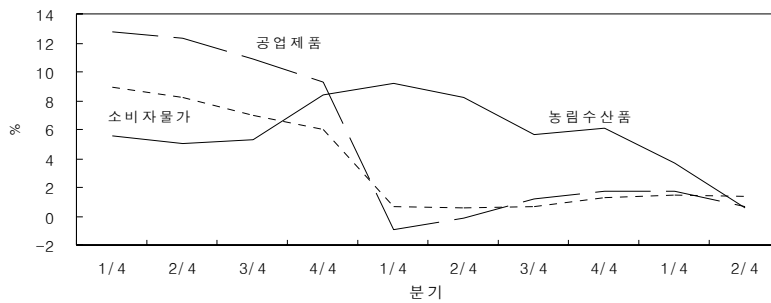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연간	1/4	2/4	3월	4월	5월	6월
상 품	2.3	2.2	0.7	1.7	0.0	0.1	2.0
		(△0.2)	(△1.1)	(△0.3)	(△1.2)	(△0.1)	(0.9)
농림수산물	7.2	3.7	0.6	1.6	△1.7	△0.2	4.1
		(1.1)	(△3.0)	(△1.4)	(△2.4)	(0.0)	(0.3)
공업제품	0.5	1.7	0.7	1.8	0.7	0.2	1.3
		(△0.6)	(△0.3)	(0.2)	(△0.7)	(△0.1)	(1.2)
서비스	△0.8	0.9	2.3	1.5	2.1	2.4	2.6
		(0.8)	(1.4)	(1.1)	(0.4)	(0.1)	(0.1)
집세	△4.1	△2.8	△1.1	△2.3	△1.6	△1.1	△0.5
		(0.0)	(0.5)	(0.1)	(0.3)	(0.1)	(0.2)
공공서비스	2.2	3.9	5.2	3.9	4.9	5.3	5.4
		(1.3)	(2.1)	(1.3)	(1.0)	(0.1)	(0.1)
개인서비스	△1.0	0.9	2.3	1.9	2.2	2.3	2.4
		(0.9)	(1.3)	(1.3)	(0.2)	(0.1)	(0.0)
총지수	0.8	1.5	1.4	1.6	1.0	1.1	2.2
		(0.3)	(0.1)	(0.3)	(△0.3)	(△0.1)	(0.5)

자료: 통계청

주: ()는 전기(월) 대비

품목별 소비자물가



- 생산자물가와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의 물가상승이 전체 상품의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세는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음.

- 2/4분기로는 총지수가 전년동기대비 1.4% 상승하였고 상품은 0.7%, 서비스는 2.3% 상승하였음.
- 5월 수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하락(전월대비 0.5% 상승)하였으며 이 중 농림수산품은 0.1%하락($\Delta 1.7\%$)하였고 공산품도 1%하락(0.5% 상승)하였음.
- 1/4분기로는 총지수가 0.2%하락(전분기대비 $\Delta 2.9\%$)하였고 농림수산품은 3.4%상승($\Delta 7.5\%$), 공산품은 0.2%하락($\Delta 2.8\%$)하였음.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원화표시 수출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품목별 수출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연간	1/4	3월	4월	5월
농림수산품	$\Delta 5.6$	3.4 ($\Delta 7.5$)	$\Delta 1.2$ ($\Delta 4.4$)	3.0 (2.9)	$\Delta 0.1$ ($\Delta 1.7$)
공 산 품	$\Delta 19.0$	$\Delta 0.2$ ($\Delta 2.8$)	$\Delta 2.1$ ($\Delta 0.5$)	$\Delta 3.5$ ($\Delta 1.5$)	$\Delta 1.0$ (0.5)
원 자 재	$\Delta 18.7$	7.3 ($\Delta 1.5$)	6.1 (0.0)	3.3 ($\Delta 2.1$)	5.2 (0.4)
자 본 재	$\Delta 22.2$	$\Delta 9.2$ ($\Delta 4.6$)	$\Delta 11.4$ ($\Delta 1.1$)	$\Delta 10.9$ ($\Delta 0.1$)	$\Delta 7.8$ (0.4)
소 비 재	$\Delta 17.9$	$\Delta 6.8$ ($\Delta 4.3$)	$\Delta 9.8$ ($\Delta 1.3$)	$\Delta 9.7$ ($\Delta 0.5$)	$\Delta 7.1$ (0.3)
총지수	$\Delta 18.9$	$\Delta 0.2(\Delta 2.9)$	$\Delta 2.2(\Delta 0.6)$	$\Delta 3.4(\Delta 1.3)$	$\Delta 1.0(0.4)$

자료: 한국은행

주: ()는 전기(월)대비

- 수출물가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수입물가는 원화의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및 유가인상에 따라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교역조건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1/4분기 수입물가는 농림수산품이 4.2%하락(전기대비 $\Delta 1.7\%$)하고 공산품이 3.8%($\Delta 1.9\%$)상승하여 전체적으로 12.3%($\Delta 1.0\%$) 상승하였음.

- 5월중으로는 농림수산품이 2.2%하락(전월대비 1.8% 상승)하였고 공산품은 3.0%, 원자재는 12.3%상승하여 총지수가 8.4%(2.5%)상승하였음.

품목별 수입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1999	2000			
	연간	1/4	3월	4월	5월
농림수산품	△17.0	△4.2 (△1.7)	△6.6 (△0.8)	△5.7 (△0.9)	△2.2 (1.8)
공산품	△14.1	3.8 (△1.9)	3.4 (0.2)	1.3 (△1.6)	3.0 (0.6)
원자재	△13.2	1.7 (△0.4)	16.7 (0.3)	9.5 (△3.5)	12.3 (3.2)
자본재	△8.3	△5.3 (△3.8)	△6.6 (△0.8)	△6.3 (△0.6)	△4.9 (△0.2)
소비재	△8.5	0.4 (△2.3)	△0.7 (0.6)	△5.4 (△3.2)	△0.7 (1.6)
총지수	△12.1	12.3(△1.0)	11.2(0.1)	5.8(△3.0)	8.4(2.5)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주: ()는 전기(월) 대비

3. 소비

- 5월중 도소매판매는 자동차업체의 파업이 끝난 데 대한 반등으로 14.3%(전월대비 1.5%) 증가하였으며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19.7% 증가하였음. 이중 내구재는 35.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소비자평가 지수가 전달보다 3.6% 하락하는 등 장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냉각되고 있어 하반기 이후 소비지출은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보임.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2000				
	1/4	2월	3월	4월 ^P	5월 ^P
도소매 판매	14.4(3.8)	13.3(1.0)	12.8(△0.4)	11.6(△1.4)	14.3(1.5)
내수용 소비재출하	17.7	19.4	13.6	16.7	19.7
(내구재)	35.8	43.5	24.2	36.8	35.9
(비내구재)	8.4	7.3	7.2	6.4	10.8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주:()는 전기(월)대비

- 금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234만 9천원이며 소비지출은 12.7% 늘어난 166만 2천원으로 발표되었음.
- 실질소득은 195만 6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1%증가하였고 실질소비지출은 11%증가한 138만 4천원임.
- 소비성향은 79.4%로 명목과 실질 모두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4.6% 상승함.
- 지출비목별로는 전비목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컴퓨터, 레저활동 등 교양오락 비목이 크게 증가하였음(46.5%).
- 가계의 소득증가에 비하여 소비성향의 상승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경기하락 전망에 따라 그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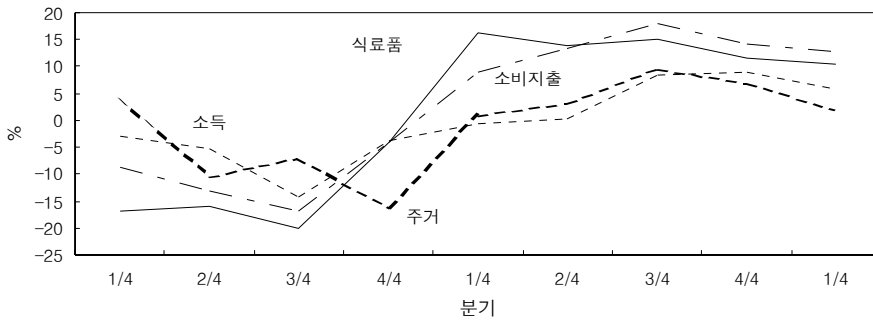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2000
	연간	4/4	연간	1/4
소득	6.7	9.1	4.3	5.7
소비지출	10.7	14.3	13.5	12.7
식료품	14.3	11.7	14.1	10.5
주거	8.0	6.8	5.1	2.1

자료: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4. 고용

- 5월중 고용동향은 실업률이 3.7%(계절조정 3.9%)로 전월대비 0.1%가 하락하였으며 실업자는 8%감소한 828천명임. 실업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경기호조와 함께 농업과 건설업의 인력흡수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임.
- 이러한 실업률은 IMF 구제금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취업자 증가가 임시직·일용직 중심으로 증가하여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3%(7백만명)를 넘어서고 있어 구조적으로는 노사관계의 악화를 비롯한 불안요인을 안고 있음.
- 투신사 및 은행의 2차 구조조정과 기업구조개선 작업(워크아웃) 등 실업률 상승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화의 진전으로 영업부문 인력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고용활동

단위: 천명, %

	1999	2000			전월대비 증감
	연간	3월	4월	5월	
경제활동인구	21,634	21,688	21,966	22,177	1.0
(경제활동참가율)	60.5	60.2	60.9	61.5	0.6
취업자	20,281	20,660	21,065	21,649	1.3
·농림어업	2,349	2,126	2,413	2,542	5.3
·광공업	4,026	4,240	4,246	4,224	△0.5
(제조업)	4,006	4,221	4,229	4,208	△0.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3,906	14,294	14,406	14,583	1.2
(건설업)	1,476	1,481	1,594	1,640	2.9
실업자	1,353	1,028	900	828	△8.0
실업률(계절조정)	6.3	4.1	4.0	3.9	△0.1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IV. 농촌경제 동향⁵⁾

1. 농촌물가

- 4월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 대비로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대부분 상승(0.7%)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수입농산물에 의한 시장교란 등으로 과일, 마늘, 화훼, 서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하락(Δ 4.2%)하였음.
- 곡물은 서류가 크게 하락(Δ 27.3%)하였으나 미곡, 맥류 등이 보합세를 보여 전월대비 0.8%하락. 청과물은 수입과일의 영향으로 과실의 판매가격이 하락(Δ 1.4%)하여 전월대비 7.2% 하락.
- 축산물은 유란이 보합세를 보였으나 가축류가 7.6%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6.8% 하락하였음. 기타 농작물은 특용작물이 소폭 상승(3.2%)하였으나 화훼가 크게 하락(Δ 21.9%)하여 9.2%하락.
- 3월은 서류, 과실류, 화훼류가 각각 25.4%, 19.7%, 21.9%로 크게 하락하였고 유란도 6.3%하락하였음. 그외 곡물, 축산물, 기타 농산물은 4%내외로 상승하였음.
- 토마토, 참외, 수박 등 과채류의 가격하락이 컸던 데 비해 채소류의 하락폭이 1.1%, 6.5%로 나타난 것은 배추, 무의 도매시장 가격이 평년대비 두배이상 상승하여 지표상 과채류의 하락폭을 상쇄시킨 것으로 판단됨.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채성훈 연구원(alpha@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농가판매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1999.4	2000.3	2000.4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총 지 수	1,000.0	107.7	113.2	108.5	0.7	△4.2
곡물	323.3	128.1	135.4	134.3	4.8	△0.8
미 곡	288.7	128.5	135.8	136.0	5.8	0.1
맥 류	13.6	105.5	110.8	110.8	5.0	0.0
잡 곡	3.7	115.2	117.0	117.1	1.6	0.0
두 류	7.8	125.1	143.9	145.0	15.9	0.8
서 류	9.5	154.9	159.1	115.6	△25.4	△27.3
청 과 물	296.6	104.6	102.3	97.1	△0.7	△6.8
채 소	208.5	100.4	106.2	99.3	△1.1	△6.5
과 실	88.1	114.5	93.2	91.9	△19.7	△1.4
축 산 물	322.3	91.2	101.2	94.3	3.4	△6.8
가 축	294.7	88.4	100.1	92.5	4.6	△7.6
유 란	27.6	120.7	113.1	113.1	△6.3	0.0
기타농산물	57.8	101.7	112.3	102.0	0.3	△9.2
특용작물	48.8	99.1	108.2	103.0	3.9	△4.8
화 훼	6.7	119.4	144.2	93.2	△21.9	△21.9
부 산 물	2.3	106.3	106.3	106.3	0.0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 4월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5%하락하였으나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농번기에 따른 노임상승 및 보리수확에 의해 전년동월대비 5.3%상승하였음.
- 영농광열, 가축류가 전월대비 3.2%, 5.6%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각각 15.6%, 17.9% 상승하였고 농업임료금은 경기호조 및 농업과 건설업의 인력흡수에 따라 20.6% 상승하였음.

농가구입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1999.4	2000.3	2000.4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총 지 수	1,000.0	118.8	125.7	125.1	5.3	△0.5
가 계 용 품	524.9	120.2	124.3	124.4	3.5	0.1
식 료 품	97.6	120.8	123.9	123.0	1.8	△0.7
피 복 비	39.1	112.2	115.9	115.9	3.3	0.0
주 거 비	48.7	98.7	93.3	92.9	△5.9	△0.4
가 계 광 열	35.6	154.0	169.6	165.7	5.7	△2.3
보 건 의 료	69.8	120.4	127.6	131.3	9.1	2.9
교 육 교 양 오 락	121.5	123.6	130.5	130.6	5.7	0.1
교 통 통 신	76.5	117.3	118.0	118.0	0.6	0.0
기 타 잡 비	36.1	117.9	118.3	118.5	0.5	0.2
농 업 용 품	403.7	117.8	125.5	123.3	4.7	△1.8
종 자 류	17.4	100.7	100.7	100.7	0.0	0.0
비 료 류	24.3	149.6	149.6	149.6	0.0	0.0
농 약 류	24.6	130.3	129.4	129.4	△0.7	0.0
농 기 구	83.6	153.7	153.8	154.1	0.3	0.2
영 농 광 열	13.9	143.3	171.0	165.6	15.6	△3.2
가 축 류	129.9	92.4	115.4	108.9	17.9	△5.6
사 료 류	77.7	110.2	104.9	104.9	△4.8	0.0
영 농 자 재	32.3	109.5	115.4	115.4	5.4	0.0
농 촌 임 료 금	71.4	114.3	136.8	137.8	20.6	0.7
농 업 노 임	31.7	120.3	138.4	139.9	16.3	1.1
기 타 임 금	2.8	98.8	106.9	107.5	8.8	0.6
도 정 료	8.2	110.1	173.4	173.4	57.5	0.0
농 기계 임 차	28.7	110.4	127.5	128.3	16.2	0.6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 가계용품 구입비는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음.

2. 농가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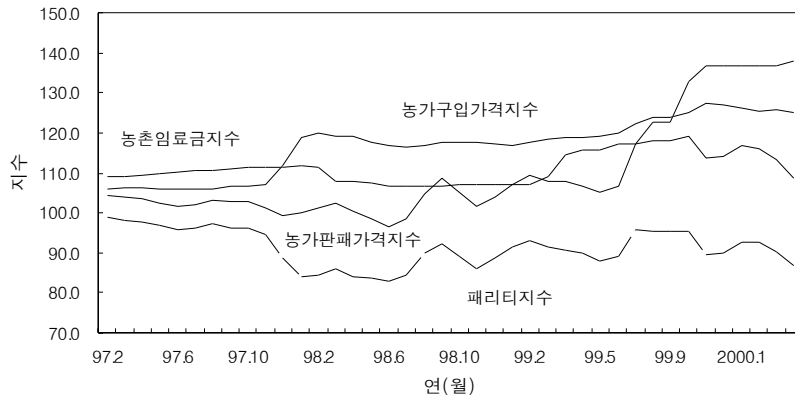
- 4월중 농가교역조건은 전년동월대비 4.4% 악화되었고 전월대비로도 패리티 지수가 3.8%하락하였음.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금년 초부터 이어진 과일·과채류의 전반적인 가격폭락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입가격 상승때문임.

농가교역조건의 변화

	1999.4	2000.2	2000.3	2000.4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07.7	116.2	113.2	108.5	0.7	△4.2
농가구입가격지수(B)	118.8	125.4	125.7	125.1	5.3	△0.5
패리티지수(A/B*100)	90.7	92.7	90.1	86.7	△4.4	△3.8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촌물가지수의 변동추이



- 6월들어 과채류가격이 회복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데다 과일·과채류 시장이 수입농산물과 국내 과잉공급에 의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도 큰 폭의 교역조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주요 품목의 농업소득

- 금년 2/4분기 봄배추, 시설오이, 대파 등의 품목은 단수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조수입과 농업소득이 개선되었으나 마늘, 시설수박, 시설참외 등은 가격하락으로 조수입과 농업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마늘은 가격이 전년 동기간 대비 5.5% 하락하였고 단수는 6.6% 하락하여 단위면적(10a)당 농업소득이 21.4% 감소하였으나 면적이 6% 증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조수입은 6.5% 감소, 농업소득은 16.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봄배추는 단수가 1.5% 감소한 반면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약 95.3% 상승한 결과 단위면적당 농업소득은 216.5%, 전체 농업소득은 229.5%로 크게 증가하였음.
- 봄무는 단수가 1% 감소하고 단위면적당 경영비가 6.5% 증가하여 10a당 소득이 10.2% 증가하였음. 전국적으로는 재배면적과 조수입이 각각 5%, 14.9% 증가하여 농업소득은 15.7% 증가함.
- 시설오이는 가격이 26.1%로 크게 올랐으나 10a당 경영비 증가는 9.6%에 그쳐 농업소득이 36.2% 증가하였음.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2.6% 증가한 반면 단수는 2.3% 감소하였고 경영비는 12.4% 증가한 결과 농업소득이 39.7% 증가하였음.
- 시설수박은 4월과 5월 반입량 증가로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나 6월이후 반입량이 전년수준에 미달하고 있어 가격이 전년수준을 회복하였음. 단수는 2.3%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10a당 농업소득은 8.9% 감소함.
- 시설참외는 5월 평균가격이 전년의 약 절반에 불과하였으나 6월 반입

량이 전년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가격은 오히려 전년보다 높은 수준임. 10a당으로는 조수입이 1.2% 증가하였으나 경영비가 5.9% 증가하여 농업소득은 1.4% 감소함.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2.4% 하락한 반면 단수가 3.7% 증가하여 조수입은 2.8% 증가하였고 농업소득은 0.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추산됨.

주요 품목의 농업조수입 및 농업소득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가격	면적	단수	조수입	경영비	농업소득
마늘	△5.5	6.0	△6.6	△6.5	8.4	△16.7
봄배추	95.3	4.1	△1.5	100.3	2.6	229.5
봄무	10.4	5.0	△1.0	14.9	11.8	15.7
시설오이	26.1	2.6	△2.3	26.4	12.4	39.7
시설수박	△6.8	△6.8	2.3	△11.1	△0.6	△15.1
시설참외	△2.4	1.6	3.7	2.8	7.6	0.2

주요 품목의 10a당 농업소득

단위: 전년동기대비, %

	가격변화	단수변화	조수입변화	경영비변화	농업소득변화
마늘	△5.5	△6.6	△11.7	2.3	△21.4
봄배추	95.3	△1.5	92.4	△1.4	216.5
봄무	10.4	△1.0	9.3	6.5	10.2
시설오이	26.1	△2.3	2.6	9.6	36.2
시설수박	△6.8	2.3	△4.6	6.6	△8.9
시설참외	△2.4	3.7	1.2	5.9	△1.4

4. 농업인력

-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5월중 농림업취업자는 2,465천명으로 전월대비 5.9%증가하였음. 경기활황에 따른 도시부문 구직기회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로는 3.3%가 감소하였음.

농림업 취업자수동향

단위: 천명

	1999	1999.5	2000		증감률(%)	
			4월	5월	전년동월비	전월대비
경제활동인구	21,634	21,795	21,966	22,177	1.8	1.0
전산업취업자	20,281	20,393	21,065	21,349	4.7	1.3
농림업취업자	2,264	2,550	2,327	2,465	△3.3	5.9

자료: 통계청

- 귀농가구수는 전년동월대비 77.9%가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27.5%가 감소한 66호임. 1~6월 누계로는 71.3%가 감소한 871가구임.

귀농가구 동향

단위: 호

	1999		2000				증감율	
	1~6월	1~6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대비
귀농가구수	3038	871	179	117	91	66	△77.9	△27.5

자료: 농림부 농촌인력과

5. 농산물 수출입

5.1. 수출동향

- 5월까지 농산물 수출은 누계기준 627.5백만달러로 전년동기간 대비 3%증가하였으며 농산물 수출은 21.6% 증가한 449.5백만달러임. 반면 축산물 수출은 구제역 여파로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출이 중단되어 37.2% 감소한 104.6백만달러에 머물렀음. 임산물은 0.5%증가한 73.4백만달러로 큰 변화가 없음.
- 국가별로는 일본에 대한 수출이 0.4%감소한 315.7백만달러이며 대미

수출은 12.9%증가한 50백만달러임. 중국에 대한 수출은 35.3%증가한 45.2백만달러임.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1999	1999. 1~5월	2000. 1~5월	증감율(%)
농림축수산물	3,229.7	1,218.2	1,266.4	4.0
농림축산물	1,713.5	609.2	627.5	3.0
농축산물	1,409.8	536.2	554.1	3.3
- 농산물	1,002.0	369.6	449.5	21.6
- 축산물	407.8	166.6	104.6	△37.2
임 산 물	303.8	73.0	73.4	0.5
수 산 물	1516.2	609.0	638.8	5.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돼지고기의 수출은 금년 상반기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44.3%가 감소한 77,617천달러, 20.7천톤에 그쳤음. 반면 닭고기는 89.4%증가한 1,223천달러임.
- 김치의 수출은 금년 상반기중에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20.2%증가한 32,698천달러임.
- 홍삼의 수출은 전년동기간 대비 30.8%감소한 8,045천달러에 그쳤으며 백삼 역시 16.3%감소한 1,483천달러임. 인삼류의 수출감소원인은 중국과 홍콩내 고려인삼 부정유통에 관한 방송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나 점차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음.
- 과실류 중 사과는 830천달러로서 98.5%증가하였으며 배는 48.3%증가하여 1,274천달러를 수출하였음. 딸기도 두자리수 이상(33.1%) 증가하여 6,443천달러를 수출하였고 특히 토마토는 전년동기간 대비 두배이상 증가(144.2%)한 13,490천달러를 수출하였음.

주요 품목의 수출금액

품목	수출액(천달러)					증감율(%) '99/'98
	1997	1998	1999	1999. 1~5	2000.1~5	
돼지고기	243,899	311,777	340,451	139,347	77,617	△44.3
닭고기	1,227	1,605	2,116	646	1,223	89.4
김치	39,655	43,931	79,245	27,204	32,698	20.2
홍삼	35,443	31,801	41,419	11,619	8,045	△30.8
백삼	7,863	7,804	6,091	1,773	1,483	△16.3
사과	6,345	3,538	1,674	418	830	98.5
배	9,180	7,731	11,763	859	1,274	48.3
감귤	2,955	5,045	6,593	639	730	14.2
딸기	2,743	4,096	7,857	4,842	6,443	33.1
토마토	3,742	7,592	17,504	5,490	13,490	144.2
오이	3,184	5,489	9,293	3,839	3,777	△1.6
고추	5,067	6,890	15,153	6,691	15,262	128.1
백합	2,054	3,358	3,058	796	1,294	62.5
장미	48	3,420	6,471	3,200	5,501	71.9
버섯류	1,039	1,771	4,423	2,889	2,197	△23.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이외에도 수출금액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고추(128.1%), 장미(71.9%) 등이며 버섯류는 23.9% 감소하였음.

5.2 수입동향

- 5월누계로 농림축산물 수입은 18.9%증가한 3,493.9백만달러이며 이중 축산물이 52.4%로 수입을 주도하였으며 지난분기와 비교(2월기준 22.6%)하여 증가율이 빨라지고 있음.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국내 도축두수 감소와 소득증가가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임산물도 26.1% 증가한 729.5백만 달러를 수입.

- 국가별로는 대미수입이 옥수수, 대두, 쇠고기, 밀을 중심으로 29.5%증가하여 1,022.2백만달러를 수입하였고 중국으로부터는 한약재, 옥수수, 박류 등을 중심으로 548.2백만달러를 수입.

농림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1999	1999. 1~5월	2000. 1~5월	증감율(%)
농림축수산물	8,620.4	3,413.9	4,074.6	19.4
농림축산물	7,452.2	2,937.7	3,493.9	18.9
농축산물	5,926.5	2,359.2	2,764.4	17.2
- 농산물	4,681.2	1,916.2	2,089.2	9.0
- 축산물	1,245.2	443.0	675.2	52.4
임 산 물	1,525.7	578.6	729.5	26.1
수 산 물	1,168.2	476.2	580.7	21.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소득수준 향상 및 소비자기호 변화로 오렌지, 레몬 등의 열대과일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오렌지는 금액이 82.7%증가한 72,107천달러이며 물량으로는 94,088톤으로서 211.7% 증가하였음. 레몬은 금액이 42.3%증가한 2,149천달러이며 물량은 30.2%, 1,682톤임.
- 특히 오렌지의 경우 금액은 약 두배, 물량은 약 세배가량 증가하여 최근 국내 과일·과채류가격의 폭락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수입액 증가보다 수입물량 증가가 현저히 많아 오렌지의 수입단가가 매우 낮아졌음.

- 낮은 가격과 소비자기호변화가 맞물려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 토마토, 참외, 수박 등 국내 과일·과채류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들의 기호가 변화한 것은 델몬트를 위시한 오렌지쥬스에 수년간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당도가 낮은 국내산 과일·과채류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하게 될 것임을 시사함.
- 수입 오렌지의 대부분은 미국산으로서 52,540천달러(152.3%), 78,104톤(338.3%)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음.

열대과일 수입동향

품목	수입액(천달러)					증감율(%)
	1997	1998	1999	1999.1~5월	2000.1~5월	
오렌지	92,685	68,605	82,785	39,477	72,107	82.7
키위	2,943	2	478	368	602	63.5
포도	23,152	13,172	16,059	7,002	5,797	△17.2
파인애플	22,096	11,116	19,574	9,122	8,937	△2.0
바나나	58,368	37,801	71,856	41,344	41,532	0.5
레몬	5,265	3,367	4,449	1,510	2,149	42.3

- 쇠고기 수입은 지난분기에 이어 83.7%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금액으로는 305,795천달러이며 물량은 97,961톤(38.3%). 돼지고기는 44.8%증가한 121,661천달러, 67,559톤(41.1%)이며 닭고기는 36.9%증가하여 22,821천달러 25,780톤을 수입.
- 밀은 214,479천달러, 1,554,561톤으로 4%감소하였으며 옥수수수는 381,407천달러 589,984톤으로 5.8%증가하였음. 대두는 137,023천달러, 635,012톤으로 29.8%증가.

주요 품목의 수입금액

품목	수입액(천달러)					
	1997	1998	1999	1999.1~5	2000.1~5	증감율(%)
쇠고기	479,844	268,402	505,247	166,464	305,795	83.7
돼지고기	236,115	142,623	226,425	84,028	121,661	44.8
닭고기	31,227	19,735	45,940	16,664	22,821	36.9
옥수수	1,253,772	913,829	887,467	360,620	381,407	5.8
밀	594,236	663,534	533,892	223,312	214,479	△4.0
대두	514,629	379,351	312,015	105,554	137,023	29.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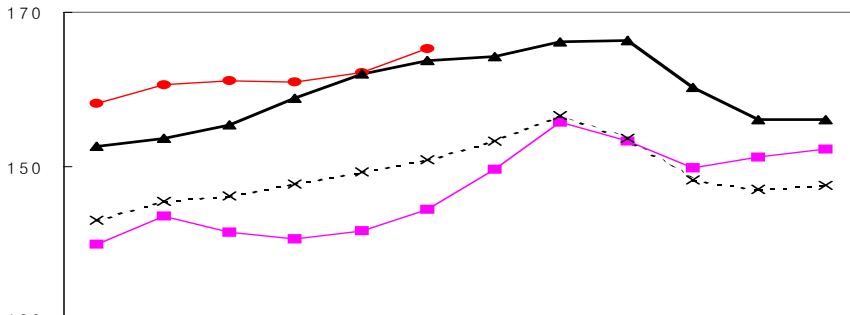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¹⁾

1.1. 쌀

- 2000년 쌀 생산대책에 따르면 쌀 재배면적이 104만 8천ha, 단수가 485kg/10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 쌀 목표 생산량을 전년대비 3.4% 감소한 508만 2천톤으로 설정하고 있음.
- 쌀 도매가격(호남미, 상품 기준)은 지난해 수확기 가격(11월)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00년 6월에는 16만 5천원/80kg으로 상승하였음. 6월 현재 쌀 도매가격은 평년동기대비 10% 높은 수준이며 전년동기대비 1% 상승한 수준임.

쌀 도매가격 동향 (호남미, 상품기준)

천 원 / 80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 2000	158	161	161	161	162	165						
▲ 1999	153	154	155	159	162	164	164	166	166	160	156	156
■ 1998	140	144	141	140	142	144	150	156	153	150	151	152
×- - -	143	145	146	148	149	151	153	157	154	148	147	148

주) 평년은 1997~99년의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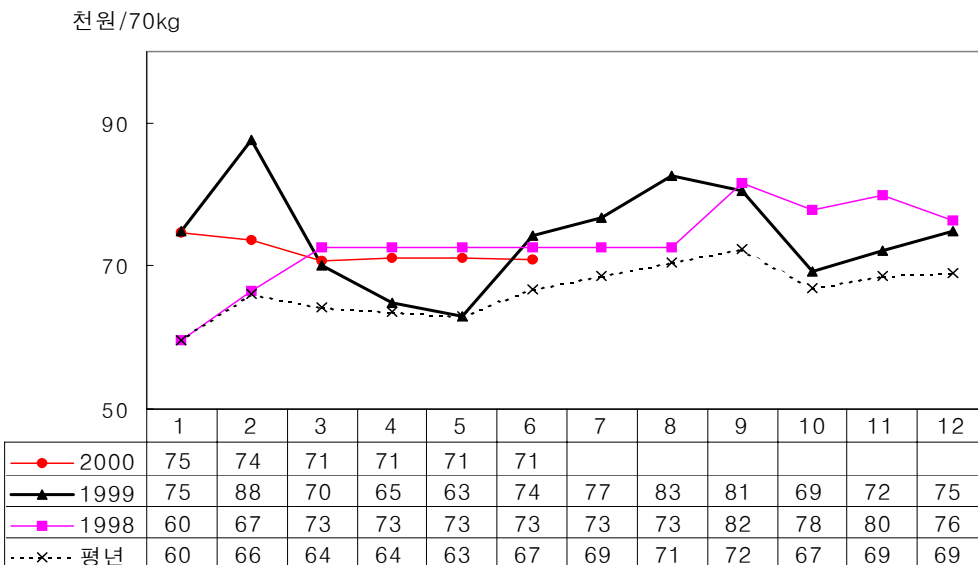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태훈 책임연구원(taehun@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1.2. 보 리

- 2000년 보리 재배면적은 약 6만 8천ha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고, 월동기 이후 생육재생기에 가뭄·저온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올해 보리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보리수매가격은 전년보다 4%인상되었으며, 40kg 1등급기준으로 겉보리는 3만 280원, 쌀보리는 3만 4,320원, 맥주보리는 3만 8,630원으로 결정됨.
- 1999년 12월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보리가격은 2000년 3월에 7만 1천원/70kg(쌀보리, 상품 기준)으로 하락한 후 6월까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2000년 6월 보리가격은 전년동기대비 4%하락하였으나 평년가격보다는 6% 높은 수준임.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7~99년의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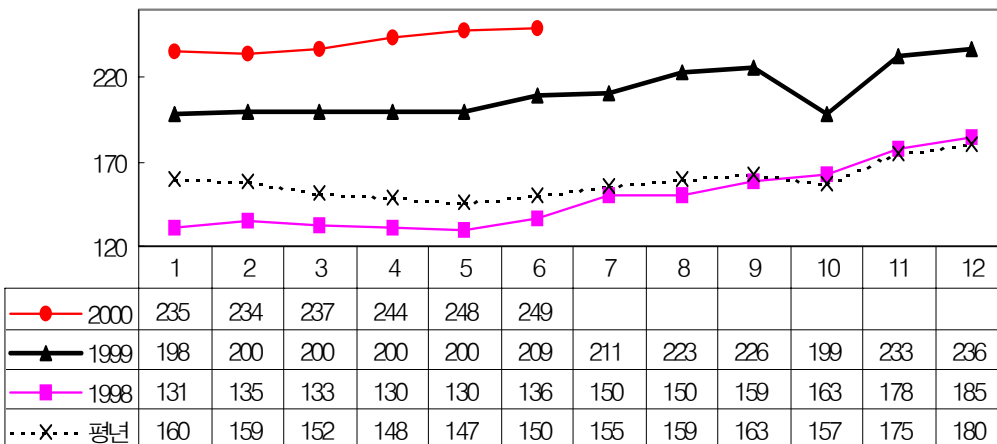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3. 대 두

- 정부의 국산콩 자급율 제고 대책에 따르면 2000년 대두 목표 생산량을 약 17만톤으로 설정하여 지난해 면적감소와 작황부진으로 25%로 감소한 자급률을 36%수준으로 증대할 계획임.
- 국산콩 자급율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립종 1등급 수매가격을 8만 7,520원/40kg으로 전년대비 20%인상 하였고 소립종 1등급은 7만 240원/40kg으로 전년대비 5.5%인상함.
- 1999년 6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한 대두 도매가격은 2000년 6월 현재 70kg당 24만 9천원(상품 기준)으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0년 6월 도매가격은 평년대비 66%상승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19% 높은 수준임.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기준)

천원/7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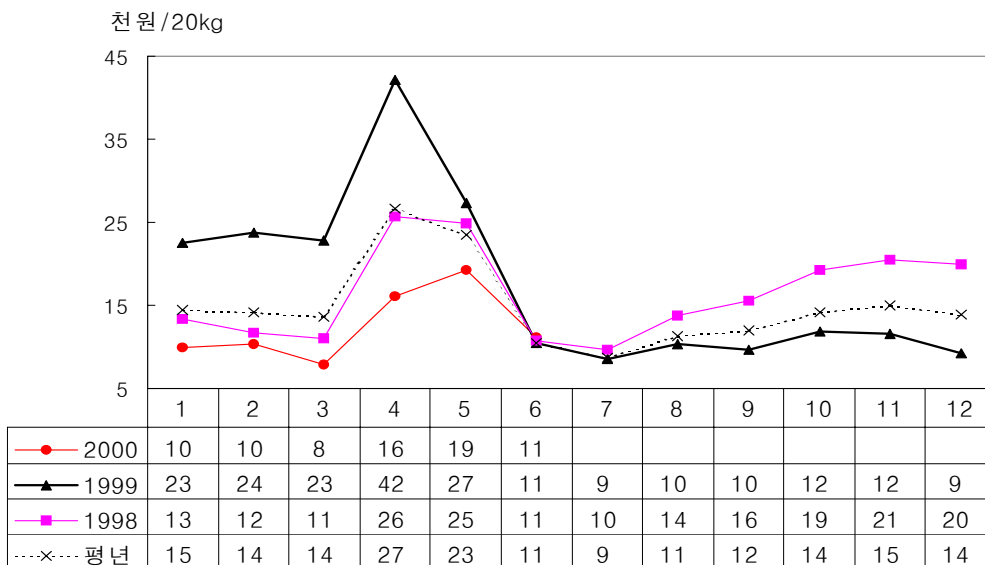
주) 평년은 1997~99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4. 감 자

- 2000년 5월 봄감자 재배면적 조사결과 전년대비 11% 증가한 1만 8,609ha로 집계되어 2년 연속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음.
- 2000년 상반기 감자 도매가격은 평년가격 대비 28%하락하고 전년동기대비 50%하락하였으나 6월에는 1만 1,000원/20kg(상품)으로 평년과 같은 수준임.

감자 도매가격 동향 (슈퍼리어,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7~99년의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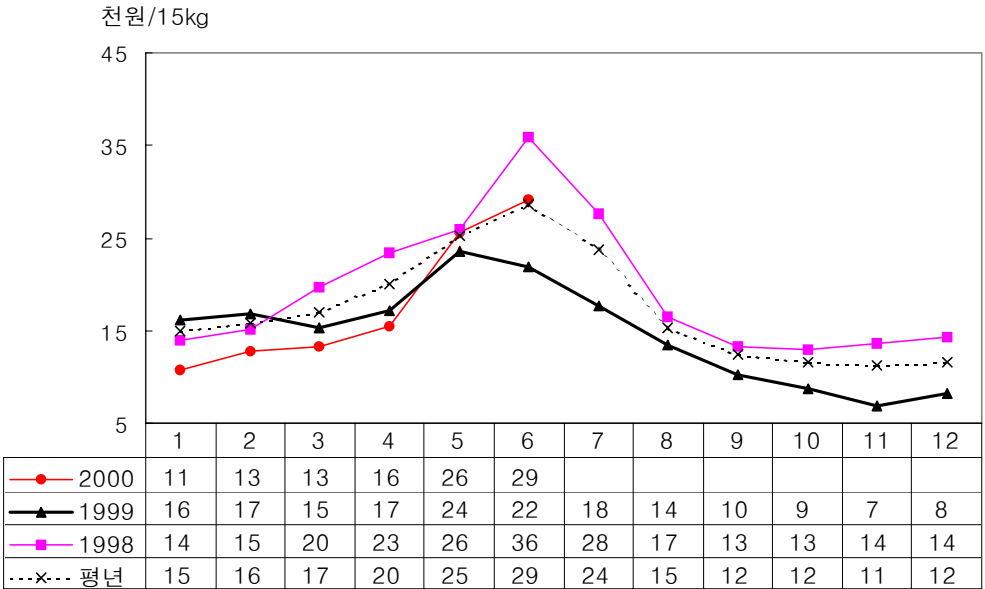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5. 고구마

- 1999년 고구마 재배면적은 2만ha으로 전년대비 24.6% 증가하고 10a 당 수량도 전년대비 1.3% 늘어나 전체 생산량은 42만 8천톤으로 전년대비 26.3% 증가함.
- 2000년 4월까지 평년가격보다 낮았던 고구마 도매가격은 5월부터 크

계 상승하여 6월 현재 15kg당 2만 9천원으로 평년가격수준을 회복함. 1999년의 경우 5월을 기점으로 고구마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나 금년은 6월 현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33% 상승한 수준임.

고구마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7~99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6. 사료곡물

- 2000년 5월 누계기준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은 272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사료용 밀의 경우 동기간에 47%감소하여 전체 사료곡물 수입량은 4% 감소함.
- 사료용 옥수수 수입단가는 감소추세를 유지하여 금년 1~5월 수입가격은 전년동기대비 6% 하락한 반면 사료용 밀의 수입단가는 동기간에 15% 상승함. 따라서 수입단가가 상승한 밀의 수입량은 감소하고 수입단가가 하락한 옥수수의 수입이 늘어남.

사료용 곡물 수입 실적

단위			1996	1997	1998	1999	1999.1~5	2000.1~5
옥수수	수입량	천톤	6,802	6,524	5,335	6,122	2,417	2,720
	단가	US\$/톤	179	148	125	108	110	104
	수입액	백만US\$	1,217	965	667	661	266	282
밀	수입량	천톤	958	1,096	2,349	1,902	909	481
	단가	US\$/톤	201	141	115	98	94	108
	수입액	백만US\$	192	154	271	186	85	52
계	수입량	천톤	7,759	7,620	7,684	8,024	3,326	3,201
	단가	US\$/톤	182	147	122	106	105	104
	수입액	백만US\$	1,410	1,119	938	847	351	33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 채소류²⁾

2.1 배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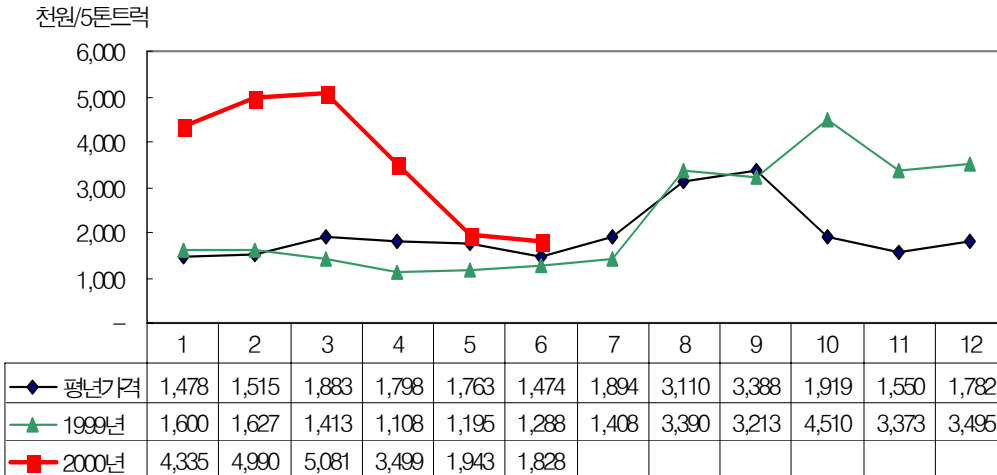
- 배추의 2/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2,423천원(상품 기준)으로 1/4분기보다는 50% 낮은 수준이지만, 평년 2/4분기보다도 44% 높은 수준임.
- 6월 중순에 가격이 급등한 것은 장마철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었기 때문임.
- 7월에 출하될 면적이 작년보다 5% 가량 적고, 단수도 작년보다 낮아 7월에는 상품 5톤트럭당 가격이 작년 7월 가격(상품 140만원)보다 높은 180만원대 이상이

2) 이 자료는 김연중 책임연구원(yjkim@krei.re.kr), 박재민 책임연구원(jmpark@krei.re.kr), 서대석 연구원(dssuh@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될 것으로 전망되나, 호우 등으로 작황이 나빠지면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 8월 이후에는 출하될 면적이 작년보다 많아, 8월 이후 가격은 작년(300만원대)보다 낮지만, 예년과 같이 7월보다는 상승할 전망이다.
-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이 농림부 5월 조사에서는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측센터 6월 조사에서는 작년보다 5% 증가한 1만 3,500ha가 될 것으로 나타남.
- 가을배추 월별 정식의향면적을 보면, 8월에는 작년 8월 정식면적보다 8% 증가하고, 9월 이후에는 작년 9월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정식시기가 작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됨.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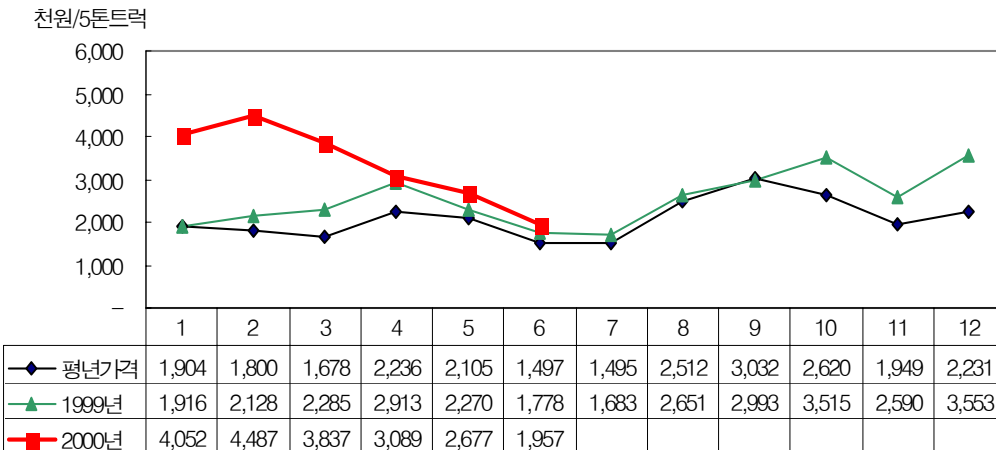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1995.1~1999년 12월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2 무

- 무의 2/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2,574천원(상품 기준)으로 1/4분기보다는 38% 낮은 수준이지만, 평년 2/4분기보다도 32% 높은 수준임.

- 그 이유는 봄무 출하면적이 1/4분기 보다 증가했으나 평년보다는 출하면적이 적고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임.
- 월별 출하예정면적을 보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6월에는 3%, 7월에는 8%, 8월에는 1%, 9월에는 각각 2% 적을 것으로 조사됨.
- 7월에 출하될 고랭지무 면적은 작년보다 적지만, 호남 지방의 태청 무 면적이 많아 7월에 출하될 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단수가 작년보다 다소 낮아 7월 상품 가격은 작년 7월 가격(170만원)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됨.
- 8월 이후에 출하될 면적은 작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조사되어 8월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작년 가격(280만원대)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음.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5.1~1999년 12월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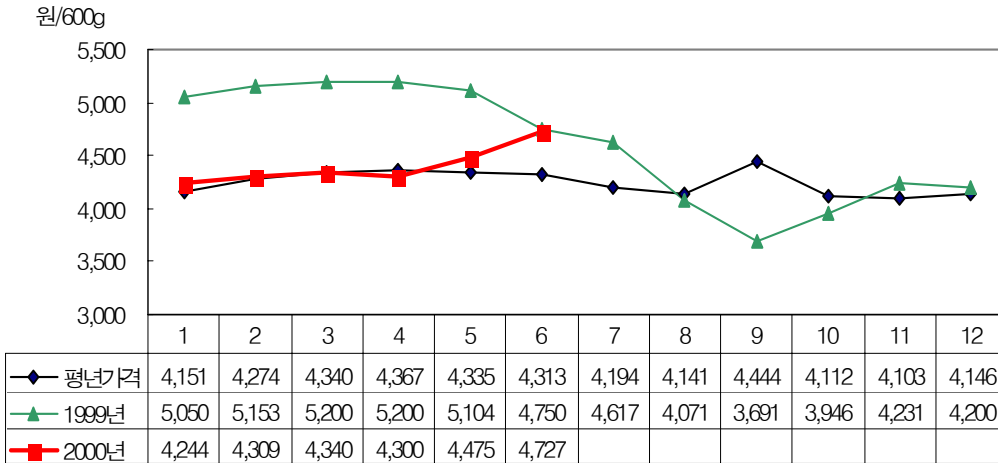
- 가을무 재배의향면적이 농림부 5월 조사에서는 작년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관측센터 6월 조사에서는 2.4% 증가하여 1만 2,200ha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음. 월별 파종의향면적을 보면, 7월에는 작년 7월 파종면적과 비슷하고, 8월에는 작년 8월보다 2%, 9월에는 작년 9월보다 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파종시

기가 작년보다 다소 늦추어질 전망이다.

2.3 고 추

- 고추의 2/4분기 도매가격은 600g당 4,501원(화건 상품 기준)으로 1/4분기 보다는 5% 높고, 평년 2/4분기보다 4% 높음. 작년보다 10% 낮은 수준임.
 - 고추의 2/4분기 가격이 상승한 것은 김치수출이 늘고 장마철을 앞두고 김치공장 등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임.
- 금년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5,908톤중 1천톤만이 6월초에 통관되었고, 6월 도입 예정이었던 1천톤은 7월 이후로 수입이 연기됨.
- 농가와 저장업체가 가지고 있는 6월말 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1천톤 가량 많은 7천톤으로 추정되나, 김치공장 등의 가공용 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적은 편인 것으로 조사됨.
- 농림부 조사결과, 금년 정식면적은 작년 동기 조사치보다 1% 가량 늘어나, 금년 재배면적은 7만 6천ha 내외로 추정됨.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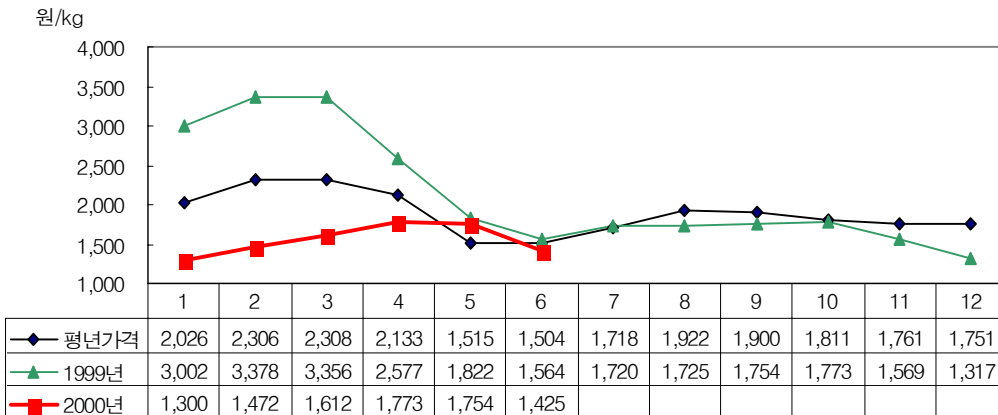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1994.8~1999.7월 연산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한국 등으로 수출이 줄어 작년산 저장물량의 톤당 현지가격이 2월에 1,570달러에서 4월에는 1,330달러로 하락하였음. 6월 가격도 4월과 비슷한 수준이나, 감모율이 4월에 20%에서 6월에는 30% 이상으로 높아져 실질가격은 약 8% 상승한 것임.
- 중국의 금년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재배면적 증가 이외에도 품종개량 등이 이루어지면서 생산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4 마늘

- 마늘 2/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1,651원(난지형 상품 기준)으로 1/4분기보다는 13% 높은 수준이이지만, 평년 2/4분기보다는 4% 낮은 수준임. 이는 저장업체들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가 다시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매입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임.
- 금년산 마늘의 예상단수는 지난 5월 조사에서는 8~1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5월 하순에 내린 비로 작황이 약간 좋아져 6월 조사에서는 작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금년 재배면적과 예상단수를 적용할 경우 금년산 마늘의 생산량은 47만 6천~48만 5천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작년과 비슷하고, 평년보다는 10% 많은 수준임.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5.5~2000년 4월의 연산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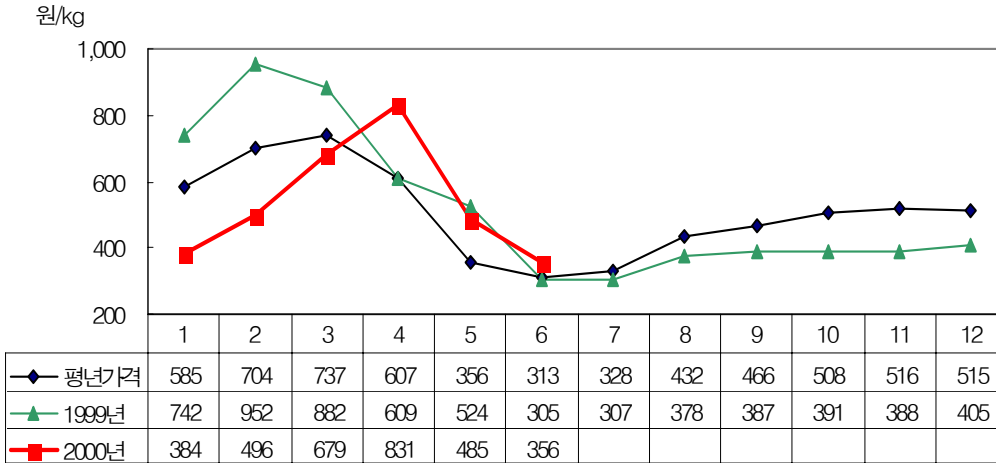
- 금년 생산량 47만 6천~48만 5천톤, 이월량 3천톤, MMA 1만 2천톤, 민간수입예
상량 5천~1만톤을 더하면 총공급량은 약 49만 6천~51만톤으로 작년 총공급량
50만 9천톤보다 약간 적은 수준임.
- 산지 거래가 한산한 것은 저장업체들이 중국산 마늘의 긴급관세와 수입량 변화
를 우려하여 매입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임. 7월에는 저장업체들의 매입이 증가하
여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산 마늘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연평균 도매가격 1,620원(난지형 상품
kg)보다 높은 1,700원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2.5 양 파

- 양파 2/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557원(상품 기준)으로 1/4분기보다는 7%
높은 수준이고, 평년 2/4분기보다는 31% 높은 수준임. 양파의 작황부진으
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저장수요가 늘어나고, 마늘 저장업체가 양
파 저장수요로 바뀌면서 양파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음.
- 농림부의 5월 조사결과, 금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작년 동기 조사치보다 5%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재배면적은 1만 6,8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 금년산 양파의 예상단수는 5월 하순에 내린 비로 작황이 약간 좋아져 6월 조사
에서는 작년 보다 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조생종 양파의 단수는 작년에 비해
8%, 중만생종은 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금년 재배면적과 예상단수를 적용할 경우, 금년 양파 생산량은 88만
7천~89만 7천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작년보다 4~5% 적고, 평년보
다 4~6% 많은 수준임.
- 금년산 양파 상품의 kg당 연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연평균 도매가격 437원보다
높은 5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 수입되면,
20원 정도 낮아질 것임.

- 수입양파의 도매원가는 이보다 높은 7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간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5.4~2000년 3월의 연산기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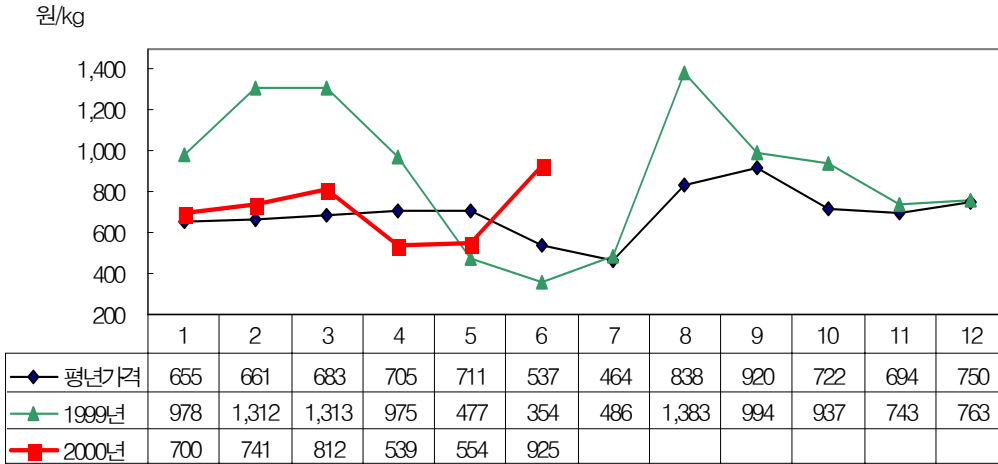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6 대 파

- 대파의 2/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673원(상품 기준)으로 1/4분기보다는 10% 낮은 수준이지만, 평년 2/4분기보다도 3% 높은 수준임. 이는 2/4분기의 주 출하지와 경기지역의 시설재배 면적이 감소한 데다 가뭄으로 작황이 나빠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6월에 출하된 면적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2% 적고, 지역별로는 경기가 5% 줄었고, 전북 2%, 경북 1% 준 것으로 나타남.
- 7월에 출하될 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8월 이후에 출하될 면적은 경기와 충청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작년 같은 시기보다 4%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 7월의 주출하지인 경기지역의 7월 출하예정면적이 작년보다 3% 정도 적고, 작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7월에도 가격은 강세를 보일 전망.
- 8월 이후에 출하될 면적이 많아 8월 가격은 약세를 보일 전망이므로, 출하를 가급적 앞당기는 것이 유리할 것임. 6~9월의 정식의향면적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 많을 것으로 조사됨.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5.1~1999.12월의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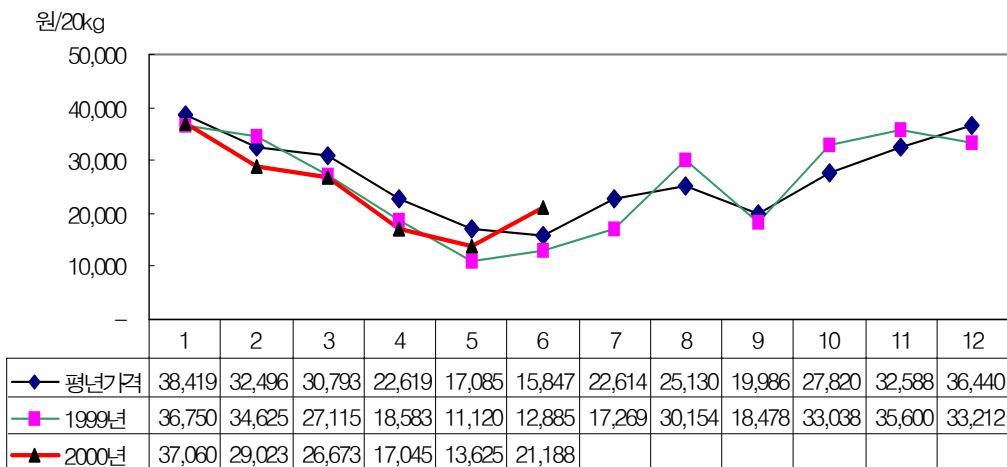
2.7 오 이

- 오이의 2/4분기 도매가격은 20kg당 17,286원(상품 기준)으로 1/4분기보다는 44% 낮은 수준이지만, 평년 2/4분기보다도 7% 높은 수준임. 이는 5월까지의 가격약세, 작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충청,호남지역의 수확이 예년보다 빨리 종료된데 기인함.
- 6월에 출하된 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2% 적었고, 7월부터 9월까지 출하될 면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 정도 적을 것으로 조사됨.
- 노균병 등 병해와 고온으로 6월 출하분의 단수는 작년 6월보다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별로는 경기와 호남의 작황이 부진함.

- 7월 출하될 면적도 작년보다 2% 적고 단수도 작년보다 2% 정도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7월 출하량은 작년 7월보다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가격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7~9월의 정식예정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별로는 경기·충청·영남이 다소 감소하고, 강원·호남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남.

오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취청)



주: 평년가격은 1995.1~1999.12월의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 과일류3)

3.1. 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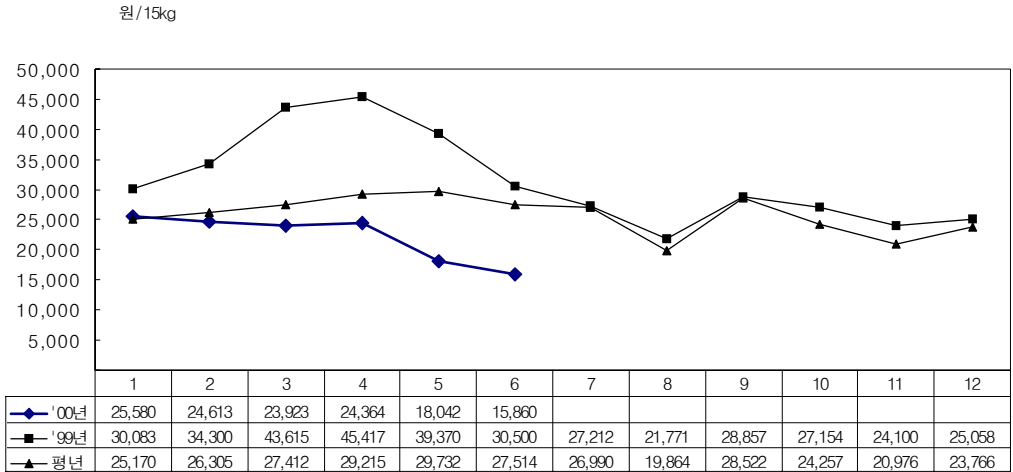
- 2/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15kg당 1만 9,422원으로 1/4분기보다 9.1%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부연구위원(yslee@krei.re.kr), 박준기 책임연구원(jkpark@krei.re.kr), 한석호 연구원(shohan@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낮고, 평년 2/4분기보다는 32.6% 낮은 수준이었으며, 6월 평균가격은 후지 상품이 15kg당 1만 5,860원으로 작년보다는 48%, 평년보다는 42% 낮은 수준이었음.

- 이처럼 가격이 낮았던 것은 작년산 저장사과의 저장량이 많고, 특히 오렌지 수입량이 크게 늘었으며, 감귤, 배 등 대체 과일의 가격이 낮았기 때문임.
- 금년 사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7% 감소한 2만 8,900ha로 추정되며, 이중 성목 면적은 9% 감소한 2만 1,100ha로 추정됨. 또한 착과상황 조사결과 6월 중순 현재 10a당 착과량은 12,719개로 작년보다는 2%, 평년보다는 7%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품종별로는 후지는 작년보다 2% 정도 많고, 쓰가루는 작년보다 3%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금년 사과 생산량은 성목면적은 9% 정도 감소하였으나 지속된 고온으로 단수가 작년보다는 5~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상이변이

사과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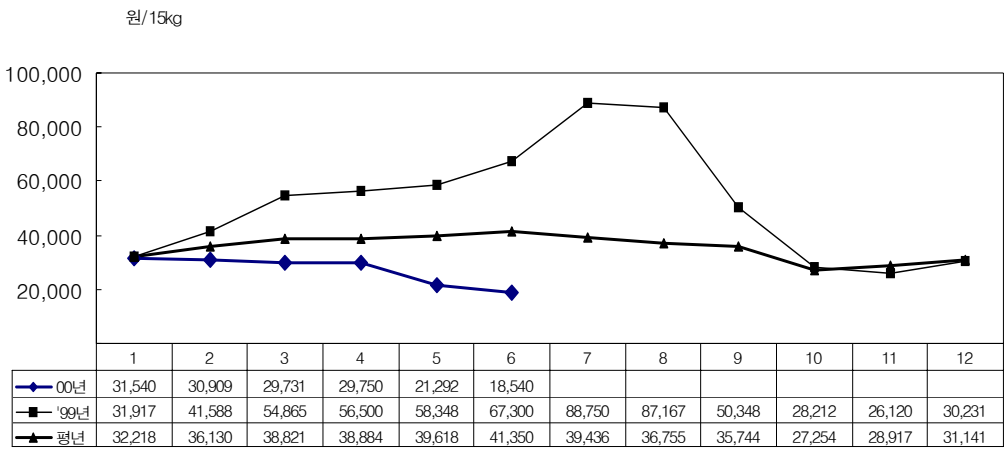
주 : 평년가격은 1995~99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없는 한 생산량은 작년 보다 3~4% 정도 줄어든 47만톤~47만 5천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3.2. 배

- 2/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신고 상품 15kg당 2만 3,194원으로 1/4분기보다는 24.5% 낮고, 평년 2/4분기보다는 41.9% 낮은 수준이었으며, 6월 평균 도매가격은 신고 상품이 15kg당 1만 8,540원으로 평년보다 55.2% 낮고, 작년보다는 72.5% 낮은 수준이었음.
- 이처럼 가격이 낮았던 것은 배 저장량이 작년 동기보다 많고, 품질도 작년보다 떨어지며, 대체과일인 오렌지 수입량이 많아 사과, 감귤 등 대체과일의 가격이 낮았기 때문임. 7월 이후에도 작년산 배의 저장량이 많고, 품질도 떨어지며, 수박 등 신선 과채류의 출하량이 증가하여 7월 이후에도 저장배 가격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금년 배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정도 늘어난 2만 6,300ha, 성목면적은

배 도매가격 동향 (신고, 상품 기준)



주 : 평년가격은 1994.9~1999.8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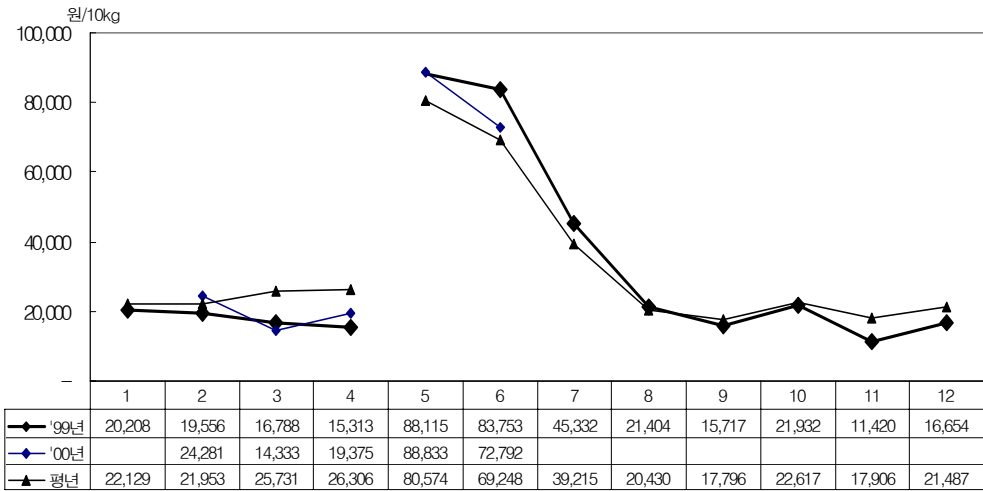
14% 정도 늘어난 1만 3,300ha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또한 착과상황 조사 결과, 6월 중순 현재 10a당 착과량은 7,851개로 작년보다는 11%, 평년보다는 2%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품종인 신고는 7,674개로 평년보다 3%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금년 배 생산량은 성목면적이 14% 정도 늘어나고, 단수는 작년보다는 11%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상여건이 없는 한 작년보다 26% 정도 늘어난 32만 6천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3.3. 포도

- 2/4분기에는 1/4분기와는 달리 저장포도(세레단), 수입포도, 국내산 하우스포도(캠벨얼리)가 동시에 출하됨. 6월 하우스재배 캠벨얼리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7만 2,792원으로 평년보다 5.2% 높은 수준이었음. 1999년산 포도 저장량이 적어 수입이 예년보다 3~4개월 정도 빨리 이루어졌으며, 1~5월 수입량은 6,218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정도 늘어남.

포도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 1.1~4.30, 11.1~12.31일은 세단(세레단), 5.16~10.31은 캠벨얼리 기준임.
 자료: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포도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정도 줄어든 2만 9,400ha, 성목면적은 2% 정도 줄어든 2만 2,500ha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또한 착과상황 조사결과, 6월 하순 현재 10a당 착과량은 7,626개로 작년보다는 3%, 평년보다는 6%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품종별로는 캠벨얼리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평년보다 3% 정도 많고, 거봉은 작년보다는 11%, 평년보다는 13% 정도 많아 착과상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 금년 포도 생산량은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2% 정도 줄어드는 반면, 착과 상황이 양호하여 단수는 3~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작년보다 1~3% 정도 늘어난 47만 5천톤~48만 4천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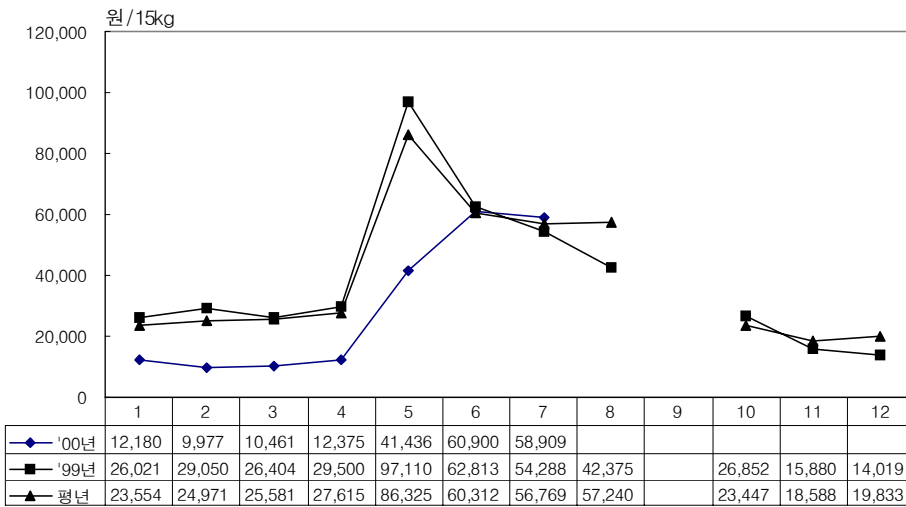
3.4. 감귤

- 금년 하우스감귤 출하시기는 저온현상과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생육이 늦어져 예년보다 20일 이상 늦추어졌음. 이에 따라 감귤 가격은 5월 중순부터 상승하여 6월에는 작년보다는 3% 낮지만 평년수준인 2만원선을 약간 웃돌았음. 6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4, 5월 가격이 낮아 농가가 출하시기를 늦추어 잘 익은 상태에서 출하시켜 과일의 맛, 색택 등 품질이 좋았고, 수출량도 예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임.
- 오렌지 수입량은 금년 1~5월간 총 74,398톤으로 1997~1999년 평균의 약 2.4배 수준임. 오렌지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미국의 풍작으로 수입원가가 크게 낮아진데다 관세와 환율도 하락하여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임. 그러나 주요 수입 품종이 네블에서 발렌시아로 바뀌고, 하우스감귤, 수박 등 국내산 과일의 맛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가 늘지 않고 있어, 8월 이후 오렌지 수입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임.
- 하우스감귤의 8월 출하량은 4% 정도 늘겠지만 9월 출하량은 3%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됨.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하우스 감귤의 품질이 좋아 국내소비가 증가하며, 수출량도 예년보다 늘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감귤 가격은 7월 수입오렌지 물량이 해소될 때까지 다소 약세를 보이겠으나, 8월에는 출하량이 다소 늘더라도 9월 추석까지 보합세를 유지하고 예년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노지감귤의 착과율은 작년보다 33%, 평년보다 23%씩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생산량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됨.

감귤 도매가격 동향(상품, 15kg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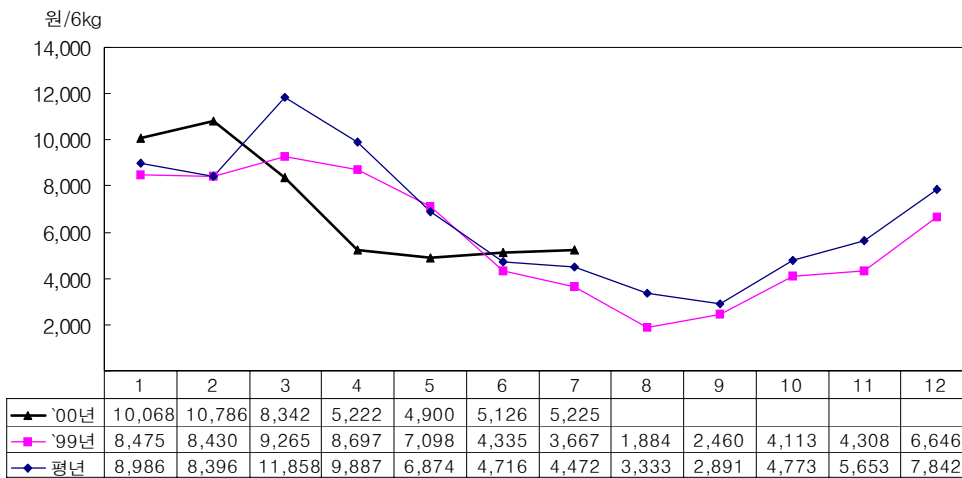
주: 5~8월 가격은 하우스밀감, 10~익년 4월은 온주밀감임. 평년가격은 '94년산 ~'98년산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5. 수박

- 2000년 수박의 재배의향면적은 시설면적이 작년(21,299ha)보다 6% 늘어난 22,500ha로 추정되며, 노지면적은 작년(13,200ha)보다 11%정도 줄어든 11,800ha로 추정되어 총면적은 작년보다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2/4분기의 수박 도매가격은 6kg 상품기준으로 4월 5,222원, 5월 4,900원, 6월 5,126원 이었음. 4월과 5월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낮았고 6월 가격은 높음. 4월과 5월의 수박가격 수준이 낮았던 이유는 수박 반입량이 작년동기보다 54%, 36% 각각 증가하였고 수입산 과일(오렌지, 수입포도) 및 신선과채류(딸기, 토마토, 참외)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에 원인이 있음. 6월 수박 가격은 건장마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여 예년보다 높았음.

수박 도매가격 동향 (상품기준)



주: 평년가격은 '95~'99년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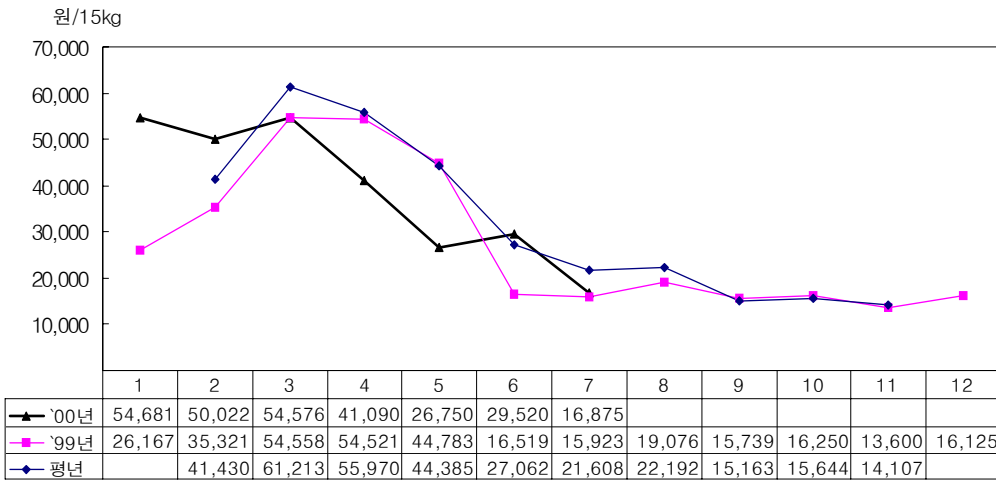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4분기의 수박정식면적은 작년동기보다 10~13% 줄었으나 3/4분기 정식예정면적은 4%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수박의 3/4분기 출하량은 작년보다 11~1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수박의 생육상황은 전국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7월이후 가격은 출하량이 줄고 산지 작황이 좋아 품질이 좋은 수박이 출하하여 소비가 촉진됨에 따라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3.6. 참외

- 금년 참외 재배면적은 작년(10,859ha)보다 2%증가한 11,000ha가 될 것으로 조사됨.
- 2/4분기 참외 도매가격은 15kg 상품기준으로 4월 41,090원, 5월 26,750원, 6월 29,520원이었으며 4월과 5월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 보다 낮았고 6월 가격은 높았음. 4월과 5월의 참외가격 수준이 낮았던 이유는 1/4분기의 정식면적이 증가 한데다가 1/4분기에 저온 현상으로 생육이 지연됨에 따라 참외 반입량이 작년동기보다 26%, 41% 각각 증가한 데다 수입산 과일(오렌지, 수입포도)과 신선과채류(딸기, 토마토, 수박)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원인임.
- 6월 참외 가격은 예년에는 6월에 출하되던 물량이 20일이상 앞당겨 5월에 출하되었고 밤의 이상고온으로 인해 6월단수가 좋지 않아 공급량이 크게 준 관계로 가격이 상승하여 예년보다 높게 형성됨.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15kg기준)



주: 평년가격은 '95~'99년의 평균임.

자료: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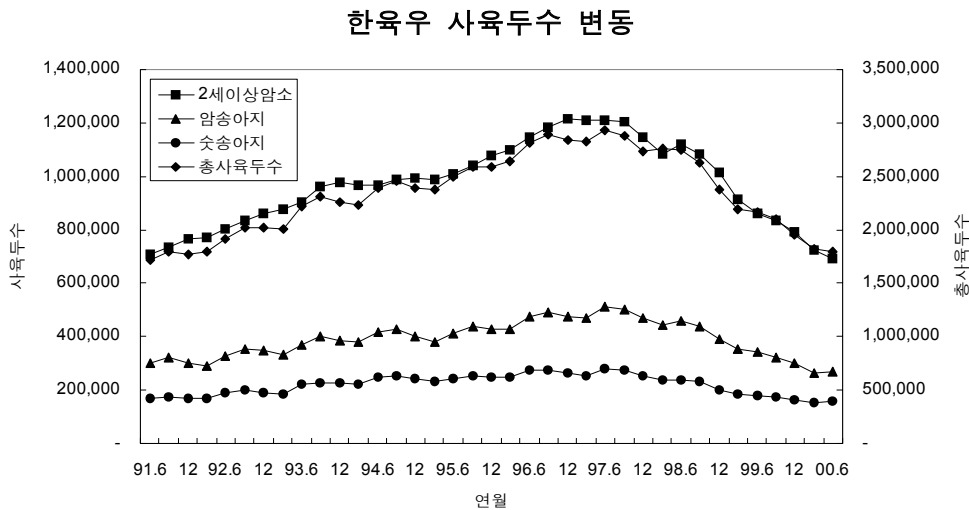
- 참외의 3/4분기 출하량은 작년동기보다 4%정도 줄어들 것으로 조

사됨. 참외의 생육상황은 전국적으로 나쁘다가 호전되는 것으로 조사됨. 7월이후 참외가격은 출하량은 줄지만 하우스감귤, 수박, 자두, 복숭아 등 햇과일의 출하로 인해 소비가 대체됨에 따라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면서 작년 3/4분기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4. 축산4)

4.1. 한육우

- 한육우 총 사육두수는 1999년 6월 2,167천두에서 9월 2,094천두, 12월 1,952천두, 2000년 3월 1,819천두 2000년 6월 1,801천두로, 3개월전 보다 18천두($\Delta 1.0\%$), 전년동기보다 366천두($\Delta 16.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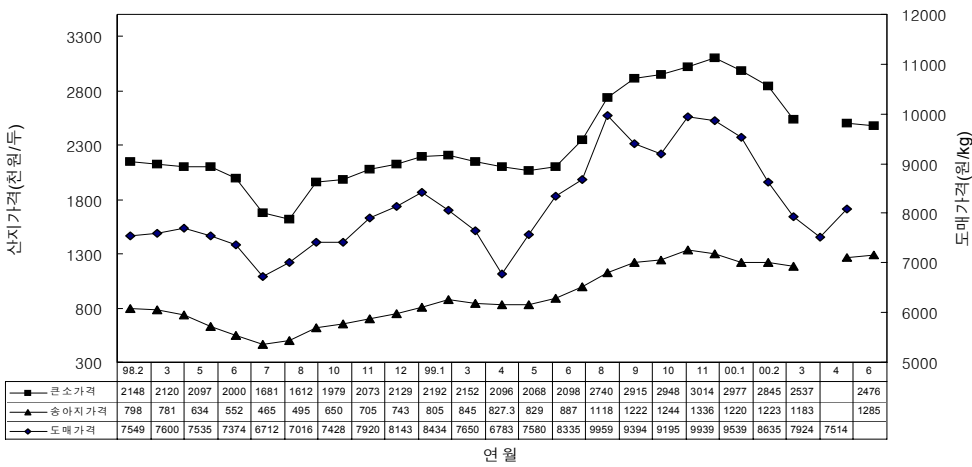
- 한육우 사육두수는 수입자유화에 대한 불안감과 구제역 발생으로 사육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또한 2000년 초반부터 소값 하락과 암소도축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마리수가 감소하고 있음.
 - 큰수소값(천원/500kg) : ('99.12) 3,098→('00.3) 2,537→('00.5) 2,501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신승렬 부연구위원(syshin@krei.re.kr), 권용덕 책임연구원(ydkwon@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99.12 대비 △19.3%)

- 50두미만 영세한 소규모 사육농가에서 대부분 감소
 - 50두 미만 : (’99.6) 1,737천두→(’00.3) 1,408→(’00.6) 1,389
 - 100두 이상 : (’99.6) 194천두→(’00.3) 192→(’00.6) 191
- 암소도축의 증가로 가임암소 부족현상 발생
 - 암소도축비율 : (’98) 49.8%→(’99) 57.6%→(’00. 3) 58.3%
 - 가임암소두수 : (’99.6) 975천두→(’99.12) 854천두→(’00.6) 785천두
(전분기 대비 3.0%, 전년동기 19.5% 감소)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 도축두수 감소로 인해 국내산 쇠고기 소비는 부진한 반면, 수입쇠고기 소비는 증가하여 쇠고기 총 소비는 증가
 - 2000년 1~4월까지의 도축두수는 326천두로 전년 동기대비 12.4% 감소하였음.
 - 국내산 쇠고기 소비는 1998년 260.1천톤에서 1999년에는 239.6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7.7% 감소하였음. 2000년 1~5월까지의 국내산 쇠고기 소비는 90.1천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0.9% 감소하였음.
 - 수입 쇠고기 소비는 1998년 85.4천톤에서 1999년 153.1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3% 증가하였고, 2000년 1~5월까지의 수입 쇠고기 소

비는 74.3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하였음.

- 쇠고기 총 소비는 구제역으로 인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둔화와 국내 사육두수의 감소로 인하여 국내공급물량이 부족함에 따라 수입육 소비가 증가하여 2000년 1~5월까지 164.4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하였음.

○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 수소 산지가격은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내수위축으로 1998년 8월에 1,612천원으로 '90년대 이후 최저치를 형성하였음.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점차 상승하여 1999년 12월에는 3,098천원으로 300만원대를 넘는 등 1995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였음.
- 2000년 1월 2,977천원, 동년 3월 2,537천원에서 거래가 되었으나 구제역 발생이후 가격은 더욱 하락하여 5월에는 2,501천원, 6월 2,449천원, 7월 10일 현재 2,440천원으로 하락하고 있음. 그러나 사육두수 감소세로 가격은 추석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구제역으로 인한 한육우 생산의 피해액은 6,050억원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00년도 국내 한육우 생산액 전망치(1조 9,400억원)의 약 31% 수준으로 추정되었음.¹⁾

4.2. 젓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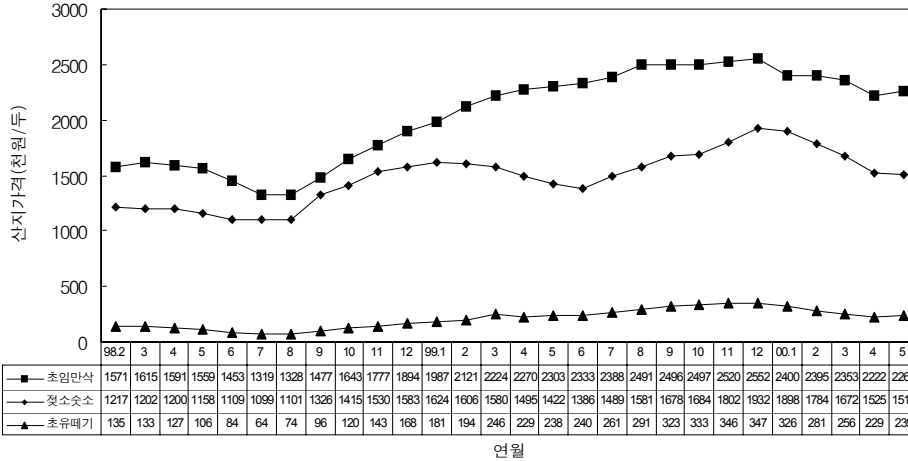
- 젓소 총 사육두수는 1999년 6월 535천두에서 9월 535천두, 12월 535천두, 2000년 3월 537천두, 6월 543천두로, 3개월전보다 6천두(1.1%), 전년동기보다는 8천두(1.5%) 증가함.
- 사육두수가 증가한 요인은 사료값 하락 등 경영여건이 안정되면서 2세이상 큰소의 사육두수 증가로 전체 사육두수가 다소 증가하였기 때

1) “구제역의 과급 영향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37/ 2000.4

문임.

- 2세 이상 : ('99.12) 306천두→('00.3) 307→('00.6) 313(전분기 대비 2.0% 증가)
- 사료값(큰송아지용) : ('99.6) 5,350원/25kg→('00.5) 4,900 (△8.4% 하락)

젖소 산지가격 변동



○ 젖소 산지가격변동

- 초유떼기(암송아지): '98년 7월 64천원 최저수준 → 이후 상승, '99년 12월 347천원 → 이후 하락세, 2000년 5월 현재 239천에서 거래.
- 초임만삭우: '98년 7월 1,319천원 최저수준 → 이후 상승, '99년 12월 2,552천원 → 이후 하락세, 2000년 5월 현재 2,267천원 기록.
- 젖소숫소: '98년 7월 1,092천원 최저수준 → 이후 상승, '99년 12월 1,932천원 → 이후 하락세, 2000년 5월 현재 1,510천원 기록.

○ 구제역으로 인한 낙농생산의 피해는 11.3억원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00년도 낙농생산액 전망치(1조 3,260억원)의 약 0.1% 수준으로 추정되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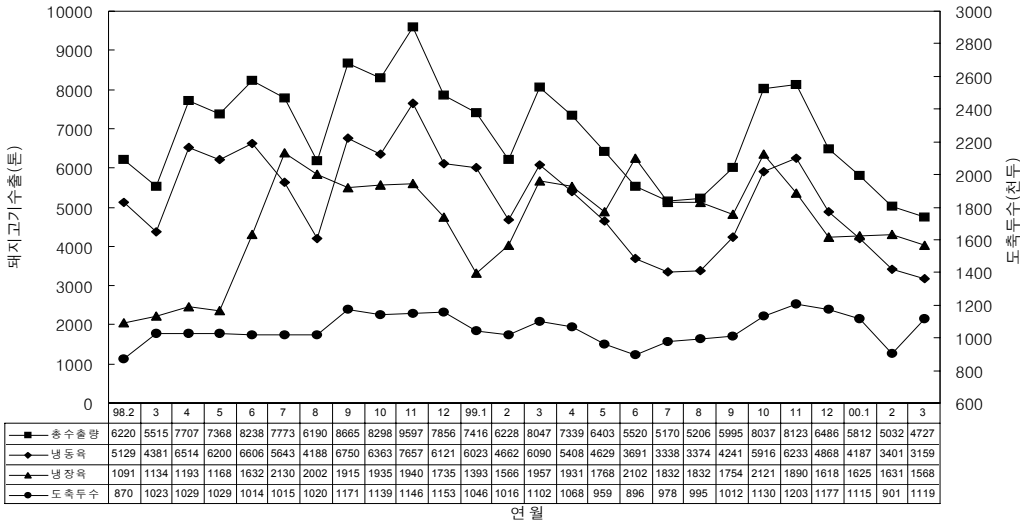
2) “구제역의 과급 영향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37/ 2000.4

4.3. 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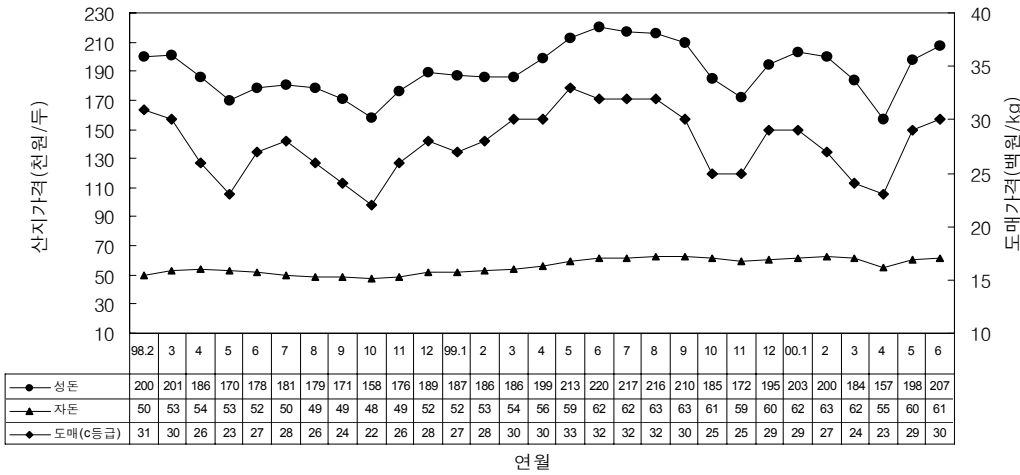
- 돼지 총사육두수는 1999년 6월 7,344천두에서 9월 7,813천두, 12월 7,864천두, 2000년 3월 7,887천두, 6월 8,126천두로, 3개월전보다 239천두(3.0%), 전년동기보다 782천두(10.6%) 증가함.
-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한 요인은 지난 해 산지가격의 강세에 따른 사육심리 고조와 지속적인 모돈수 증가에 따른 생산 마리수 증가로 전체 마리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산지가격 : ('99. 4/4) 189천원/100kg→('00. 1/4) 199천원/100kg→('00. 2/4) 213천원/100kg.
 - 모돈수 : ('99. 6) 863천두→('00. 3) 914천두→('00. 6) 936천두 (전분기 대비 2.4% 증가)
- 돼지고기 수출 감소
 - 대일수출량 : ('99. 1/4) 21.7천톤→('00. 1/4) 15.6천톤 (전년동기 대비 28.1% 감소)
- 돼지 산지가격변동
 - 성돈(100kg) : '97년 171천원→'98년 179천원→'99년 199천원으로 증가 추세. 올해 들어서도 1월과 2월에 200천원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00년 5월 현재 198천원을 유지.
 - 자돈 : '97년 53.2천원→'98년 50.4천원→'99년 58.7천원으로 증가 추세. 올해 들어서도 1월과 2월에 60천원대를 기록하는 등 강세, 2000년 5월 현재 60천원 기록.
- 구제역으로 인한 양돈생산의 피해는 7,431억원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00년도 양돈생산액 전망치(2조 6,760억원)의 약 27.8% 수준으로 추정되었음.³⁾

3) “구제역의 파급 영향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37/ 2000.4

돼지 도축두수 및 수출량변동



돼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4.4. 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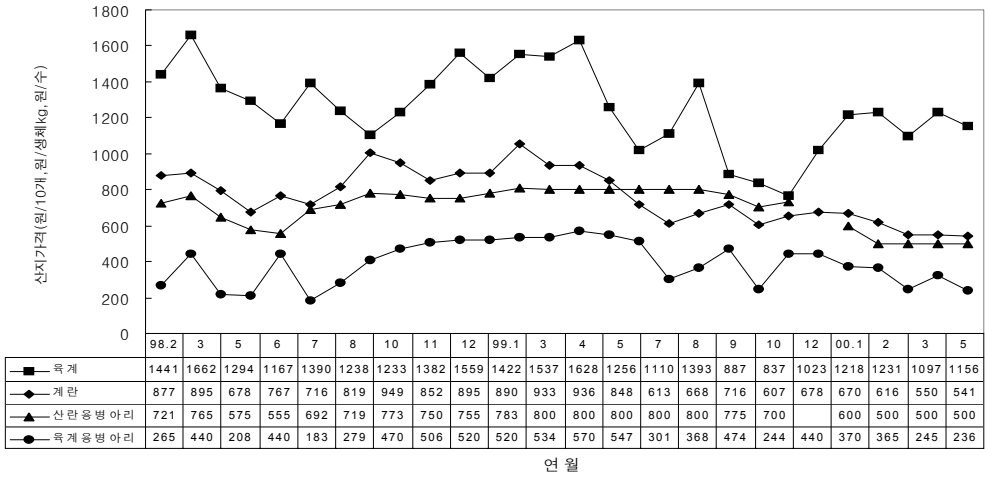
○ 닭 총 사육수수는 1999년 6월 108,451천수에서 12월 94,587천수, 2000년 3월 99,891천수, 6월 118,773천수로 3개월전보다 18,882천수(18.9%), 전년동기 보다 10,322천수(9.5%)가 증가함.

- 뉴캐슬병으로 불구하고 닭의 총사육수수는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한 병아리 입식확대로 육계의 사육마리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산란계는 1999년 6월 49,650천수에서 9월 51,162천수, 12월 51,934천수, 2000년 3월 51,111천수, 6월 51,199천수로 3개월전보다 88천수(0.2%) 증가하였고, 전년동기 보다는 1,549천수(3.1%) 증가함.
 - 육계는 1999년 6월 51,508천수에서 9월 42,449천수, 12월 36,558천수, 2000년 3월 42,352천수, 6월 59,910천수로 3개월전보다 17,558천수(41.5%), 전년동기보다 8,402천수(16.3%) 증가함.

- 양계산물 산지가격 변동
 - 계란은 1998년 1월에 1,067원으로 동계 성수기에 최고조를 기록한 후 1998년 9월 추석 성수기에 1,004원으로 상승하였고 그 이후 1999년 1월까지 890원대를 유지함. 그러나 1999년 2월 1,056원을 기점으로 6월 719원, 9월 716원, 12월 678원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임. 2000년 3월 550원, 5월 541원에서 거래되었음.
 - 육계의 경우, 1999년 생체 kg당 산지가격은 연평균 1,203원으로 1998년 1,331원보다 10.6% 낮은 수준을 보임. 1999년에 2월 1,554원, 3월 1,535원, 4월에 1,628원으로 1,500~1,600원대의 높은 가격수준을 보였음. 그 이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5월 1,256원, 6월 1,019원에서 형성됨. 8월에 다소 회복세를 보여 1,393원에 거래되었으나, 9월 887원, 11월 767원까지 내려감.

- 연초에 약세를 보이던 산지육계가격은 4월에 들어서 구제역으로 인한 일시적인 대체수요 증가로 1,228원으로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약간 상승하였음. 4월 이후 가격은 계속 약보합세를 보였으며, 전국적인 질병의 여파로 생산량은 감소되어 6월 산지가격은 1,089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9% 상승한 상태로 회복세를 보여 초복에 1,600~1,700원대로 상승하였음.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 병아리 생산

- 산란계 실용계 병아리 생산은 1998년 35,275천수에서 1999년에는 35,595천수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음. 2000년 1~4월까지의 병아리 생산은 11,664천수로 전년동기 대비 7% 감소하였음.
- 육계용 병아리 생산은 1998년 3,244천수에서 1999년에는 3,525천수로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음. 2000년 1~5월까지의 병아리 생산은 1,334천수로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하였음.

VI. 특별주제

- 통합농협 중앙회의 향후 과제
- 수입마늘 긴급관세부과 조치의 배경과 경과 분석
- 마늘긴급관세 협상결과와 정책방안
- 과일가격 하락의 원인과 대응방향

통합농협 중앙회의 향후 과제¹⁾

1. 통합농협 출범배경과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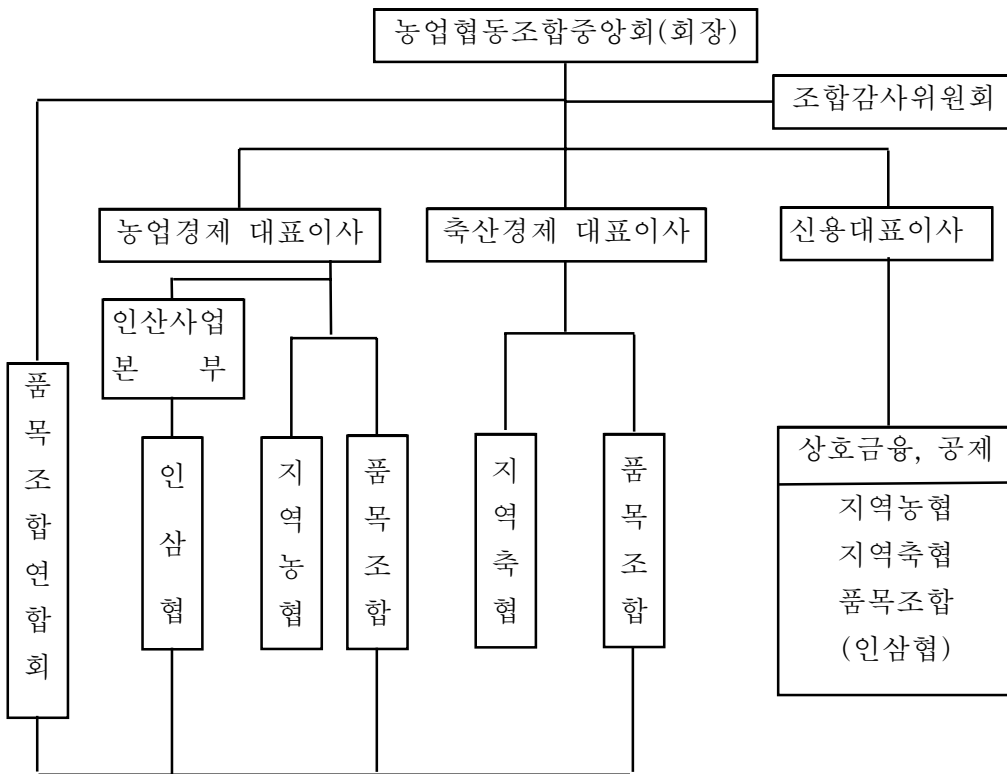
- 협동조합 개혁, 특히 농·축·인삼협중앙회의 통합은 농정개혁의 최대 과제로 인식되어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 농민단체대표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혁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중앙회 통합은 일선조합의 광역합병과 함께 협동조합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었음. 협동조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체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음.
- 위원회는 중앙회 통합에 대해 3개의 대안을 제시하여, 농·축·임·삼협 4개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단일 공동개혁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나 상호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였음. 이에 정부는 1999년 3월에 정부안을 마련하여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일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999년 8월에 입법화하고 2000년 7월 1일부로 농·축·인삼협중앙회가 하나의 통합농협으로 출발하게 되었음.
- 중앙회 통합은 소비지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유통기능을 강화하며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용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체제를 실현하고자 한 것임.
- 그러나 3개 협동조합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조직이 거대

1) 이 자료는 농촌발전연구부 황의식 부연구위원(eshwang@krei.re.kr)이 집필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해짐에 따라 운영이 잘못되면 비효율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단위사업을 회원조합에게 이관하거나 자회사로 분리함으로써 조직을 슬림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통합농협은 사업부서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 등에 대해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고 중앙회회장은 농정활동과 지도기능에만 전담하도록 하였음. 품목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품목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하였음.
- 사업부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경영목표 설정, 사업 및 자금계획 수립 그리고 직원의 승진전보의 인사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아 사업의 경쟁력 제고의 책임을 짐. 이 과정에 축산부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소관 조합장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중앙회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중앙회회장이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어 지도·감독에서 객관성, 독립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특징도 있음.

<통합농협중앙회 조직체계>



2. 통합농협의 역할

- 협동조합 개혁은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생산측면에서는 농가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지도컨설팅기능의 강화이고, 농산물 판매에서는 소비자 유통을 강화하여 판로의 안정과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하는 것임. 그리고 회원조합의 신용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할과 부실방지를 위한 지도감독기능도 강화함.

- 그 동안 우리 협동조합은 신용사업에 의존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여 일부 성공한 면도 있음. 그러나 금융환경의 변화로 신용사업이 지도기능과 경제사업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예대비율 및 예대마진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기준의 강화 등으로 비용이 증대하는 신용사업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최악의 경우에는 신용사업이 오히려 지도·경제사업을 제약할 위험까지 안고 있음.
- 협동조합 사업의 주변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일선조합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3. 통합농협의 과제

3.1. 조직운영의 효율화

- 협동조합은 시장을 활용하는 것보다 협동이라는 조직을 통한 내부거래를 활용하는 조직임. 만약 조직운영이 잘못되어 조직비용이 시장거래비용보다 높으면 협동조합을 결성한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게 됨.
- 협동조합은 자본시장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경영자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자기자본 조달과정이 매우 취약한 조직체임. 서구의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등으로 변질하는 것은 자본조달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여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운영의 효율화가 향후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음. 사업부문별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분리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 조직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농협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나게 될 것임.

3.2.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건전성 제고

-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고, 경제사업의 경우도 자기자본이 충분하여야 시장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고됨.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기자본조달을 확대하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임. 그런데 협동조합은 출자금에 의존하여 자기자본을 조달하므로 조합원이 출자금을 배가할 유인이 적어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취약한 조직형태임.
- 통합과정에서 축협중앙회의 부실로 통합농협 전체가 동반 부실될 위기에 처해 있음.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이는 통합농협의 위기로 연결될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임. 출발부터 부실을 안고 있으면 이를 해결하는데 역량이 집중되어 협동조합 개혁의 본래 목적을 추구하기 어렵게 될 것임. 새로운 법에서 새로 도입한 우선출자제를 활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여 주어야 함.
- 중앙회 건전성 못지 않게 일선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축협중앙회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손실을 회원축협에게 전가시키면 회원축협은 모두 부실화되어 생존하기 어려움. 농협과 축협의 상호금융특별회계를 단순히 통합하면 축협의 부실이 회원농협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 투자회사의

대우채에 대한 손실 모두를 일반투자자에게만 부담시키지 않고 대부분 회사나 대주주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임.

- 현재까지의 부실에 따른 문제점 해결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부실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자기자본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신용사업의 수익에서 자기자본을 증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3.3.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가 금융감독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상호금융에 대한 자율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금융환경의 변화에서 자산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획득하는 길임.
-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투명하게 평가하여 공시하고, 부실우려 조합에 대해 조기시정조치를 취하는 권한 및 관행을 확립하여야 함. 부실정도가 심각한 조합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명령하고 이에 필요한 처리비용을 충당할 특별 기금을 자체적으로 적립하면서 정부가 이 부분에 자금지원을 실시함.
- 부실조합 발생원인의 하나가 과도한 시설투자에 있음을 고려하여 상호금융자금을 고정시설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원칙과 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과실에 대한 책임규정임. 경제사업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엄격한 적용은 피해야 함.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업부서별 및 회원조합 등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특수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음.

3.4. 품목별 전문조합 및 지역조합과 중앙회의 협조관계 제고

- 농가소득 증대는 일선조합을 통하여 달성되므로 중앙회와 일선조합간의 관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중앙회의 사업이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인 자회사체제로 전환되므로 협동조합의 원칙인 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보다 투자자 이익 중심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음. 자회사의 투자자금 조달과 이익분배에서 가능한 일선조합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회 사업은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소비지 유통과 생산지 유통간의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역할분담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시장교섭력에서 우위에 있는 중앙회가 협동조합의 목적을 상실하는 운영을 하게 되면 이 관계는 서로 경쟁관계로 전환되고 효율성이 저하됨. 따라서 가능한 일선조합이 중앙회 사업에 자본참여로 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일선조합의 부족한 자금을 중앙회 신용사업이 보완하여 주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통합농협법의 또 다른 특징은 품목조합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이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는 않음. 품목조합연합회는 단기적으로는 전문조합간 사업연합을 통하여 품목특정의 사업에 집중하고 보편적인 사업은 중앙회 혹은 자회사와 전략적 제휴 형태를 가져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 품목별로 시장조사에 의한 수급조절을 협의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홍보나 농정활동을 강화함.
- 통합농협의 출발로 중앙회의 비중이 확대된 것을 보완하는 일선조합과 품목조합연합회와의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방안마련이 중요한 과제임.

4. 통합농협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4.1. 이사회와 경영자간 역할분담의 명확화

- 협동조합은 자본시장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경영자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직체제임. 나아가 조합원 1인 1투표로 최고경영자를 선출하고 있어 사업의 장기적 발전보다 단기적 인기를 위한 경영전략이 선택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사회가 이에 대응하여 올바른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이사회가 각 사업부문별 장기사업방향과 경영자가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수립하여 경영자에게 제공하면, 경영자는 그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전략을 수립하는 관계를 확립하여야 함. 이사회는 경영자가 주어진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는가를 잘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임. 협동조합은 시장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부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잘 설정하여야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짐.
- 특히 이사회는 농·축·삼협의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회원조합으로부터 선출되어 구성되는데 절대 다수를 회원농협이 차지하고 있음. 다수의 이익을 위해 투표로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경우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음. 이사회의 역할이 부문간 이해를 반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지배구조의 구축과 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 이해관계의 대립은 크게 완화될 것임.

4.2.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그리고 지도사업 간 관계정립 투명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그리고 지도사업간 관계를 보다 명백히 설정하여 각 사업의 경영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통합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자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도록 하는 원칙의 수립을 위한 원가개념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 신용사업의 수익에서 지도사업비용을 조달하는 데 있어 그 규모를 지도사업에 계리된 자기자본의 배당 분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신용사업의 이익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자산건전성을 확립하도록 내부유보하는 것이 필요함. 지도사업비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가개념에 의해 사용하도록 하여야 효율성이 증대함.
-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최선의 내부금리를 적용하고,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비중을 확대하여야 함. 이제까지 경제사업이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과도한 자본비용과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한 결과임. 경제사업이 항상 적자를 기록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 적극적인 장기사업전략을 선택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자본이 없는 원가개념을 채택하였기 때문임.
- 사업부문간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여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였으나 중요한 자기자본의 사업부서간 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대표이사에게 주어진 권한과 자원의 한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경영성과를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없음. 단일 법인체이어서 자기자본의 계리가 어렵더라도 내부원가계산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계리하여야 함.
- 자회사를 포함한 각 경제사업은 필요한 자금을 신용사업에서 차입을 하는데 있어 그 적용금리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이는 세금을 위한 금리가 아니라 내부통제 및 관리원가계산에 따른 경영성과 평가를 위해 내부적으로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 것임. 통합농협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 자금은 이 부분에 보다 용이하게 유입됨. 잘 설계된 내부금리체계는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주고 경영자의 경영성과 측정을 용이하게 함.

4.3. 조직운영의 유연성 제고

- 통합능협이 좋은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도록 인력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외부로부터 보다 많은 전문인력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인력육성을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현재보다 확대하여야 함.
- 조직비용과 시장거래비용을 비교하여 시장거래비용이 더 낮은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부문과 전략적 제휴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협동조합이 선택하기 어려운 위험이 큰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전략적 제휴를 적극 모색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도록 함.

4.4. 회원조합 소유구조 강화

- 조합원인 회원조합이 중앙회 사업성과에 무관심하게 되면 주인이 없는 기업이 되어 운영의 비효율성은 개선되기 어려움. 회원조합이 경영성과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익을 회원조합에게 잘 분배함. 잉여금 분배는 중앙회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금 형태로 분배하고 그에 비례하여 신용사업에서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차등하는 것으로 보완함.
- 통합능협의 조직이 거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은 자회사로 전환하고 있음. 그런데 자회사의 경영자 이해와 회원조합의 이해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 자회사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회원조합으로부터 원료를 싸게 구입하려 하고 회원조합은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를 원함. 자회사의 이익이 사업을 활용하는 회원조합의 이용도에 따라 분배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회원조합이 자회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자회사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

수입마늘 긴급관세 부과 조치의 배경과 경과 분석¹⁾

1. 한·중 무역마찰의 배경

-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간의 무역이 급증하고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양국은 상호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경제문제를 떠나 정치·외교적으로도 전통 우방국들에 못지 않은 우의를 과시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한·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양국이 경제발전을 계속해 나가면서 더욱 심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최근 한국의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이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한·중간 무역마찰이 발생하여 양국간 협력관계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게 되었음.
-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분쟁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7월 초 북경에서 개최된 쌍무협상을 통해 아직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한국이 중국산마늘 3만 2천톤 가량을 낮은 세율로 수입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통상마찰이 해소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일견 다행스럽다고도 보여지나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마늘 수입확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수입급증으로 인한 실질적인 마늘 생산농가 피해 축소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규범(WTO)에 근거하여 수입마늘에 취한 산업피해구제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마늘수입에 대해 무분별하게

1) 이 자료는 국제농업 연구실 임정빈 책임연구원 (jeongbin@krei.re.kr), 이재욱 수석연구위원(jaeoklee@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긴급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한·중간의 통상마찰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되돌아보고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조치는 불가피하고 정당했던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임.

2. 한·중간 교역의 추세와 특징

- 1992년 한·중간의 수교 이후 상호 무역의존도가 매년 증가하여 1999년에는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3의 교역대상국이 되었으며 한국도 중국의 제3의 무역 대상국이 되었음.

대중국 수출입 및 교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95	'96	'97	'98	'99
수출	국가전체	9,144	11,394	13,572	11,944	13,685
	농림축산물	95.3	88.0	85.7	115.4	90.5
	농산물	44.9	27.0	47.0	39.5	37.9
	축산물	1.1	0.7	1.5	2.1	3.1
	임산물	49.3	60.3	37.2	35.9	49.5
수입	국가전체	7,401	8,539	10,117	6,484	8,867
	농림축산물	637.2	818.6	1,275.1	774.3	780.3
	농산물	412.5	531.6	934.9	623.9	551.6
	축산물	35.2	40.8	46.4	11.8	15.1
	임산물	189.5	246.2	293.8	138.6	213.7
무역수지	국가전체	1,743.	2,855	3,455	5,460	4,818
	농림축산물	-541.9	-730.6	-1,189.4	-658.9	-689.8

- 1999년 대중 무역액은 전체 무역액의 8.6%에 해당하는 226억불였으며, 홍콩을 포함할 경우 전체 무역액의 12.3%에 해당하는 325억불에 달하였음.
-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137억불이고 이 중 농림산물 수출은 1.1%에 해당하

는 1억 5000만불에 불과함.

- 한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전체수입은 89억불이며 이 중 농림산물의 수입은 13.5%에 해당하는 7억 8000만불이었음.
 - 이에 따라 한국은 전체적으로 48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농림산물의 경우에는 6억 9000만불의 적자를 보임.
- 우리나라 전체 대중 무역수지 흑자의 규모는 1995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여 1999년에는 3배까지 증가한 반면 농림축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큰 적자를 보여왔음.
- 이와같은 한·중간의 교역 추세와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부 경공업제품과 농림축산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만 많은 양의 부품과 고기술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산업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즉 한·중간의 교역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원인과 배경을 가지고 있음.

3.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조치

3.1. 산업피해구제 조치의 배경과 경과

- 당초 BOP 대상품목으로서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되어 왔던 마늘은 UR 농산물 협상타결과 함께 가공도에 따라 관세수준이 상이하게 결정되었음.
- 신선, 냉장, 건조, 일시저장 마늘의 경우 최소시장접근물량(MMA)에는 낮은 관세(50%)를 부과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되 시장접근물량은 매년 확대하기로 하였음.
- MMA물량(관세 50%) :
(’95) 8,680톤 → (2000) 11,895톤 → (2004) 14,467톤
- 고율관세 인하계획 :

(‘95) 396% → (2000) 376 % → (2004) 360%

- 냉동, 초산 마늘은 UR협상 당시 국내수요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30%의 저율관세로 개방을 약속하였음.
- UR 협정 발효 이후 한·중간의 현격한 가격차이로 인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부과되는 고율관세에도 불구하고 신선마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중국으로부터의 신선마늘 수입은 1996년 6,553톤에서 1998년의 26,054톤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특히 냉동, 초산 마늘의 경우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이용하여 대량의 물량이 수입되었으며 1999년에는 1996년 대비 수입이 9배 이상으로 급증
 - 단순처리된 가공마늘을 수입한 후 신선마늘의 용도로 대체하려는 수입업자의 이윤동기와 더불어 냉동설비 등을 설치하면서까지 수출을 적극 추진한 중국측의 노력에 힘입어 냉동마늘의 수입이 급증하게 됨.
- 이와 같은 마늘 수입의 급증으로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1996년 3.3%에서 1999년(1월~9월) 12.2%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1999년 1~5월 중 시장점유율은 35.1%로서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증가하였으며,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의 농가판매가격과 도매시장가격은 1999년 1~9월 사이에 전년동기 대비 42.4%와 37.9%씩 하락
- 수입급증에 따라 마늘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농업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는 1999년 9월에 마늘 농가를 대표하여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하였음.
 - ※ 마늘은 한국 농업의 생산액 측면에서 쌀 다음으로 크고 전체농가의 1/3인 42만 농가의 소득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구제조치를 신청하였던 것임.

중국산 마늘 수입 동향

(단위 : 톤)

구 분	'96	'97	'98	'99	대 비 ('96~'99)
신선통마늘등 (MMA)	6,553 (6,153)	12,987 (9,966)	26,054 (10,609)	15,023 (4,100)	2.3배
냉 동 마 늘	2,043	3,768	7,795	18,598	9.1
초산조제마늘	901	1,634	2,147	3,631	4.0
소 계	2,944	5,402	9,942	22,229	7.5
총 계	9,497	18,389	35,996	37,252	3.9

주) 신선통마늘 수입량에는 중국외 태국, 일본산 등이 극소량 포함

- 농협중앙회의 산업피해구제신청 이후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 피해구제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 1999년 9월 30일 : 농협중앙회가 마늘 산업피해구제 조사 신청
 - 1999년 10월 11일 :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피해조사 착수
 - 1999년 10월 27일 : 무역위원회는 국내 마늘 재배농가의 심각한 피해를 인정하여 중국산 마늘 수입에 대해 잠정긴급관세부과 건의
 - 1999년 11월 18일 : 재정경제부는 수입마늘에 대한 잠정긴급관세 조치 시행 (2000년 6월까지 냉동마늘과 초산마늘의 관세를 30%에서 315%로 조정)
 - 2000년 1월 12일 : 무역위원회 마늘 산업피해구제 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
 - 2000년 3월 15일 :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 건의 결정
 - 2000년 5월 31일 : 재정경제부 긴급관세부과 최종 결정

3.2. 산업피해구제(세이프가드) 관련 WTO 규정

3.2.1. 산업피해구제 제도의 개념 및 의의

-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1947)협정 제 19조에 기반을 두고있는 제도로서 특정 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수입국내의 산업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도 및 기간동안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음.

- 지난 UR 협상타결과 함께 기존의 산업피해구제조치를 규정한 GATT (1947) 협정문 제 19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WTO 회원국들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약 제정에 합의하였음.
- WTO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제도는 특정상품의 수입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혹은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대응조치를 의미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함.
- 이 제도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에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3.2.2. WTO 협정문의 주요내용

□ 발동요건 및 적용원칙(제 2조)

- 수입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혹은 상대적인 수입증가가 있어야 하며, 이로인해 동종 혹은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 우려가 있으며, 수입증가와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 이러한 발동요건이 충족될 때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되는 모든 당해물품에 대해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됨.

□ 피해 조사의 의무(제 3조)

-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자하는 수입국은 GATT(1994) 제10조(규정된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에 근거하여 이미 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해조사당

국의 조사를 통해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조사는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합리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 심각한 피해 및 피해우려에 관한 결정(제 4조)

- 피해조사당국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피해우려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당해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모든 관련 요인을 평가해야 함.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방식(제 5조)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내에서만 취해질 수 있음.
 -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수량제한이 사용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가 이용가능한 대표적인 최근 3년동안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없음.

□ 잠정조치(제 6조)

- 구제조치가 지연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그와 같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의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적용기간(제 7조)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기간동안만 적용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통고 및 협의(제 12조)

-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자하는 수입국은 신속히 WTO 산업피해구제위원회에 피해조사절차의 개시 및 그 이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등을 통고하여야하며, 이해당사국간의 협의결과 및 중간검토 결과 언급된 보상의 형태 등을 상품교역이사회에 즉시 통고해야 함.

3.3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 무역위원회는 1999년 9월 30일 농협중앙회의 산업피해구제 신청에 의하여 동년 10월 11일 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내용에 포함시켰음.
 -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 여부
 - 국내산업의 범위
 - 수입증가 및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여부
 -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여부
 -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 한편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결 이전 국내 마늘농가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잠정조치를 결정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이익과의 관계 및 국제 통상차원의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0일 동안 수입품 중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285%의 긴급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한 것임.
 - 1996년 이후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입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국산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국산품의 재고가 증가하고, 국내 마늘산업의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하에 잠정조치를 결정하였음.

3.3.1.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 여부

- 중국산 수입마늘 중 신선·냉장 마늘은 국산품과 물리적 특성, 성분, 용도 등에서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어 동종물품이며, 수입품 중 냉동, 건조, 일시저장 및 초산조제 마늘은 신선·냉장 마늘을 단순 가공한 것에 불과하여 상업적인 용도에 있어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 국산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결론지었음.

3.3.2. 수입증가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여부

- UR협상 당시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늘의 대부분이 통마늘 상태로 유통되었으나, 최근 들어 깎마늘 상태로 유통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수입마늘도 깎마늘 상태로 수입되는 추세에 있는 바 중국은 한국과의 인건비 차이에 따라 깎마늘에 경쟁력이 있으며 이는 최근 깎마늘 수입증가의 원인이 되었음.
 - 이러한 국내 마늘유통 거래 형태의 변화와 깎마늘의 수입증가에 대해 예상했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무역위원회는 판단하였음.
- 냉동마늘 및 초산마늘은 관세양허협상 당시 국내수요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고 국제거래도 거의 없었으나, UR협상의 결과 신선·냉장 마늘 등에 대해 고율관세가 적용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출업자들이 제조, 수출하게 된 것임.
- 따라서 무역위원회가 냉동마늘 및 초산마늘의 수입급증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결론지었음.

3.3.3.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 무역위원회는 수입증가에 따른 마늘 재배농가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와 관련하여 피해조사 대상기간 중 1)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의 증가, 2) 국내 마늘가격의 하락, 3) 국산마늘 재고량의 증가, 4) 국내산 마늘의 판매액 감소, 5) 단위 면적당 마늘산업의 순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3.3.4.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 무역위원회는 수입증가가 국내가격의 하락 또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절별 가격상승의 억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과거 5년간 평균가격지수와 최근의 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하였음.
 - 과거 5년간의 가격지수의 월별 변화의 경우 생산시기인 6월에 마늘 가격이 가장 낮은 반면, 이후 저장비용 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계절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 그러나 최근(1998. 6~1999. 9)의 가격지수의 변화는 1998년 12월 이후 오히려 급격히 하락하는 등 과거 5년간의 가격지수의 변화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점이 파악되었음.
 - 따라서 동기간 중 마늘의 수입증가가 국산마늘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음.

3.3.5.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조치 판정의 내용

-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산업피해에 관한 조사를 종료하고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건의를 결정한 바 재정경제부는 다음과 같은 긴급관세부과를 최종 결정하였음.
 - 기간 : 2000년 6월 1일 ~ 2003년 5월 31일(3년)

- 품목 및 관세율
 - 깐마늘 : 376%의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60%(또는 300원/kg)의 긴급관세부과(총 436% 또는 2,180원/kg)
 -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 : 30%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285%(또는 1,707원/kg) 긴급관세부과(총 315% 또는 1,887원/kg)
- 이것은 중국측의 입장을 고려 긴급관세를 WTO가 규정한 국내외 가격차(냉동 344%, 초산 449%) 보다 낮은 수준(30% + 285% = 315)에서 결정함.

3.4. 중국에 대한 통보와 협의

- 지난해 마늘 수입 급증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우려할 만한 피해가 발생하여 생산자를 대표한 농협중앙회가 수입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이후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비록 중국이 아직 WTO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WTO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통보와 협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
- 1999년 9월 말 농협중앙회가 무역위원회에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1999년 10월 11일 산업피해조사 개시를 결정할 당시에도 피해 조사개시를 중국에 통보한 바 있음.
- 한편 무역위원회의 피해조사결과 구제조치가 지연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생산농가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잠정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때(1999년 11월 18일)에도 그 시행관련 내용을 중국에 통보한 바 있으며, 올 초 개최된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최종 판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2000년 1월 12일) 및 최종 판정사항을 사전 통보 한 바 있음.
- 이외에도 최종적으로 마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결정된 이후 중국측이 마늘 구제조치와 관련된 양자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차에 걸쳐 한·중간 양자협회가 서울(2000년 4월 24일)과 북경(2000년 5월 17일)에서 개최되었음.

3.5. 중국측 주장에 대한 평가

- 중국측은 지난해 수입은 1천 2백톤 증가에 그친 반면 국내생산량은 9만톤이 나 늘어 한국내 마늘가격 폭락에 따른 마늘 생산자 피해는 국내 생산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음.
- 그러나 중국산 마늘 수입은 지난 4년간 4배이상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국내생산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할 때, '99년 국내 마늘 생산량 증가는 9만톤인 반면 수입량 증가는 1천 2백톤에 불과하여 긴급관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중국측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됨.
- 1999년도 중국산 전체 마늘 수입량은 조사 대상기간인 1996년 대비 4배이상 증가한 반면 생산량 증가는 6%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은 최근 3년간의 전체적인 마늘 수입상황을 무시하고 1999년 1년간의 수치만을 인용함으로써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산 마늘 수입량 증가 : ('96) 9,497톤 → ('99.12) 37,252톤
 - 한국내 마늘 생산량 증가 : ('96) 455,955톤 → ('99) 483,778톤
- 또한 1999년 수입증가율을 계산하는 중국측의 계산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한국의 마늘수입이 1999년 전년대비 3.5%증가(1,200톤)에 그쳤기때문에 국내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는 1999년 9월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11월에는 잠정적으로 긴급관세조치가 시행되어 수입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입증가 추세는 연간 수입량이 아니라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방식을 따를 경우 199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전년 동기 수입증가율

은 30%에 육박하고 국내생산 증가율 23%를 능가하게 되어 수입이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마늘의 국내생산 및 수입변동 추이

(단위 : 톤, %)

구 분	'96	'97	증가율	'98	증가율	'99	증가율
국내생산량	455,955	393,834	△13.6	393,903	0.0	483,778	22.8
중국산 수입량	9,497	18,389	93.6	22,094 ¹⁾	95.7	28,330 ²⁾	28.2

주 1) '98.1~9까지 수입실적이며, '98년 총 수입량은 35,996톤임

2) '99.1~9까지 수입실적이며, '99년 총 수입량은 37,252톤임

- 한편 중국은 한국의 마늘 수입액이 800만불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국내 통계에 의하면 1,500만불에 육박하는 액수이며, 더욱이 산업피해구제조치 발동의 판단기준은 수입액의 과다가 아니라 수입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농가피해의 유무임.
 - 산업피해를 조사한 무역위원회는 마늘의 수입증가에 따른 농가피해를 3,500억원이며 이는 마늘 총생산액의 30% 이상이라고 추정한 바 있음.
 - 또한 중국이 대한 무역역조인 상태에서 우리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농산물 부문에서는 7억불 가량의 흑자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주장이 될 수 없음.
-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국의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가 자의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준수법기구인 무역위원회가 WTO규정에 입각하여 내린 결정이며 동 추진과정은 WTO와 중국측에도 단계적으로 통보된 바 있음.

4.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정책적 의미

- 중국이 한국의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조치와 긴급관세 부과를 차별적인 보호무역조치라 간주하고 보복조치의 일환으로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WTO 가입 예정국으로서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마저 무시한 조치라 판단됨.
- 중국은 보복조치를 단행하면서 사전에 협의도 없었고, 고율관세 부과조치도 생략했고, 보복조치의 대상도 농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선택했고, 보복금액의 규모도 50배 이상에 달하는 품목을 선정해서 국제통상관례와 WTO 규정을 위반하였음.

한·중간 무역분쟁 품목의 수입규모 비교

(단위 : 만달러)

구 분	'97	'98	'99
(A)중국산 마늘	344	475	898
(B)한국산 휴대폰	970	1,480	4,140
(C)한국산 폴리에틸렌	55,840	53,530	47,130
(D) = (B) + (C)	56,810	55,010	51,270
(D) - (A)	56,466	54,535	50,372

- 이번 중국의 급작스런 공산품 수입중단 조치는 원칙을 중시하는 중국이 마늘에 긴급관세를 부과했다는 사실만 갖고 핸드폰과 폴리에틸렌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대 한국 무역적자의 누적에 대한 중국 측의 불만이 총생산량의 0.2%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은 냉동·초산마늘 수출문제를 계기로 표출된 것으로 여겨짐.
- 즉 “마늘은 마늘로 풀자”는 논리보다는 궁극적으로 무역역조 개선을 겨냥하고 또 다른 품목에 마찰이 생길 경우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판단됨.
- 보복조치 시행에서 중국이 내세운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내 마늘 생산자 및

수출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갈수록 증가하는 대한 무역수지적자를 줄이고 양국간 교류가 늘어나면서 야기될 수 있는 한국의 대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무역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짐.

- 또한 WTO 가입을 앞두고 통상외교관례에 어긋난 일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국으로서 위신의 과시와 세력행사로도 해석됨.
- 금번 수입마늘에 부과된 긴급관세조치로 야기된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교훈은 우선 국내적으로 산업피해구제조치는 준 사법적 기관인 대한민국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WTO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따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조치라는 인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임.
- 산업피해구제 조치는 수입급증으로 인한 특정 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로서 국가 전체적인 무역수지에 기초하여 그 적절성이 판단 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러한 무역분쟁이 다시 발생 할 때는 가급적 원칙론에 입각하여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수입마늘에 취해진 산업피해구제조치는 WTO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모종의 양보가 쉽게 이루어질 경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결과가 될 것임.

마늘긴급관세 협상결과와 정책방안¹⁾

1. 중국과 마늘 협상 내용

1.1. 긴급관세부과 배경

- 중국과의 마늘 분쟁은 작년 9월 농협중앙회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음.
-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냉동마늘과 초산 조제마늘은 1996년에 2,911톤에서 1999년에는 22,229톤으로 8배 증가했음.
- 재정경제부는 작년 11월 18일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한 기본관세 30%에 잠정긴급관세 285%를 더한 3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기간은 200일로 정함.

마늘 수입량 변화

(단위: 톤)

	신선/냉장		건조	냉동	초산조제	총계 ¹⁾
	탈피(깐마늘)	기타(통마늘)				
1996	4,156		400	2,023	888	7,895
1997	12,939		48	3,768	1,633	19,702
1998	25,623		421	7,796	2,148	38,157
1999	14,355		641	18,598	3,631	42,302
2000 ²⁾	185	12	282	476	313	1,300

주 : 1) 각 분류별로 수출을 적용하여 추정된 신선마늘 중량임.

2) 1~5월 실적임.

자료 : 관세청.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연중 책임연구원(yjkim@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1999년까지 신선/냉장마늘의 HS 10단위 코드는 0703-20-0000으로 관리했으나, 깎마늘 수입이 증가하면서 2000년 1월부터 탈피(깎마늘)은 0703-20-1000, 기타(통마늘)은 0703-20-9000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1.2. 긴급관세부과 내용

- 최종적으로 결정된 중국산 마늘의 관세는, 깎마늘의 경우 증가세 436%, 종량세 2,180원/kg으로 인상되었고, 통마늘, 건조, 일시저장 마늘은 종전대로 증가세 376%, 종량세 1,880원/kg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됨.
-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은 기본관세 30%에 긴급관세 285%부과하여 총 315%, 여기에 산업피해구제제도 신청에 따라 증가세 1,887원/kg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다시 기본관세 30%로 재조정됨.

마늘 긴급관세부과 상황

(단위: %, 원/kg)

		신선/냉장		건조/ 일시저장	냉동/초산조제
		탈피 (깎마늘)	기타 (통마늘)		
'99. 9.30	마늘산업피해구제신청	380%		380%	30%
'99.11.18	잠정긴급관세부과	(1,900원)		(1,900원)	30%+285%
'00. 3.18	마늘피해구제방안결정	376%+60% (2,180원)	376% (1,880원)		30%+285%
'00. 6. 1	긴급관세최종결정				(1,887원)
'00. 7.	재협상				30%

- 중국산 마늘 수입물량은 연간 3만 2천톤, 이중 MMA물량 1만 2천톤은 신선/냉장마늘로 기본관세 50%로 수입되고, 나머지 2만톤은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로 30%의 저율관세를 수입되기로 했음.
- 위의 물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최종결정에 따라 운영됨.

- MMA 1만 1,895톤은 이미 신선마늘(통마늘)로 확보된 상태이고, 30%의 관세율로 수입될 냉동·초산조제마늘은 유통공사를 통해 들여와 건조마늘로 장기간 저장하거나, 별도 처리해 국내마늘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음.
- 그러나 앞으로 3년동안 MMA물량에 대해서는 매년 증가하여 2000년 1만 1,895톤, 2001년 1만 2,538톤, 2002년 1만 3,181톤으로 매년 늘어나고,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2만톤은 3년간 계속 들어오기로 되어있음.

2. 마늘 수급상황 및 가격변화

- 2000년 마늘 생산량은 47만 8천톤, 이월량 3천톤, 수입량 3만2천톤(MMA 12,000톤 포함), 민간수입예상량 5천톤으로 총 공급량은 51만 8천톤으로 추정됨.
- 중국과 협상에 의해 수입될 3만 2천톤을 몇 개의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보면, 시나리오 1은 3만 2천톤 전부 시장에 방출할 경우, 시나리오 2는 MMA물량 1만 2천톤만 시장에 방출하고, 나머지 2만톤은 시장과 분리, 시나리오 3은 3만 2천톤 전부 국내산과 완전 시장분리 시킬 경우로 구분함.
- 시나리오 1은 총공급량이 51만 8천톤으로 작년 50만 9천톤보다 2% 많은 수준이며, 금년산 마늘의 kg당 수확기 가격은 1,300원, 단경기에는 1,650원, 연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보다 약3% 낮은 1,570원, 내외로 추정됨.
- 시나리오 2는 총공급량이 49만 8천톤으로 작년 공급량보다 2% 적은 수준이며, 금년산 마늘의 kg당 수확기 가격은 1,450원, 단경기에는 1,800원, 연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1,710원 내외로 추정됨.

- 시나리오 3은 총공급량이 작년보다 5% 적은 수준이고, 금년산 마늘의 kg당 수확기 가격은 1,550원, 단경기에는 1,910원, 연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1,620원보다 15% 높은 1,850원 내외로 추정됨.

수입될 마늘에 대한 시나리오별 도매가격 변화 추정

(단위: 원/kg)

	공급량(톤)	연평균	단경기	수확기
시나리오 1	518,000	1,570	1,650	1,290
시나리오 2	49,8000	1,710	1,800	1,450
시나리오 3	48,6000	1,800	1,910	1,550

3. 협상결과와 정부정책

- 시나리오 2를 선택하는 경우 국내 연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710원으로 작년 1,620원보다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저율관세 30%로 수입될 2만톤이 시장과 분리되지 않고, 시장에 전부 방출하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와 비교할 때 kg당 연평균 도매가격은 140원의 가격차이를 보여, 국내생산량 47만 8천톤의 거래가격차는 약 670억원으로 추정됨.
- 거래가격 차액에 따라 정부는 농가손실 보상지원과 국내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천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마늘통상마찰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로부터 kg당 1,200원으로 무제한 수매하기로 함.
 - 마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1천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이 재원으로 마늘농가 출하조절 자금 540억원, 산지 농협수매자금 120억원, 마늘 생산·유통센터 운영자금 90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이와는 별도로 3년간 500억원을 투융자하여 씨마늘 갱신, 기계화 생산 등을 통해 마늘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로 함.

- 협상결과와 정책방향으로만 볼 때, 단기적으로 마늘생산 농가는 큰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장기적으로 경쟁력제고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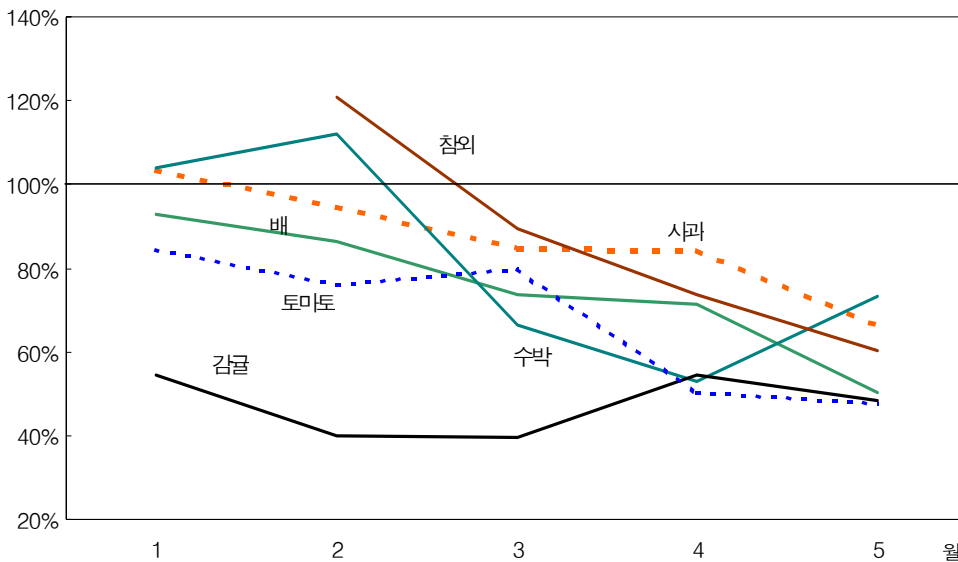
과일가격 하락의 원인과 대응방향¹⁾

1. 가격 및 물량동향

1.1. 가격 하락 실태

- 금년 과일값은 1월에서 5월까지 거의 모든 품목에서 하락하였음.
금년 가격은 작년과 비교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평년과 대비해 보아도 낮은 수준임.

주요 과일 월별 도매가격의 평년대비 비율



- 금년 5월 기준으로 볼 때, 과일류 가격은 평년 동기보다 36% 낮고, 작년 동기보다는 40% 낮은 수준임. 특히 배, 감귤, 참외,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의 가격수준이 낮은 데, 배는 평년보다 50% 낮고,

1) 이 자료는 이용선(yslee@krei.re.kr), 김병률, 최지현, 임정빈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감귤 52%, 참외 40%, 토마토 52%, 방울토마토 56%(작년대비)씩 각각 하락하였음.

- 5월 과일류 가격 하락은 참외, 수박, 토마토에 의해 주도되었음. 평년 가격에 대한 가격하락분을 100으로 할 때, 이 중 참외가 39%, 수박 26%, 토마토 14%을 차지하여 이들 품목이 과일류 가격하락분의 80%를 설명함.

과일류의 품목별 도매가격, 5월 기준

품 목	규 격	가격(원)	증감률(%)			
			평년대비	기여도	작년대비	기여도
사 과	15 kg	18,041	△37.8	6.0	△54.2	8.2
배	15 kg	21,291	△49.9	4.2	△63.5	5.4
포 도	6 kg	53,425	n.a.	n.a.	△24.2	n.a.
수 박	6 kg	4,900	△26.8	26.4	△31.0	26.2
참 외	15 kg	26,750	△39.8	39.2	△40.3	37.0
감 귤	5 kg	13,812	△51.5	4.0	△57.3	4.3
토마토	15 kg	9,895	△52.4	13.6	△52.3	12.7
방울토마토	5 kg	5,947	n.a.	n.a.	△55.9	n.a.
딸 기	8 kg	19,791	△6.2	6.6	△7.2	6.2
과일류전체	-	-	△36.4	100.0	△40.4	100.0

주 : 가락동 도매시장의 상품기준 월평균 도매가격임. 평년은 1995~99년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2 물량 동향

- 과일 공급물량은 평년보다 35%, 작년보다 37% 늘어났음. 사과, 배, 포도, 수박, 참외, 감귤, 오렌지 등의 물량 증가율이 특히 높는데, 평년에 비해 사과 38%, 배 90%, 포도 96%, 수박 43%, 감귤 53%씩 각각 물량이 늘었고, 오렌지는 평년의 2.3배, 작년의 6.7배나 증가하였음.

과일류의 품목별 가락도매시장 반입량 증가율, 5월 기준

(단위 : 톤, %)

품 목	물량(톤)	평년대비 증 가 율	작년대비 증 가 율
사 과	2,676	37.6	81.7
배	1,200	89.5	149.4
포 도	609	95.6	35.7
수 박	19,040	42.5	35.9
참 외	10,673	25.3	41.3
감 귤	571	52.5	90.5
토 마 토	7,882	25.2	13.1
딸 기	2,015	33.3	52.6
오 렌 지	4,079	233.0	665.0
바 나 나	2,620	19.2	13.5
과일류 전체	51,366	41.2	45.1

주 : 가락동 도매시장 반입량 기준. 평년은 '95~'99년간 5년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 가격하락의 원인

2.1 국내산 과일의 공급량 증가

- 금년 과일값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급량의 증가에 있음. 금년 과일값 하락폭이 가장 컸던 5월의 가락동 도매시장 반입물량은 51,366톤으로, 이 물량은 예년보다 14,988톤이 더 많은 양임.
- 과일 공급 증가량은 수박이 5,674톤으로 전체 과일 공급증가분의 38%를 차지하고 다음은 오렌지 2,854톤(20%), 참외 2,157톤(14%), 토마토 1,587톤(11%) 순으로 많음.

과일류의 품목별 가락도매시장 반입물량, 5월 기준

(단위 : 톤, %)

품 목	금년물량	비중	평년물량	평년대비 증가량	기여도
사 과	2,676	5.2	1,945	731	4.9
배	1,200	2.3	633	567	3.8
포 도	609	1.2	312	298	2.0
수 박	19,040	37.1	13,366	5,674	37.9
참 외	10,673	20.8	8,516	2,157	14.4
감 굴	571	1.1	375	197	1.3
토 마 토	7,882	15.3	6,295	1,587	10.6
딸 기	2,015	3.9	1,512	503	3.4
오 렌 지	4,079	7.9	1,225	2,854	19.0
바 나 나	2,620	5.1	2,199	421	2.8
계	51,366	100.0	36,377	14,988	100.0

- 과일 공급량이 늘어난 이유는 신선과채류의 생산량 증가, 사과, 배 등 저장과일의 저장량 증가, 오렌지, 바나나 등 수입과일의 물량 증가 등에 있음.

□ 생산량 증가

- '99년산 사과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7%(31천톤) 증가한 490천톤이었고, 감굴 생산량은 해결이 현상때문에 전년보다 22%(112천톤) 증가한 624천톤이었음.
- 금년 수박, 참외 등 과채류 물량이 증가한 것은 재배면적이 2~ 6% 늘어났고 1~2월의 저온현상으로 조기재배에 의한 출하가 늦춰졌고 예년에 6월 출하물량이 앞당겨지면서 4~5월에 일시에 공급되었기 때문임.

□ 저장량 증가

- 저장과일인 사과와 배의 저장량은 예년보다 많았음. KREI 농업관측센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과 저장량은 작년보다 12~17% 많았고 배 저장량은 13~19% 정도 많았음(농업관측월보(과일) 4~7월호 참조). 금년 과일 저장량이 많았던 것은 작년 사과, 배 값이 유례없이 높았고, 감귤 출하량과 수입과일 물량이 많아 가격이 하락하자 출하시기를 지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2.2 수입과일의 큰 폭 증가

- 외국산 과일 수입은 큰 폭으로 늘었는데, 특히 오렌지 수입량은 1~5월간 74,398톤으로 작년의 4.4배, '97~'99년 평균의 약 2.6배이고, 바나나 수입량도 30% 정도 증가하였음.
- 금년 과일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수출국의 풍작으로 수입단가가 내렸고, 환율이 작년보다 약 10% 내렸으며, 관세도 떨어졌기 때문임. 오렌지의 경우, 미국의 풍작으로 작년보다 수입단가 55% 하락, 환율과 관세도 각각 10%, 4.9% 하락함.
 - 포도수입량도 1~3월간 작년보다 49% 늘었으나 칠레의 지중해과실 파리 발생으로 칠레 주산지에 대해 수입 금지조치를 취함으로써 4월 이후 수입량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고 있음.
- 5월 기준으로 과일시장에서 수입오렌지의 물량 점유율은 약 8%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바나나는 5%을 차지하여(표3), 이들 수입과일 물량이 수박, 참외, 토마토 다음을 점하고 있음. 이는 수입과일이 과일시장에서 가격변동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2.3 소비 및 유통측 요인

□ 저장과일 등 품질 하락

- 금년 5월까지 공급된 과일의 품질은 사과, 배 등 저장과일 뿐만 아니라 수박, 참외 등 신선과채류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음. KREI 농업관측센터의 5월초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과의 품질에 대해 좋음 22%, 보통 48%, 나쁨 30%로 나타났고, 배의 품질에 대해서는 좋음 9%, 보통 55%, 나쁨 37%로 나타남. 수박, 참외 등 과채류는 1~2월과 4월의 저온현상으로 조기 출하품의 품질이 좋지 않았음.
- 저온현상 등 4, 5월의 일기가 불순하여 과일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었으며, 국산과일의 품질이 낮아 외국산 과일, 특히 품질이 좋았던 수입오렌지가 대비되어 소비대체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됨.

□ 소매업체의 구매원가 절감 노력 강화

-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출점이 급증하여 경쟁이 격화되면서 신선농산물의 구매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산지의 생산·유통 조직화가 아직 미흡하여 교섭력에 한계가 있어 생산자 판매가격과 소비자 구매가격의 격차가 커짐.
- 과일류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대비 25.2% 하락하였으나 생산자물가지수는 35.3% 하락하여 10% 포인트 이상 차이남.

과일류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지수의 작년대비 하락률, 5월 기준

소비자물가 하락률	생산자물가 하락률
△25.2	△35.3

자료 : 한국은행

3. 가격하락이 소득에 미친 영향

- 금년 과일가격의 하락으로 과일재배농가의 소득은 크게 줄었을 것임. 본 자료는 과일 가격하락폭이 큰 시설수박, 참외, 시설토마토 등 과채류와 하우스감귤의 성출하기인 4월과 5월을 대상으로 가격하락이 소득에 미친 영향을 추계함.

과일 가격하락에 의한 품목별 소득감소액

품 목	10a당 조수입	10a당 소득	10a당 소득 감소액	농업소득 감소액
시설수박	1,775천원	768천원	△976천원	△73,481백만원
참 외	3,525	2,184	△1,695	△106,830
하우스감귤	6,024	△4,745	△8,210	△32,339
시설토마토	3,077	688	△2,762	△73,669

주 : 4, 5월 재배면적은 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을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 소득 산출시 생산액에 대해 상품화율 적용.

자료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1999.7

- 가격 하락폭이 컸던 수박, 참외, 감귤, 토마토의 경우, 10a당 소득은 98만원~820만원 줄었고, 총농업소득은 324억원~1,068억원 감소하였음. 단위면적(10a)당 소득 감소폭은 감귤 8,210천원, 토마토 2,762천원, 참외 1,695천원 순으로 크고, 재배면적을 고려한 총농업소득의 감소폭은 참외 1,068억원이, 토마토 737억원, 수박 735억원 등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다만 6월 이후 과일가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총소득 감소액은 여기서 추계한 액수보다 적어질 것임.

4. 수급 전망

□ 국내 과일 생산은 과잉기조 심화

- 국내산 과일의 생산량은 과잉기조가 심화되고 있음. 배는 성목면적이 금년에 14% 늘어나 생산량은 2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포도, 감귤, 단감 등 다른 과일의 생산량도 수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시설면적은 연평균 2~3%씩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수박, 참외 등 과채류의 생산량도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외국산 과일 수입 증가

- 오렌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졌고 향후 환율도 하락할 전망이다. 관세는 매년 4.9% 인하되어, 오렌지 수입량은 내년 이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포도, 키위, 사과 등 과일에 대한 관세가 하락하여 수입이 증가할 것임.
- 중국의 WTO 가입으로 사과, 배, 포도 등 중국산 과실에 대한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종합 판단

- 최근의 과일·과채류의 가격 하락은 국내 과일·과채류의 생산 과잉구조와 오렌지 등 외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농산물의 소비 대체, 소매점들의 농산물 구매가격 인하압력 등 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
- 따라서 단기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대응방향

- 최근 과일수입의 큰 폭 증가와 과일가격의 약세 현상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첫째, 과일간 소비의 대체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어떤 과일 수급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 곧 다른 과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둘째, 외국산 과일과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함.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1) 맛에 대한 경쟁력 제고

- 맛 등 품질이 우수한 상품일수록 중하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과일 등 대체재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남(표 6 참조). 따라서 좋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과나 배는 검정봉지 등 색깔봉지 씌워 선택만 익은 것처럼 출하하거나 지베를린(GA) 처리하지 말아야 하고, 포도는 박피(剝皮) 재배를 근절하며, 감귤은 하우스재배시 관수를 억제하고 노지재배는 적정 생산을 하도록 하여야 함.

주요 과일의 등급별 가격하락률 비교, 5월 기준

(단위 : %)

품 목	상 품	중 품	하 품
사 과	△54.2	△59.2	△61.8
배	△63.5	△70.6	△77.8
수 박	△31.0	△28.8	△30.7
참 외	△40.3	△48.4	△52.7
감 귤	△57.3	△64.4	△72.8
토마토	△52.3	△55.6	△56.4
딸 기	△7.2	△3.5	△13.2

(2)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홍보

- 품질 등급에 의해 규격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함. 수입과일은 표준규격화가 잘 되어있어 대형유통업자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 재선별이나 운반 등에 필요한 물류비용이 줄고 거래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임.
- 포장지에 당도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산과일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입과일과 차별화함.
- 브랜드를 개발하고 조직적으로 홍보하며, 과일의 기능성 등을 예산을 들여 홍보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함.

(3) 규모화, 단지화된 품목, 지역을 중심으로 상향식의 생산자조직 육성(품목전문조합)과 자율적 출하조절시스템 구축

- 공동출하-공동계산(pooling)을 실시하는 조직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품목별 연합회로 확대 발전하여 생산·출하량을 조절하고 나아가 품목별 유통협약 실시로 자율적 품질조절, 출하조절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 비파괴 선별시설의 개발을 촉진하여 브랜드화하여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미국의 선키스트 판매협동조합은 농가와의 철저한 수직계열화로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실시하고 철저한 품질관리, 등급표준화, 브랜드화로 고급오렌지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공급과잉 정도에 따라 신선, 가공비율을 조절하여 공급함으로써 수취가격을 높이고 있음.

(4) 「광역 관측시스템」의 구축

- 과일간 소비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생산자나 정책담당자는 특정 과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국내산 과일은 물론 수입과일을 포함하여 과일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관측 품목을 확대하고 세계 관련국의 과일 작황과 가격동향도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광범위한 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 경보”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과일, 과채류 등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자조금제도 적극 도입

- 개정 농안법에 의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생산자단체 주도의 소비촉진을 위한 자조금제도의 도입으로 국산 농산물의 신선·가공품의 소비 확대, 수출시장 개척 및 홍보, 가공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함.

(6) 여건에 맞는 소득안정 프로그램 실시

- 캐나다가 실시하고 있는 공동계산지원프로그램(Price Pooling System; PPS) 등 유통개선과 소득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과수 등 재해피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여건에 맞는 소득안정 프로그램을 검토·개발하여야 함.

6.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 검토

6.1 산업피해구제제도

- 산업피해구제제도(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 관련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령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임.

- 향후 시장개방의 확대와 무역자유화 추세에서 특정 과일의 급격한 수입량 증가로 해당 품목 생산농가의 피해 발생시 면밀한 조사와 검토 체계를 구축하여 동 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 최근 수입오렌지의 수입 급증으로 이와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감귤산업에 대한 동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 비록 최근 오렌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 감귤가격인하락이 주로 오렌지 수입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인과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 불충분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수입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절한 시기에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6.2 감귤 산업에 대한 피해구제제도의 활용 가능성 검토

6.2.1. 오렌지 수입 현황

- 오렌지 수입은 작년 12월부터 급증하였음. 작년 12월에 1만 1,863톤이 들어오고, 금년 1~5월에 총 74,398톤이 수입되었음. 금년 수입량은 작년 대비 4.4배, 평년대비 2.6배에 해당하는 물량임.
- 작년 12월 오렌지 수입물량이 많았던 것은 MMA물량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입되었기 때문임. 오렌지 수출국인 미국의 한파로 흉작이었고 남아공 네블 오렌지를 도입하려했으나 검역문제로 통관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제주감협이 MMA 물량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2월에 대량 수입하게 되었음.

오렌지 수입량

(단위 : 톤, %)

월	1997	1998	1999 (A)	2000 (B)	97-99 평균(C)	작년대비 증감률 (B/A)	평년대비 증감률 (B/C)
1월	1,271	179	791	2,389	747	202.0	219.8
2월	1,826	2,664	633	13,041	1,708	1960.0	663.6
3월	5,591	1,366	2,075	10,733	3,011	417.2	256.5
4월	9,762	12,307	2,943	25,229	8,337	757.2	202.6
5월	3,786	8,738	7,269	23,006	6,598	216.5	248.7
6월	773	4,699	3,260		2,911		
7월	10,005	3,349	93		4,482		
8월	1,900	737	400		1,012		
9월	1,251	1,085	1,880		1,405		
10월	589	252	694		512		
11월	215	225	114		185		
12월	654	1,052	11,863		4,523		
합계	37,623	36,653	32,015	74,398	35,430		

6.2.2. 감귤산업에 대한 피해구제제도의 활용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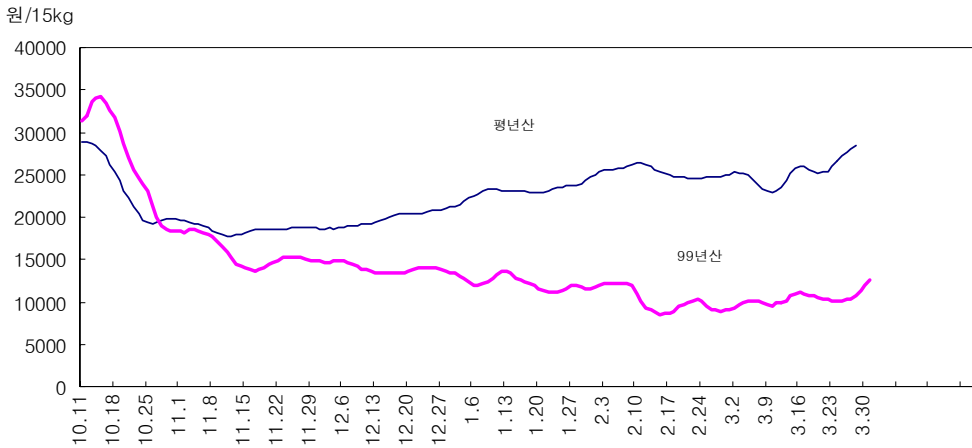
- 감귤 가격은 10월부터 이미 큰 폭으로 하락하여 오렌지 수입이 예년보다 증가한 12월 이전에 이미 하락 기조였음. 특히 11월중 가격 하락폭은 예년에 비해 매우 컸음. 작년 감귤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감귤과 배 등 국내과일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 이 분석결과로 판단할 때, 오렌지수입의 증가가 감귤가격 하락의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예년에는 12월 이후

감귤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나, 99년산 가격은 하락하였다는 점에서는 오렌지 수입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최근 오렌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 감귤가격하락이 오렌지 수입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인과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 불충분하다고 판단됨.

※ 산업피해구제조치의 기본적 충족요건인 수입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와 원인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감귤도매 가격의 변동 추세



감귤 도매가격의 전기대비 증감율

단위 : %

	10월중순 /하순	10월하순 /11월상순	11월상순 /중순	11월중순 /하순	11월하순 /12월상순	12월상순 /중순	12월중순 /하순
99년	△32.1	△17.9	△21.2	7.0	△3.6	△8.4	3.4
96-98 평균	△16.2	△2.5	△2.3	△2.5	2.6	0.6	5.4

- 현 시점에서 산업피해구제(세이프가드)를 신청하고 증거부족으로 무역위원회가 이를 기각할 경우, 대외무역법상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음. 금년 감귤 수확기에 오렌지가 대량 수입되더라도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향후 수입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절한 시기에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감귤 산업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검토 사항

- ① 오렌지와 감귤의 소비대체관계로 “동종 여부” 적용가능 (대외무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 WTO 세이프가드(SG)협정 제2.1조
- ② 국내산업을 감귤농가에 국한되므로 “산업범위” 적용가능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제도 운영 규정 제2-1조) ※ WTO SG협정 제4.1조 c
- ③ 오렌지 수입 급증으로 “대상품목의 절대적 수입 급증” 충족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제도운영에 관한규정 제2-3조) ※ WTO SG협정 제2.1조
- ④ 오렌지수입으로 오렌지 시장점유율 증가, 국산감귤 가격하락,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 검토 필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 WTO SG협정 제4.1조 a,b 및 제4.2조 a
- ⑤ 오렌지 수입증가로 “수입증가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우려 간의 인과관계 성립” 검토 필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 b

부 록

○ 2000년 2/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

#별첨: 한·중 마늘분쟁 관련 언론 보도동향

2000년 2/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¹⁾

1. 개 황

- 2월부터 6월 중순까지 계속된 가뭄으로 남부지방 강수량이 예년의 50% 이하로 밀들면서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전남지역에서는 밭작물 재배면적의 61%가 고사해 피해액이 3백억원대에 달한다는 보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밭작물 피해 소식이 잇따랐고 모내기도 차질을 빚었음.
- 7월1일 통합농협 출범과 관련해 각 신문들은 농협지역본부의 직제개편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농축인삼협중앙 통합에 따른 사전준비 미흡으로 통합전산망 구축과 인력 재배치 등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이와함께 통합농협 출범을 계기로 협동조합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통합과정에서 빚어진 조합원간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협동조합 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2단계 질적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논평.
- 5월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과채류 가격폭락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된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방울토마토 재배농가들이 가격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충북과 제주에서는 농민단체가 오렌지 수입의 폭발적 증가로 과일생산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기업과 수입상들의 농산물 수입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 중국산 마늘 긴급관세부과 조치와 관련, 마늘 주산지인 전남지역 농민단체와 생산농가들이 7월6일 중국과 30%의 저율관세로 2만톤 수입을 합의하

1) 이 자료는 농정분석실 김동원 연구원이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의 농업관련 이슈를 선정하여 요점을 정리한 것임. 이 자료의 기초가 되는 「지방일간지 농어촌 관련 주요기사」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며,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에서 볼 수 있음.

이 자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e-mail: dongweon@krei.re.kr로 연락바람.

자 거세게 반발하며 재협상을 요구. 또 이번 마늘 분쟁으로 인해 전남지역에서만 5백억원~6백억원 정도의 수입감소가 전망된다며 피해농가 보상도 요구. 이밖에 창녕과 옥천 등 각 지역에서도 마늘 분쟁 이후 구매를 기피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수확도 차질을 빚는 등 생산농가 타격.

- 축산분야는 구제역 여파로 대일 돈육수출이 막히면서 김제 육가공공장 등 육가공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고, 충남지역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을 2백33억원으로 잠정 집계. 한편, 구제역으로 하락했던 축산물 가격은 5월들어 구제역 이전 수준까지 회복.
- 닭고기와 계란값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양계농가의 피해가 계속된 가운데 5월초에는 전국적으로 닭 뉴케슬병까지 번져 다시 한번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가중 시킨가운데, 양계농가는 닭 전염병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한편,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기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
- 이밖에 농어촌사회복지 분야는, 농촌지역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약분업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도서지역 주민들이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고 의약분업 대상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 한편 농촌지역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시설확충이 절실하다는 여론도 있었고, 폐농기계와 농기계 폐유 수거가 부진해 농촌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 이와함께 전남경찰청이 농촌지역 파출소 47곳을 통폐합하기로 하는 등 각 지역 경찰청이 농촌지역 파출소 통폐합을 추진하자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산물 도난 등 치안 공백을 우려하며 강력히 항의. 또한 전북지역 중학교 3백20곳중 17%만 양호교사가 배치돼 있는 등 농어촌지역 학교에 양호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전염병과 응급환자 발생시 속수무책이라는 지적도 제기.

2. 지역별 농업 관련 보도 내용

2.1. 경기도

- IMF 영향으로 경기지역에 귀농해 정착했던 도시 실직자들이 경기가 풀리면서 다시 도시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 농업인 수가 2년새 2만5천여명이나 감소. 또 경기지역에서 1분기 동안 농축산물 직거래사업을 통한 거래액이 1천2백76억원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나 증가했으며, 올 목표 8천3백억원 달성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3백62곳으로 늘리고 성남에 물류센터도 건립키로.
- 경기도는 농업경영인과 농협조합원중 여성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교육 지원액도 타도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의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1백여 농가의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
- 구리, 안산 등 경기도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미지급금이 수억원에 달해 부도시 농가 피해가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경기도는 7백13억원을 들여 수원에 1만2천여평 규모의 제2 농수산물물류센터를 건립키로 했다고 발표. 이와함께 평택과 안성지역 농업인들의 농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협 및 작목반 40개가 품질인증 획득.
- 경기농협이 올해 과일 생산량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포도와 배가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배는 작년산도 남아돌아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고 분석. 한편, 경기지역의 한약재 유통이 문란해 도매업소 70%가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으로 단속돼 위반율이 전년의 10배에 달한다고 보도.
- 화성지역 축산농가들은 정부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기피한 채 가축마다 발생지 표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분개했고, 구제역 사태가 종료되자 이번엔 양주에서 소결핵과 기종저가 발생해 외부인 차량 통행 금

지와 긴급 방제에 나섰다고 보도.

2.2. 강원도

- 강원도가 쌀 재고 5만톤을 방출하지 않으면서 시중 쌀 값이 올라 양구 지역에서 80kg 가마당 18만5천원으로 작년 같은기간 보다 6천9백원 상승했고, 양구군은 청정쌀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보조농약 지원을 중단.
-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에 대해 시가 비상장 품목의 편법거래를 묵인하는 반면 일반 상인들에겐 원칙에도 없는 별칙 수수료를 12%나 부과해 말썽을 빚고있는 가운데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채소부 중도매인들은 높은 경매 수수료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산물 경매제를 도매상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 철원지역에서 농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올해 유기농과 무농약 재배의 품질인증 출하계획량이 24건에 3백80톤으로 작년의 두배에 달하고, 인제지역에서는 특산품 가공업체가 홍보 미비와 취약한 유통구조로 인해 치커리 판매액이 목표액의 35%수준에 그치는 등 부진.
-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경영개선자금은 신청자가 몰려 30%만 배정을 받는가 하면 신청자가 적은 상호금융 자금은 과다 책정돼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원주시는 원주천 둔치에 매일 오전 7시에 개장하는 농산물 새벽시장을 개장, 2백여명의 농업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거래한다고 보도.
- 강원도 평창지역에서는 올 감자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97만여평이나 증가해 과잉생산이 우려된 가운데, 삼척지역에서는 6월말 감자 20kg 한상자에 7천원 선으로 작년의 절반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마늘도 접당 4천원으로 작년 9천원의 절반에도 못미쳐 농가 소득이 큰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

- 강원도가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가축시장 폐쇄조치를 연장하자 축산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평창지역에서는 구제역 파동으로 일본에 수출키로 했던 대관령 한우 6백마리의 수출계약이 취소돼 사육농가가 타격.
- 횡성지역 31개 초중고교에 영양사는 15명에 불과해 농촌지역학교 급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고, 강원도는 농촌정보화 지원을 위해 원주시 소재 시범마을 2곳에 컴퓨터 1백10대를 설치하고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교육을 실시.

2.3. 충청북도

- 충북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수립한 '21세기 충북농업·농촌의 발전전략'을 7월초 확정, 발표. 이 계획은 모두 4개 권역으로 나눠 10년간 3조5천억원을 투입해 10개의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이면 가구당 농가 소득이 1999년 대비 58.7% 증가하고 농산물 수출액도 5.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충북지역에서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연간 4천여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방지 대책이 요구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기능성 농특산품 벤처농업이 급성장세를 보여 44개 품목으로 연간 53억8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보도. 반면 음성과 진천지역에서는 환경농산물표시 사용 신청이 39건 1백17농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신고 규정을 무시한 채 품질표시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농업 육성이 겹돌고 있다고 지적.
- 하락세를 거듭하던 채소값이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반입량 급감으로 6월 하순 1주일새 배추의 경우 1백20%, 무는 42%가 오르는 등 대부분의 품목이 급등세를 보였고, 역시 장마 영향으로 보은지역에서는 고추역병이 확

산, 전체 재배면적의 5% 정도가 피해.

- 최근 과일값 하락과 관련, 농업경영인충북도연합회는 수입농산물 반입중지 촉구 성명을 통해 “오렌지 수입 폭발적 증가로 과일생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기업과 수입상들의 자제를 촉구.
-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감과 구제역 파동으로 충북지역의 한우 사육이 전년보다 17% 감소한 가운데 충북도는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해 고급육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1등급 출현율을 현재 20%에서 2004년까지 40% 이상 높이겠다고 발표.
- 또한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지원책이 부실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 이와관련 음성지역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예방접종 축우에 대한 낙인 표시 지침에 대해 작업시 유·사산과 폐사가축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고 스트레스에 의한 증체율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량 수매를 요구.
- 괴산군 보건소가 농촌여성 1만여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중 40%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여성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 한편 농기계 폐유 수거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하천 등에 마구 버려지고 있어 농촌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별 저장소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

2.4. 충청남도

- 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 농업인들은 보조금과 수익이 적은 반면 지원 조건은 까다롭다는 이유로 전체 대상농지 8백ha중 신청농지가 전년보다 줄어든 48ha에 불과해 지원조건 완화 등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의 농가빚 경감대책이 홍보 부족으로 신청접수 결과 목표

의 50%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충청지역 농산물 유통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전농산물물류센터 기공식이 5월 하순 있었고, 충남지역의 농업회사법인 77곳을 대상으로 경영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18곳은 연평균 순소득이 1천만원 미만이고 13곳은 운영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대책 시급.
- 조치원에서는 오렌지 수입 등의 영향으로 6월초 방울토마토 가격이 작년 같은기간의 50% 수준에 출하됐고, 수박도 35% 가량 낮은 값에 거래돼 과채류 재배농가의 어려움 가중. 또 부여와 논산지역 과채류 재배농가들은 5월 하순 가격 안정대책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한편 올해 충남지역의 마늘 농사는 풍작으로 생산량이 3만7천여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95년 이후 최대 생산량 기록할 듯.
- 충남지역 축산농가들이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에 불안감을 느껴 한우사육 두수를 계속 줄이면서 공주지역에서는 작년말 현재 사육농가 15.4%, 사육두수 17.7% 감소한 것을 비롯해 충남지역 전체적으로는 지난 1년새 사육두수 12.6%가 감소.
- 천안지역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제도’가 품삯이 2만4천원에 불과하고 여성농업인 가운데 가입여성이 거의 없어 출산여성을 대상으로한 시범 사업에 신청자는 고작 1명에 그쳤다고 보도.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주최한 워크숍에서 농촌여성 68%는 심한 노동과 신경과민, 산후조리 부실 등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농촌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보도했고, 공중보건의 배정이 시 단위까지 확대되면서 농촌지역 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환자들도 대도시 병원을 선호하면서 서천지역 농촌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50%선을 밑돌고 있어 운영난 가중.

2.5. 전라북도

-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0년째를 맞아 다시 재연된 개발과 보존 논쟁에 대해 최근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해 지면서 이지역 신문들도 결과에 촉각. 신문들은 환경단체의 반대 움직임과 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주장을 연이어 게재하면서 전북지역 43개 시민단체들은 간척사업 계속추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여론 형성에 다수의 지면 할애.
- 전북도는 2004년까지 5조1천억원을 투입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 10대 추진 전략을 골자로한 ‘전북농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고, 이지역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고조돼 농산물 품질관리원 김제출장소가 생산량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들어 5월 현재 32개 품목 8백3톤으로 전년보다 1백34%나 증가.
- 전북농업기술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2004년까지 생산비 절감을 위한 특수 시책을 통해 쌀 생산비를 현재의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완주지역에서는 임업후계자의 선발요건이 까다롭고 지원액도 적어 시행 10년 동안 6명만 지정되는 등 임업후계자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 한편 장수지역 농업인들은 수송비 등 경제적 부담과 ‘투명한 거래’가 보장되는 산지경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 과채류가격 폭락여파로 전주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4월말 현재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지만 매출액은 예년의 3분의1에 그친 가운데, 전주농산물도매시장이 대형 할인점의 시장 잠식과 관리·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 대처 미흡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 정읍지역에서는 농산물 중간상인들이 농작물거래 표준계약서 작성을 외면하고 구두계약을 고집, 값 떨어지면 농작물 방치 등 횡포를 일삼아 발매기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익산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연간 거래실적 5백억원에도 불구하고 저온저장고 부족 등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도가 낮다고 지적.

- 전북지역 1백73개 농촌특산단지중 작년 한 해 운영부실로 28곳이나 단지 지정이 취소되는 등 부실화되고 있어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전북지역의 농산물 수출이 부진해 5월까지 3천5백만달에 그쳐 작년 같은기간의 66%에 불과.
- 전북지역 축산농가들이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사육규모를 3개월 새 한우 1만7천여마리나 줄이는 등 사육규모 축소·포기가 잇따랐고, 국내 최대규모의 '목우촌 육가공공장'이 구제역 여파로 수출용 돈육 가공을 중단하면서 양돈농가들이 판로가 막혀 타격.
- 정읍지역 14개 농촌보건지소가 진료비와 운영비의 자체수입 조달로 기초 의약품 구입조차 어려운 곳도 있어 농어촌지역 의료 사각지대화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익산지역에서는 농업인들이 농기계 폐유를 무단 방치하거나 투기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수거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2.6. 전라남도

- 전남지역에 가뭄이 장기화 되면서 밭작물의 61%인 4만2천여ha가 고사했고, 수확량도 보리는 30%, 마늘은 15% 감소될 것으로 전망돼 피해액이 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전남도가 정부에 피해 복구자금 3백30억원을 요청. 한편 농업인력이 점차 노령화·부녀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인중 여성농업인은 전체의 8%에 불과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지적.
- 전남도는 농가부채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시설하우스와 축산 등 각 분야별 부채원인 진단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파장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농산물 수

입은 연간 1천만달러씩 증가해 농가에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공산품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한편 각종 개발 명목으로 전남지역에서 매년 8백여ha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도 보도.

- 전남지역에서 5월말 현재 농협을 통한 농산물 수출액이 1천만 달러를 넘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수출단가가 낮아 수익성 면에서는 극히 저조했고, 이와관련해 전남도는 농축산물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인터넷 무역중계 활성화와 수출 전문단지 육성, 수출 품목의 다양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음.
-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과일류 가격전망 발표를 통해 7월 이후 수박과 참외값은 오르고 배와 사과값은 내릴 것으로 예상. 한편 진도지역의 대과재배면적이 작년보다 10%정도 늘 것으로 조사돼 과잉생산 우려.
- 전국 마늘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남지역에서는 마늘 분쟁과 관련해 중국과 협상 난항으로 중간상들의 구매가 끊기면서 가격이 폭락, 지난해보다 5백억원~6백억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 한편 7월6일 30%의 저율관세로 2만톤의 마늘을 수입하기로 중국과 합의하자 농민단체와 생산 농가들이 정부에 거세게 항의하며 재협상을 요구.
- 전남도는 내년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해 '고흥 유자골' '함평 천지' 등 5천2백여 마리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육성에 나서기로 했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기준가 90만원 보다 실거래 가격이 높게 형성돼 가입 두수가 계약목표의 62%인 3만8천여마리에 그쳤다고 보도.
- 전남경찰청이 농어촌지역 파출소 47곳을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농업인들이 농산물 절도사건 빈발 등 농촌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전남지역의 농기계 보유대수가 49만6천여대에 달하나 폐윤활유 위탁처리 업체는 3곳에 불과하고 폐기물 예치금제도도 유

명무실해 농촌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각 마을에 폐유 보관통 비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2.7. 경상북도

- 경북도는 환경농업 육성을 본격화 하기 위해 올 1백67억원을 투입, 면단위에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비롯해 친환경 가족농단지 4곳 조성 및 친환경농업지구 사업 승인 등을 역점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
- 영덕지역의 단위농협 7곳중 출자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한 곳이 3곳에 그치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으나 부실조합 통폐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단위농협 구조조정 여론 팽배.
- 경산지역에서는 농조 등 물관리조직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된 후 농조 적립금이 공사로 귀속되면서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경지정리지구 퇴적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보도.
- 영천지역에서 마늘 중간상들이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 이후 관망자세로 돌아서 매입을 기피하고 있고, 의성과 안동지역에서는 마늘 재배농가들이 재고 누적과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인하 조치가 전망되면서 헐값 투매 현상 등 마늘산업 위기감이 고조. 한편 합천지역에서는 4월 중순 저온현상으로 배 작목반 95%가 냉해 피해를 입었고, 울산에서도 배 과수원 절반 가량인 7백60여ha가 피해.
- 5월 하순 봉화지역에 닭 뉴캐슬병이 발생해 한농가서 2만여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긴급 방역 실시한 가운데 7월초에는 가금티프스까지 발생해 2만2천여마리가 폐사. 이와관련해 양계농가에서는 닭 뉴캐슬병·가금 인플루엔자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무분별 시중유통 등으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닭 전염병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

- 경북 농촌지역 결식학생 수가 올해 98년보다 3천여명이 늘어난 1만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고, 농촌지역에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보육료도 월 15만원선으로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어 농촌 주부들이 농번기에라도 한시적으로 마을회관 등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
-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 경북지역에서는 올해 26곳 등 2년 새 1백4곳의 학교가 통폐합 됐으나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곳곳에서 장시간 통학으로 불편을 겪었는가 하면, 폐교에 대한 재활용 대책도 없어 그대로 방치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

2.8. 경상남도

- 작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농가경영 컨설팅’사업이 농가의 인식부족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고작 10건 신청에 그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한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할당된 범위 내에서만 소극적으로 추진, 올해 1천7백여농가 7백34ha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과 운영이 6월부터 민간에 개방된 이후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민간업자의 건립신청이 있었으나 시에서 배수로 등을 문제삼아 불허 조치가 내려지자 업자가 행정소송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고, 함안 지역 9개 위탁영농회사들이 농기계값 상승과 위탁면적 감소, 경영자금 지원 중단 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도 보도.
-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이후 중간상인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거래가 없어 마늘 수확 후 모내기를 해야하는 2모작 농가들이 수확지연으로 모내기에 차질을 빚었고, 양파까지 중간상인들의 매입기피 현상을 보이면서 연쇄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
- 신선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은 증가해 3월말 1천3백88만 달러어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딸기는 한달새 6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장미 수

출도 잘돼 3월말 현재 2백만 송이로 작년 같은기간 보다 3.3배나 증가.

- 산지 소와 돼지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5월초에는 수소 5백kg마리당 2백 78만원선까지 거래돼 구제역 발생 이전보다 10%정도 상승했고, 돼지도 1백kg당 17만원 선으로 구제역 영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
- 합천지역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대한 농가의 호응이 저조해 신청 기간을 2차례나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1만두 가입 목표의 66% 신청에 그쳤고, 진해지역 육가공업체들이 구제역 파동 이후 수출 중단 등으로 매출액이 파동 이전의 25% 수준에 그쳐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보도.
- 경남지역에서 사용된 농업용 비닐은 전년보다 1.6배 증가했으나 폐비닐 수거는 전체의 1.1%에 불과한 3천2백39kg에 그쳐 농촌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 한편 경남도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생겨난 폐교를 무공해 공장으로 분양하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10개업체가 18곳 입주를 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하면 진주시는 폐교를 컴퓨터 교육장과 농민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사이버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

2.9. 제주도

- 제주도가 감귤농가당 출하액의 1%이내 범위에서 징수해 출하조절과 소비 촉진 홍보 등에 활용하는 감귤자조금제도를 본격 추진키로 하고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제주감협은 작년산 감귤 생산량이 총 63만8천7백톤에 달하고 수출액은 1백만달러를 넘었다고 발표. 한편 농업경영인연합회는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요청한 감귤 피해구신청이 농협에 의해 묵살 됐다고 주장하며 반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유통명령제 등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시범사업이 벼·사과·배 등에 한정 실시돼 제주지역의 주요작물인 감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제주대 농과대학과 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가 6월 하순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농업경영인 위탁교육,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

- 제주농협이 협동조합 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한 9개 조합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작목반이 전속 출하처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소비 지 시장 조사를 위한 방문 횟수가 미미하고 선별·포장 전문인력 이용도 2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 남제주 농업기술센터가 이지역 당근 재배의향면적을 조사한 결과 1천24ha로 조사돼 생산량이 적정량 보다 25%나 많은 4만여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또 이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면적이 5년새 42%나 증가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쌀과 보리 등 식량작물은 각 12.5%, 46.4%나 감소. 한편 마늘 생산농가들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경제논리 앞세워 농업을 죽이려 한다”고 강력 반발.
- 6월 중순 제주지역에서 송아지 가격이 마리당 90만원 선으로 구제역 발생 이전보다 20만원정도 높게 형성됐고 도축 물량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육가공업체들은 정부에서 돼지고기에 대해 6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수매기로 하자 수매기준에 부합한 물량은 25% 정도에 그친다며 완화해줄 것을 요청.
- 남제주지역 농촌도로 3백55km중 절반이 넘는 2백38km가 아직 비포장길로 남아있고 노폭도 27%는 5m 미만으로 좁아 농기계 이동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폐교 활용률은 높아 23곳중 20곳이 마을 주민위한 복지공간 및 교육 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

한·중 마늘분쟁 관련 언론 보도동향<요약>

◆ 중앙일간지

- 중앙 언론은 한국 정부의 중국산 마늘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복조치로 휴대용 전화기와 폴리에틸렌의 對中 수출이 6월 7일 19시 현지시각을 기점으로 잠정 중단된 사실에 대해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
- 언론은 휴대용 전화기와 폴리에틸렌의 對中 수출 중단 사태가 국내 무역수지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한·중 상호교역 확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비교열위품목은 과감하게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논조 유지.
- 각 언론은 한국이 연간 900만 달러 수입에 그치는 마늘시장은 지켜냈지만 반대로 5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폴리에틸렌과 휴대용 전화기 시장에는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실리 측면을 집중 부각, 한·중 마늘분쟁은 작은 것을 취하려다 큰 것을 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논평.
- 또한 중국산 마늘 긴급 수입제한 조치로 초래된 한·중 통상마찰은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조정기능 상실로 빚어진 부처이기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
- 특히 통상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한·중 교역 전반을 포괄한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 정부 협상창구의 재정비 및 통상전략 전면 재검검을 요구. 아울러 정치·경제적 힘이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는 중국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 냉혹하게 연구하고 분석할 것을 당부. 한편 중국산 마늘 긴급 수입제한조치의 정당성 여부가 현안으로 대두.

- 언론은 마늘 피해농가 구제를 위해서는 쿼터제 활용 등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내린 것은 4.13 총선과 관련해 정치적 영향력에서 비롯된 성급한 대응이었다고 지적, 정치논리를 앞세워 실리를 희생했다고 비난.
- 전반적으로 언론은 중국산 마늘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따른 통상마찰 해결을 위해 지난 6월29일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 불리한 협상을 자초한 예고된 실패였다고 평가하고, 한·중 마늘분쟁을 계기로 정부는 통상정책의 결정에 있어 부처간 협의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장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 지방일간지

- 지방일간지는 중국측이 자국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휴대 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보복 조치는 농산물에 맞서는 공산품의 무역 대응이어서 앞으로 우리 농업에 심대한 파장을 예고한 것이라고 우려.
- 언론은 현재 4만3천ha에 달하는 마늘 농지를 대체할 작목도 마땅치 않은 데다 이번 관세율 논란만으로도 국내 마늘시세가 폭락하고 매기가 끊기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전제, 중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 등 더 이상 마늘 농가를 희생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
- 또한 이번 한·중 마늘관련 협상에서 통상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고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포괄적인 종합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 통상당국은 농업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한다고 촉구.
- 7월6일 중국산 마늘에 대해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알려지자 일단 중국산 마늘의 수입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으나 결과적으로 수입제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마늘 재배농가의 타격을 우려.

- 이와함께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나면 농산물 수입제한 철폐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돼 이번 한·중 마늘 분쟁을 계기로 앞으로 밀려올 중국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논평.
- <광주일보> 등 호남지역 신문들은 한·중 마늘 분쟁으로 중간상들이 구매를 기피,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남지역 마늘농가의 수입이 지난해 비해 5백억원~6백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마늘 분쟁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

◆ 농업관련 전문지

- 농업관련 전문지들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로 촉발된 중국과의 무역마찰과 관련, 마늘 재배농가의 피해 현황과 중국산 마늘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현지르뽀와 관련전문가 칼럼 등을 통해 집중 부각.
- 전문지들은 우리측의 중국 마늘 긴급관세부과는 WTO체제하의 세이프가드 규정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하고도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42만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감안해 마늘농가를 희생시키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조로 일관.
- 특히, 일부 언론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이유로 마늘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익적이며 다원적인 기능을 가진 농업을 비교열위산업으로 치부해 양보론을 펴는 것이야 말로 소탐대실의 우려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
- 7월6일 한·중간 마늘 협상에서 30%의 낮은 관세로 2만톤 안팎을 수입키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자 언론은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합치면 3만2천톤이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것이어서 지난해 중국산 마늘의 총 수입량이 3만7천톤임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물량이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입제한 효과에 의문을 제기.

-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전문지들은, 마늘 분쟁으로 취해진 공산품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받는 대신 중국산 마늘에 대해 저율관세를 양보한 것은 마늘농가를 외면하고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업계를 선택한 것으로 농민들은 이제 기댈 곳이 없게 됐다고 비난하고 재협상을 요구.
- 이와함께 마늘 협상에서 중국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을 비롯해 최근 쇠고기 협상 등에서도 정부의 농민 보호 의지를 의심케 할만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농산물 통상 협상에서 농업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세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

* 정리: 농정분석실 홍보팀